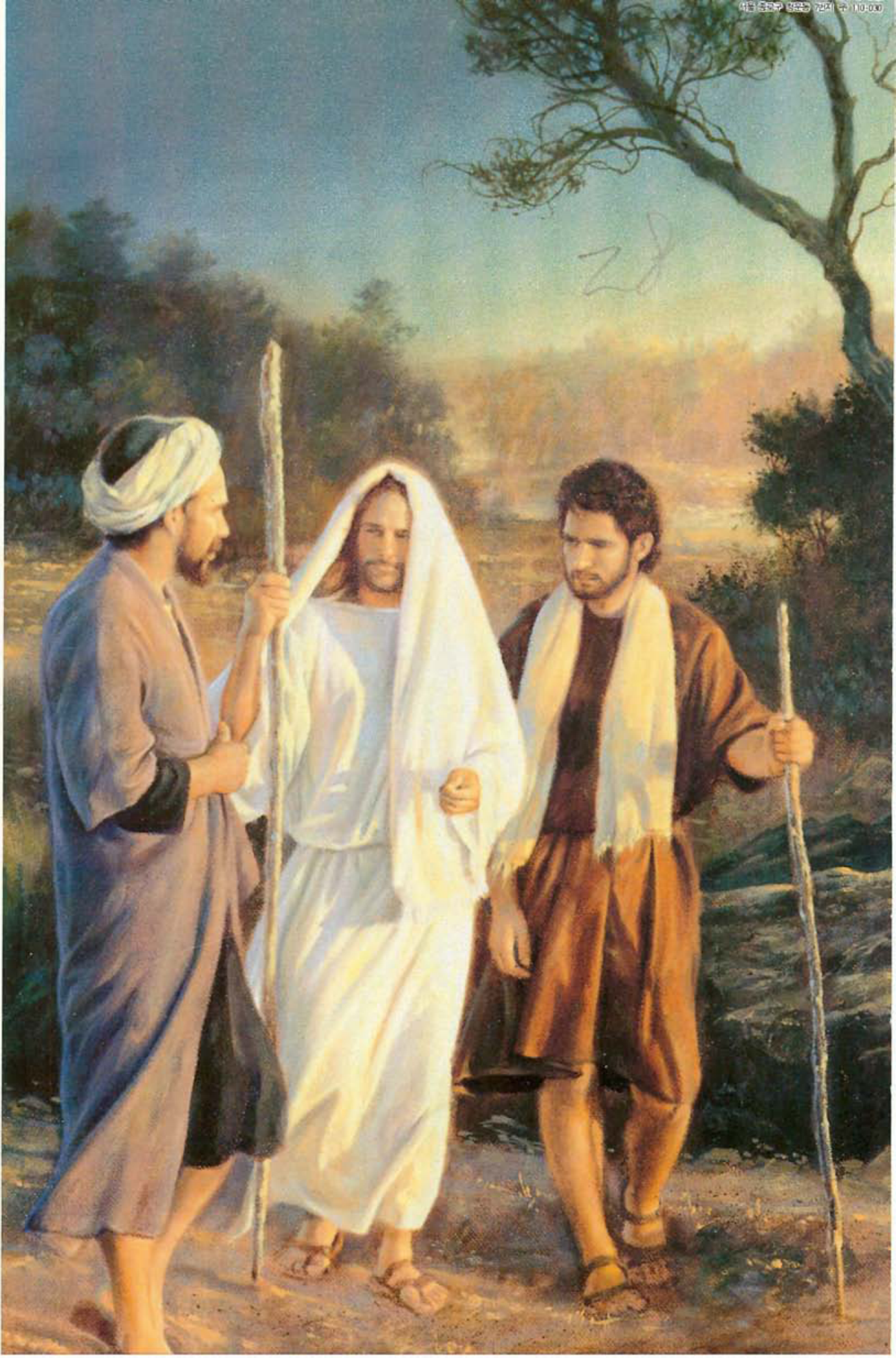


오안

교회





성수태 고지, 존 스콧 그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배실을 받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아인들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4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4년 10월 1~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10월 반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는 교회의 성장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일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에 따라 용기 있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죄 없는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 서약 및 성전 결혼을 통해 성전을 지상에서 우리의 최고 목표로 또 최상의 경험의 장소로 만듭시다.

“성전 안에서 가진 영적인 느낌을 우리의 자녀와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모든 선교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시다.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도록



동 모임의 태버네클(왼쪽)과 솔트레이크 성전을 향해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광경

계획하고, 가르치고, 권고합시다. 결혼 장소 및 남편과 아내를 맺어 주는 권능의 중요성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상기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통합니다. 이는

성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헌터 대관장은 10월 반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이같이 강력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했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각처에 있는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영어와 그 외의 다른 많은 언어로 인공 위성을 통해서 방영되었다.

대회 진행 순서에는 10월 1일, 토요일에 열린 대회 첫번째 모임에서 진행된 성회 동안 헌터 대관장, 핑클리 부대관장, 몬슨 부대관장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에 대한 지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교회의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의 지도자들이 지지를 받았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세 분의 총관리 직원이 지지를 받았으며,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총관리 직원 한 분이 명예 회원이 되었으며, 일곱 분의 총관리 직원이 해임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 부름받았으며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과 본부 청년 회장단 중 한 명의 보좌가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과 본부 청년 회장단의 보좌 한 명이 지지를 받았다. -편집자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말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불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각말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제간 -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판장단 : 허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사도 정원화 :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편집인 : 렉스 디 피네가, 조 제이 크라스턴스
 고문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린다, 존 에이치 크라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

관리 책임자 : 러셀 엠 니아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 브라이언 케이 풀리
 그래픽 책임자 :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 엠 엠 가외사끼

성도의 벗 :

관리 편집인 :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 알 발 존슨
 부편집인 :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 / 어린이판 : 디앤 워커
 스키즐 관리 : 메리앤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 스코트 번 캠퍼
 디자이너 : 세리 록
 생산 관리 : 레이날드 제이 크라스턴스, 제니퍼 태트와일라, 제인 앤 캠프, 데니스 카버
 구독 담당 스태프 :
 발행 부서 책임자 : 토마스 엘 피터슨
 배부 부장 : 조이스 헨슨
 마케팅 부장 : 조이스 헨슨, 린드 에이치 소렌슨

통 권 : 제346호, 제32권, 제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5년 1월 1일(일간지)

발행인 : 서원

편집인 : 한 상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사무실주소 :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재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프린트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 10/93 번역

승인 - 10/93 January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981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

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차(일본 등) 12,000원, 2차(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

차(중동 등) 23,200원, 4차(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아래의 주제는 다음 년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 가정 - 테네리오
- 가정 복음 교사 - 렉스 피네가
- 가정의 밤 - 그레슬리, 테네리오, 패트리샤 피네가,
- 가족 - 옥스, 테네리오, 래드, 헌터(신권 모임), 렉스 피네가
- 가족 기도 - 그레슬리, 테네리오, 패트리샤 피네가, 렉스 피네가
- 가족 역사 - 헌터(토요일 오전 모임), 넬슨
- 간증 - 헤일즈, 패커, 벨라드, 잭
- 결혼 - 스코트, 헌터(신권 모임)
- 경건 - 옥스, 그레슬리, 패커
- 계시 - 패커, 포터, 벨라드
- 기도 - 그레슬리, 패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모범 - 테네리오
- 모성 -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헌터(신권 모임), 오까자끼
- 물문경 - 벨라드, 렉스 피네가, 헌터(상호부조회 모임)
- 배도 - 포터, 벨라드
- 복음 - 우호트도르프, 힐클리(신권 모임), 위스린
- 복지 프로그램 - 힐클리(신권 모임), 오까자끼
- 봉사 - 헤일즈, 렉터, 헌터(상호부조회)
- 부모 - 테네리오
- 부활 - 위스린
- 사랑 - 렉터, 몬슨(신권 모임, 일요일 오전 모임), 힐클리(신권 모임)
- 선교 사업 - 넬슨, 헌터(일요일 오후 모임), 메이슨, 홀런드, 위스린
- 성신 - 스코트, 패커, 포터, 위스린, 잭
- 성전 - 헌터(토요일 오전 모임), 위크맨, 코스타, 홀런드, 넬슨
- 성회 - 헤이트
- 소망 - 맥스웰
- 속죄 - 맥스웰,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순결 - 스코트, 위스린
- 순종 - 헤일즈, 렉터, 파우스트, 렉스 피네가
- 스미스, 요셉 - 헤일즈, 우호트도르프, 포터, 벨라드, 파우스트, 위크맨
- 신권 - 에즐리, 우호트도르프, 헌터(신권 모임)
- 신앙 - 헤일즈, 맥스웰, 패커, 포터,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오까자끼
- 어린이 - 옥스, 그레슬리,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패트리샤 피네가, 렉스 피네가

- 역경 - 테네리오, 위스린
- 영원한 결혼 - 위크맨
- 예수 그리스도 - 헌터(토요일 오전 모임, 일요일 오후 모임, 상호부조회 모임), 옥스, 그레슬리, 헤일즈, 맥스웰, 벨라드, 위스린, 위크맨
- 음악 - 옥스, 패커
- 자유의지 - 넬슨
- 지지 - 헤이트, 페리, 홀런드
- 지혜의 말씀 - 패커, 포터, 위스린
- 찬송가 - 옥스
- 침례 - 패트리샤 피네가, 넬슨
- 학대 - 헌터(신권 모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 회개 - 렉터, 스코트, 우호트도르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 (가나다 순)

- 그레슬리, 미셸린 피 12
- 넬슨, 러셀 엠 84
- 래드, 더블류 돈 28
- 렉터 이세, 하트만 25
- 맥스웰, 닐 에이 34
- 메이슨, 제임스 오 30
- 몬슨, 토마스 에스 43, 68
- 벨라드, 엠 러셀 65
- 스코트, 리처드 지 37
- 에즐리, 리처드 시 39
- 오까자끼, 지에프 앤 92
- 옥스, 델린 에이치 9
- 우호트도르프, 디터 에프 41
- 위스린, 조셉 비 75
- 위크맨, 랜스 비 82
- 잭, 엘레인 엘 89
- 코스타, 클라우디오 알 엠 27
- 클라이드, 에일린 에이치 94
- 테노리오, 호레이쇼 에이 23
- 파우스트, 제임스 이 72
- 패커, 보이드 케이 59
- 페리, 엘 톰 17
- 포터, 엘 알든 62
- 피네가, 렉스 오 80
- 피네가, 패트리샤 피 78
- 헌터, 허워드 더블류 7, 49, 87, 96
- 헤이트, 데이비드 비 14
- 헤일즈, 로버트 디 20
- 홀런드, 제프리 알 31
- 힐클리, 고든 비 46, 52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4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성회에서 교회 직원들을 지지함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7.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9.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12.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레슬리 자매
14. 성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7.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앨 톱 페리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20.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23.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25.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맥터 이세 장로
27. 성공에 이르는 값진 원리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28. "빙주를 지으라" 더블류 돈 래드 장로
30. 아프리카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
31. 회복의 기적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34.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신권 모임

37. 의로운 선택을 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9. 내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리차드 시 에즐리 관리 감독단 제2보좌
41.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다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
43. 형체를 지키는 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46.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49.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될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2.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59. 개인을 위한 계시: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페커 회장 대리
62. 하늘에서 온 계시 벨 알든 포터 장로
65.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68. 고아와 과부들-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72.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75.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78. 어린이를 가르치라 페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
80.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82. 너희는 거룩한 곳에 살지니
랜스 비 워크맨 장로
84. 엘리야의 영 러셀 엠 벨슨 장로
87.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상호부조회 대회

89.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엘레인 엘 켄 자매
92. 배를 저어 감 지에코 엔 오까자키 자매
94. 사랑과 배움 에일린 에이치 클라우드 자매
96.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98.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99. 세 분의 칠십인 정원회 회원,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및 청년 회장단 한 명이 새로 부름받음
102. 새로 부름받은 자매들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나눔
104.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설명: 엠마오로 가시는 그리스도, 그레그 케이 윌슨 그림.
부활하신 후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과 동행하셨다. 구세주께서 그들과 경전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을" 알아보았다. 그후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주께서 살아 나셨느니라"고 간증했다.(누가복음 24: 13-35 참조)

성회에서 교회 역원들을 지지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 제 자에 여러분, 헌터 대관장님은 저에게 우리가 모인 이 성회의 행사를 집행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세계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정원회와 그룹별로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 요청받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에게 호명되는 분들에 대한 지지를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서 계신 분들만이 거수를 해야 합니다. 뜻을 표하신 다음에는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템플 스케이의 어셈블리 홀과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 계시는 총관리 역원들은 그 곳에서의 지지 상황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스테이크장단의 일원이 지지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반대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지지 모임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전세계의

수많은 예배당과 가정에서도 실시될 것입니다.

대관장단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장단은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대관장단에 의해 발표되고 지지받은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와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



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대관장단에 의해 발표되고 지지받은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참석하고 계시든, 다음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받은 모든 축복사와 대제사 및 장로 정원회의 모든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발표되고 지지된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



성회 동안 모든 회중이 일어나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고 있음.

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 즉 모든 성임된 제사, 교사 및 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앞서 발표되고 지지된 그의 보좌들과 심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앞서 일어났던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중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워드 윌리엄 헌터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발표되고 지지된 대로 그의 보좌들과 심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자리에 앉은 채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교회의 본부 직원들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렉스 디 피네가, 칼로스 이 에이시, 찰스 디디에이, 엘 알든 포터, 조 제이 크리스티슨, 몬트 제이 브러프,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로렌 시 던,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존 에이치 그로버그, 본 제이 페더스토운, 딘 엘 라슨, 로버트 이 웰즈, 제임즈 엠 패러모어,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로날드 이 포울맨, 에프 버튼 하워드, 테드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슬

린드, 안헬 아브레아, 존 케이 카믹, 제이 리처드 클라크, 한스 비 링거, 말린 케이 켄슨, 얼 시 텅기, 알렉산더 비 모리슨, 엘 라이오넬 켄드릭, 해롤드 지 힐렘,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벤 비뱅크스, 스펜서 제이 콘디,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헨리 비 아이어링, 글렌 엘 페이스, 에프 멜빈 하몬드, 케네스 존슨, 린 에이 미컬슨, 닐 엘 앤더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크리 엘 코포드,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앤드류 웨인 피터슨 및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를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에두와도 아알라, 리그랜드 알 커티스, 헬 베시오 마틴스, 제이 벨라드 워시번, 더럴 에이 울지, 더블류 맥 로렌스, 톨런지 크레이븐, 조셉 시 뮤튼,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호르헤 에이 로하스, 홀리



성회 동안 지지하고 있는 대관장단: 왼쪽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

오 이 다빌라, 한인상, 스티븐 디 네이 돌드, 샘 케이 시마부꾸로, 리노 알바레즈, 달러스 앤 아치볼드, 시 맥스 콜드웰, 게리 제이 코울먼, 존 비 딕슨, 존 이 파올러, 제이 이 켈슨, 아우구스토우 에이 림, 존 엠 매드슨, 브이 델러스 메릴, 데이비드 이 소렌슨,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타이 퀴 유엔, 로웰 디 우드,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더블류 돈 래드, 제임스 오 메이슨,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및 랜스 비 워먼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 감독단으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를 제1보좌로, 리차드 시 에즐리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님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분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앨버트 출스 이세, 로이드 피 조조지, 제럴드 이 멜친, 멜콤 에스 켈슨, 리차드 피 린지, 멀린 알 리버트, 호레이쇼 에

이 테노리오 장로를 해임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뜻을 함께 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님은 1994년 4월 9일에 작고하시기 전까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감사하고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멀린 알 리버트 장로님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셨던 로날드 이 포울먼 장로님께 감사하며 이분들을 해임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셨던 미셸린 피 그레슬리 자매님과 베티 조 엔 켈슨 자매님, 루스 비 라이트 자매님, 그리고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셨던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님께 깊이 감사하며 이분들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부 어린이회의 모든 임인들을 해임합니다.

매우 훌륭하게 봉사해 주셨던 이 가장 충실한 자매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찰스 디디에이, 제이 벨라드 워시번, 에프 버튼 하워드 형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패트리샤 피터슨 피네가 자매를 새로운 본부 초등학교 회

장으로, 앤 폴린 위슬린 자매를 제1보좌로, 수잔 릴리화이트 워너 자매를 제2보좌로, 보니 덴시 파킨 자매를 본부 청년회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다른 본부 역원들과 임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터 대관장님,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태버나를 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제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손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저희를 지지해 주셨음을 느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과 새로운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및 파킨 자매님은 단상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우리가 세상의 생활 방법을 멀리할수록 교회는 더욱 훌륭한 피난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서거를 슬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작고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높고 성스러운 부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열세 분이 맡아 오셨던 이 부름을 맡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장막 저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들만은 제가 이 거룩한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인간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저의 확고한 간증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위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교회를 잠시 동안 관리하도록 친히 쓰시는 도구로 부름받은 것을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닥쳐올 부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짊어지면서, 저는 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손길을 보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여러 번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저의 기력을 회복하여 주셨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분이 왜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는지 의아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의문을 제쳐놓고 여러분과 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갖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의 아내와 가족과 총관리 역원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의 건강에 관심을 보여주신 충실한 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지지된 지 35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준비되어 왔습니다. 저는 남북 아메리카, 유럽, 동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와 바다의 섬들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간증을 전해 왔습니다. 여러 번 저는 성지를 다녀왔으며 거기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을 걸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맑고 영은 젊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놀라운 체계를 세우게 한 계시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성임되

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별된 사람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받고 성임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리를 가르치고 이와 같은 관습을 세우고 유지하는 권능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병이 나거나 그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함께 하는 두 보좌가 대관장단 정원회를 구성하여 대관장단의 일을 수행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교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서 평의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찰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 일치로 찬성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정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감에 의해 마련된 절차를 따라, 교회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전진해 나갑니다. 교회의 통치와 예언적인 은사의 실시는 언제나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갖고 실시하는 사도들의 권능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90여년 전에 이와 비슷한 경우에 느끼셨던 바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보좌인 부대관장님들이 제가 행하는 모든 책임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제안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제가 동의하는 대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한 사람이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또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 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평화와 진보와 행복과 시온 건설에 필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 저를 도와 주고 계시니 이런 책임을 혼자서 떠맡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거나 오늘 이 신권 소유자들 앞에서 맺은 성약을 잊는 것을 형제님들이 보게 되면, 저의 형제로서, 신권 보좌로서, 시온탑의 파수꾼으로서, 제가 지금 대회에 모인 회원들에게 맺은 성약과 약속을 상기시켜 줄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회중에게 인사하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중앙.

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한 사람이 모든 권능을 다 지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분은 교회에 대제사, 칠십인, 장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낮은 신권의 직분을 두셨으며, 이 직분들은 모두 주어진 권능과 반차에 따라 필수적인 조직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회 보고, 1901년 10월, 82쪽)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그 말씀은 오늘 저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임 대관장님들이 그랬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여호와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시편 28:7)라는 말씀을 바칩니다.

저는 처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의 회원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안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망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친절과 예절과 인내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기를 기원합니다.

죄와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께, 우리는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야말로 완전한 용서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서십시오. “날 따르라”(마태복음 16:24; 19:21; 마가복음 8:34; 10:21; 누가복음 9:23; 18:22; 요한복음 21:22; 교리와 성약 38:22 참조)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분이 야말로 유일하게 분명한 길이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귀한 말일성도들의 표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표준을 정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우리가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탐구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으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베드로후서 1:3-4)

저는 그러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외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와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교리와 성약 59:23)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모든 말일성도들께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바라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길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개인이나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리 관계로 성전을 자주 방문할 수 없으면, 가족 역사 자료를 모아 조상들이 성전에서만 수행되는 거룩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명을 준비하십시오. 계보 사업은 성전 의식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여러분 가까운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들이 이미 발표되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성전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우리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성전과 유타주 바운티플 성전을 헌납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행되는 의식 중에,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기본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의 형태는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인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맞을 신성한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가정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그들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주께서 계시한 바와 같이 세울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활 방법을 멀리할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한 요새가 되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와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오르며 아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함께 오라" (이사야 2:3)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깊이 숙고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곧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금이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큰 소리로 외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 당신 안에서 자라나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며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리와 성약 109:14-15)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봉사 활동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저의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자가 되며,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길 겸손한 마음으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음악을 통한 예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증드립니다.

저는 지난 봄에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3천 여명의 성도들이 지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순서지에 모임에서 부를 찬송가가 인쇄되어 있었으나, 포르투갈어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합창이 시작되었을 때, 그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의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아침해 솟아 오르네
(찬송가, 4장)

성스러운 음악의 기적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경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음악은 우리 교회 집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간증과 신앙을 키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찬송가, 1985, ix쪽) **51.27** **독(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임에서나 교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늘이 보내 주신 이 자원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에 저는 하와이에 있는 교회의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섬 나라의 무용과 음악을 보여

현 터 대관장님, 저희에게 영감 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 부름받고 지지받은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찰스 웨슬리의 영감에 찬 가사인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를 훌륭하게 노래한 물론 청소년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회의 행사를 통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인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벽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교회 대관장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힐러리 부대관장님과 몬슨 부대관장님을 지지하는 특권을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르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지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하늘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가 이 엄숙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지지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대회 참석자들을 향해 웃고 계시는 하워드 더블류인터 대관장.

주는 저녁 쇼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공연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무대 뒤로 갔습니다. 쇼가 시작하기 전 아주 어수선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공연자들이 빨리 움직여야 하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바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출자가 어떻게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잘 정돈시켜서 저의 짧은 인사말을 듣게 만들까 하고 궁급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연출자의 신호에 따라 큰 목소리로 부른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의 찬송은 곧 아름다운 합창으로 변해 갔으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주님과 일치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자녀들과 14명의 손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족 소풍을 갔습니다. 활동 중의 하나는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모였습니다. 어린 손자들은 그저 정신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작은 몸집의 영들은 지금까지 신나게 놀았던 일의 연속으로 소란스럽게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모인 모두목적은 너무 작아서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고향 소리는 여기 저기서 울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단호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들의 순간적인 지혜로 저희의 노력을 대신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몇 분 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해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찬송가와 그 찬송가를 이용할 줄 아는 어머니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5.1.21 **제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회복된 교회의 교리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티븐 디 네이플드 장로는 이러한 독특한 장점을 몇 줄로 적어 총관리 역원 모임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만일 내가 능력으로
 교리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려 한다면,
 먼저 고상한 음악으로
 인간의 영혼을 준비시키리.
 이 진리가 그의 마음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숭고한 메시지가 담긴
 시인의 노래를 부르리

경전의 여러 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방법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와 사도들은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들었던 다락방에서 나오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마치고 구세주는 그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마태복음 26:30 참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골로새서 3:16)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 계시에서도 성스러운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초기의 예언 가운데서 주님은 엠마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교회에서 사용할 거룩한 찬송가의 선정을 내게 맡기노라.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외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1~12)

한 세대 후에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노래와 음악으로 주를 찬양하라"(교리와 성약 136:28)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지시는 큰 모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의 사도들이 현대에도 함께 모일 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여전히 모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매 주 모임을 가질 때 언제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이 오르간 반주를 하십니다. 이 모임을 사회하는 대관장단이 개회 찬송을 선택하는 특권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찬송가를 부른 날짜를 기록합니다. 제 기록에 의하면 내가 참석했던 10년간 가장 자주 불렀던 개회 찬송은 "늘 함께 합소서"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모여 그들의 막강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기원하기 전에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에 관해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악을 통해 경배할 때 성전의 장막은 아주 얇아지게 됩니다. 성전 헌납식에서 저는 영적인 말씀보다 음악에 감동되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찬송가를 불렀던 천사와 같은 합창단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으며 저 자신은 여러 번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납식에서 약 30명 정도의 아름답고 잘 훈련된 합창단이 있게 마련인데 어떤 때는 30명의 열 배가 넘는 소리로 수준높고 강한 느낌을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듣는 분 중에서는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게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음악에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우리의 예배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서 경배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찬송가의 영감에 찬 가사를 통해 그러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중이 음악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특별한 임무를 마치고 나서, 성전식에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근처의 한 와드 예배당에 차를 세우고 눈에 띄지 않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마침 회중들이 성찬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위대한 계획 이루시려
 만민 위해 피흘리사

돌아가신 한량없는
그 사랑 찬송합니다.
(찬송가, 117장)

이 놀라운 찬송가를 부를 때 저의 마음은 부풀었고 성찬을 들면서 우리의 성악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 돌아가시어서
만민 구속하셨으니
호산나 찬미 부르며
그 사랑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소절을 부를 때 회중으로 모인 회원들을 돌아보고는 그들 가운데 삼분의 일 정도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조차 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량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거나, “호산나 찬미”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 의식에서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 기록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찬송 부르기를 포함한 예배에 게을리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예배에 열중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아 왔습니다. 시온의 중심이 되는 스테이크에 속한 우리들은 찬송가 부르기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통해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가사의 내용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는 진리나 시적인 효과 면에서 경전을 능가하는 교리적인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휘자나 반주자가 정해진 속도에 따라 인도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예배의 분위기는 감소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음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건전한 환경에 알맞는 많은 음악들이 교회 모임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기에 알맞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고전 음악을 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찬송가를 연주할 때, 주님의 영이 나의 연습실에



성회 동안 십이도 장원회의 회원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어 지지하고 있음.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독주자들은 예배에서의 음악이 예배를 위한 것이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악곡이나 기악곡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예배에 알맞는 곡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음악은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우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할 음악과 악기를 선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창단에게 그들이 기본 연주 곡으로 찬송가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이유

입니다. 우리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판장의 장례식에서 불렀던 칼스 고우노드의 “오 거룩하신 구속주”와 같이 우리의 찬송가의 영에 일치되는 찬송가 밖의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실려 있는 곡들이 합창단이나 성악가나 기악가를 위해 가장 영감적이고 합당한 곡들입니다. (마이클 에프 무디, *엔사인*, 1994년 8월호)

성스러운 음악은 정식적인 연주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흥얼거리거

나 가사를 외움으로써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엘사인*, 1974년 1월호, 25~28쪽)

우리의 찬송가는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소수이며,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때라도 기적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한 음악 발표회에 참석했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 파크 스테이크 소속의 솔트레이크 벨리 농아 워드에서 주최하는 그레이트 베이슨 딸일성도 농아 대회에서 말씀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농아 형제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에 스테이크장님과 저 만이 들을 수 있고 소리내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회중들은 수화로 노래를 했습니다. 단상에 앉은 네 사람의 작은 목소리와 오르간 소리 외에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중 가운데 모든 손들은 그들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1985년 31쪽)을 부를 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일제히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음악은 기도와 복음의 가르침을 준비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배우고 가르치도록 찬송가를 보다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가르칠 때나, 복음 교리반이나, 정원회나, 가정의 밤이나, 가정 복음을 할 때, 찬송가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영감이 필요할 때, 찬송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5.1.21**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엘마서 5:26)을 가진 우리들은, 거룩한 음악으로 영감을 주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도록 명하신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오늘 우리가 지지한 분들의 거룩한 부름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들이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

미셸린 피 그래스리 자매
최근에 본부 초등협회 회장에서 해임됨

어린이들은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스스로 구별하여 올바른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나의 마음과 손과 음성으로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나는 또한 오늘 패트리샤 피네가 자매님을 새로운 본부 초등협회 회장으로 지지한 조치를 지지합니다. 초등협회에서 봉사한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러한 경험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피네가 자매님과 워스린 자매님 그리고 워너 자매님을 알고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이 훌륭한 손길에 맡겨져 있음을 압니다. 이 새로운 회장단이 잘 수행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딸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언제나 어린이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대관장단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세계의 사정을 인식하시고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할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의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전보다 더 사랑하고, 보호하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잘 가르치고,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주님의 영원 평화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엘사인*, 1994년 1월호, 80쪽 참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귀중한 자들이며, 그들은 세상에 선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가져다 줄 자들은 바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힘이 있고, 강하고, 독립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덟 살 된 린지는 학교의 산수 시험이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제 친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가 쓴 답안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학기 초에 가졌던 가정의 밤을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정 행위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더 낫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권하는 것을 도와주면, 저

또한 권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이 저와 제 친구를 부르더니 우리들의 답안지가 똑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리낌없이 선생님을 쳐다보며 권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친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애는 울고 있었어요. 그 애는 선생님께 제 답안지를 훑쳐 보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정직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요.”

어린이들은 린지가 행한 것처럼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스스로 구별하여 올바른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별력을 다스리는 원리들을 공부하던 중에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중 한 가지 발견은 값진 진주의 모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태초부터 끝 날까지의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 “사탄이 와서 저를 유혹하여 말하되 인간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12절)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사탄의 대결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모세가 사탄을 바라보고 이르기를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닮은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너를 경배할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13절)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사기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안다면, 그들은 또한 잘못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잘못을 알았을 때, 그는 곧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사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미혹하지 말라”(15~16절)

사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19절)

모세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고탈 소리는 모세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다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사탄은 큰 소리를 지



성회 동안 최심인 평원회의 회원들과 관리 감독단이 손을 들어 지지하고 있음.

르고, 울며, 이를 갈더니 곧 떠나갔습니다.(20~22)

모세가 잘못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여 도움을 구했으며 두려움을 이겨 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를 무섭게 하려는 시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구하고 사랑하며, 그것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데, 첫째, 그들에게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말해 주고, 우리가 원리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노는 시간, 계획된 공과, 그 외 예기치 못한 가르치는 기회—이 모든 시간이 가르치기에 알맞은 시간입니다.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각 어린이와 단 둘이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진리를 심어 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임명하신 진

리의 교사들을 거부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진리를 알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근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초등학교로 데리고 가는 것을 포함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활용하십시오. 초등학교 지도자와 교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도움과 잊지 못할 복음 공부와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로 인도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초등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돕고, 축복하는 동시에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은 최근에 초등학교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기회를 가진 자들은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거룩한 기원과 그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귀중한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자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것으로부터 참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를 분별하고 의롭게 선택하는 연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들이 떠날 때마다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은 “예, 정의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의반의 상징이 “의를 선택하라” 입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가 아는 한 가족은 그들이 다치게 될 상황을 역할 담당극으로 표현하고, 그 상황에 대한 가능한 대답을 연습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녀들은 문제가 다치기 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들 자녀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며 그들의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들은 자신 있게 반대의 목소리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들이 잘못을 범하거나 교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어린 시절의 진리에 대한 느낌과 기억이 그들을 교회의 진리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해 줍니다.

제가 어린 소녀였을 때, 저의 부친은 제 침대 곁에 앉아서 여동생과 저에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택했고 사탄의 것은 거절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친은 또한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면 사탄은 기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결심은 제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복음 가르침에 몰두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연습을 할 기회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도,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는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회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주 사랑 느껴요. 날 축복해 주셔요.
내 마음 바쳐요. 내 목자 되신 주.
나 주님을 따라서, 내 생명 바쳐요.
주 사랑 느껴요. 값없이 주신 사랑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0 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아멘. □

성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오는 지시와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저는 하늘이 인도하는 이 모임에 성신의 인도와 영향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여 왔습니다. 교회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모임의 진행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서거를 맞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걸친 충실한 봉사를 통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한편, 깊은 애국심과 이 나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시간과 지도력을 헌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민된 부름의 연속으로 장막 저 건너에서 영원한 동반자 플로라 자매와 그 밖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모임, 곧 하늘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성회에 대한 증인이 되었으며 또한 직접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성도들이 오늘 아침 이 모임에서와 같이 한량없는 주님의 영을 받기 위해 많은 금식과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성회는 대

관장단의 지시 아래 성도들이 모이는 성스럽고, 진지하며, 경건한 모임입니다. 성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의 헌납, 신권 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지시,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의 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새로 부름받은 교회의 대관장과 교회의 다른 역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성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는 다른 일반 교회 모임과 성회를 구별하는 한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대관장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신권 정원회별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교회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을 나타내어 보이며 바로 그들의 신뢰와 신앙, 그리고 기도로서 대관장을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권 정원회는 거수로서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 앞서 언급한 것들을 행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들의 직분과 부름에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모든 신권의 열쇠를 정당하게 지닌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오는 지시와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약입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교회 대관장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든 말로 받아들이라.

“그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교리와 성약 21:5~7)

첫번째 성회는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거수 절차가 끝난 다음의 일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하였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그 직분에 손을 들어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하늘의 축복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교회 장사, 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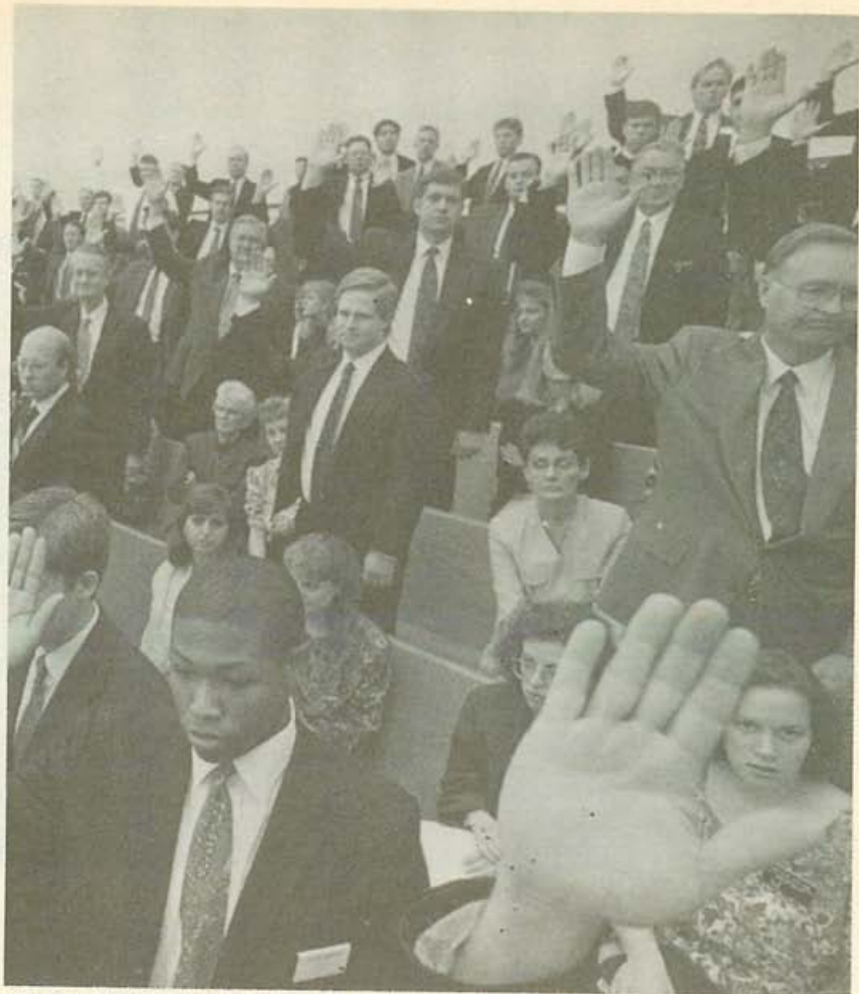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만장 일치의 원리를 행사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며 책임입니까? 그것이 너무나 성스럽기 때문에 위대한 신권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영적인 관리 역원들로 구성된 몇몇 정원회의 성회에 제출될 수”(교리와 성약 107:32)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대관장]이 없는 곳에서 대관장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98쪽)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서거하면,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바로 교회의 관리 역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 대관장이 그 직분에 공식적으로 성임되고 성별될 때까지, 이 정원회의 회장이 교회의 대관장 서리가 됩니다.

신앙개조의 제 5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가 교회의 대관장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따른 계시된 절차는 바로 그분이 주님으로부터 영감받은 부름, 곧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아 성임되고 성별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름과 성임을 통해 새로 부름받은 사도는 이미 사도 직분을 지닌 다른 열한 명의 형제들과 함께 같은 신권 정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각 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닌 교회 대관장의 지시 아래 성임됩니다. 그리고 대관장은 새로운 사도에게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지니는 데 필요한 신권 권능을 부여합니다.



성회 동안 축복사들과 대제사 정원회 및 경로 정원회의 회원들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살아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권세와 권한이 초기 정원의 시대에서 똑같은 권세를 지녔던 사람들의 성임에 의해 최초의 교회 역원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신약 시대에 사도 직분의 권능을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사도 직분의 열쇠를 받았습다. 바로 이 권능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래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 시대에 사도의 권위를 모방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요셉 스미스가 보낸 한 장로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 장로는 부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대제사이며 하늘에서 온 천사로부터 성임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몇몇 교회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예언자는 그 장로를 오하이오로 소환하여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장로는 곧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고백하고는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십이사도 중의 한 분이었던 울슨 하이드는 당시 예언자의 학교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가르친 원리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어떠한 천사도 사람을 성임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아 나를 성임하여 신권을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임하는 권세를 지닌 신권이 이미 이 지상에 확립되면, 하늘의 사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성임함으로 해서 그 권세를 간섭하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 천사에 의해 성임 되었음을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또는 범법의 결과로 말미암아 악마의 천사가 강요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신권이



성회 동안 이혼 신권을 소유한 형남들이 일어나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음.

결코 이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846년 11월 20일자, 139쪽)

훗날, 역시 십이사도였던 조지 큐 케년 장로는 이러한 원리를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곳 지상의 사람에게 성신권의 열쇠를 부여한 뒤에는, 이 열쇠를 지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할 권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결코 그것들을 취하여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설교집*, 13:47)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조지 큐 케년 장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천사의 방문으로 사도의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짓 모방자”들을 향한 경고와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속아서 이러한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지지하였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충실하며, 학구적

이며, 온화한 분입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을 경험하였으며, 심각한 병의 고통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셨으나, 조상이 물려준 스코틀랜드인의 기질로 전혀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사랑하는 아내 클레어리 자매의 침대 곁에 앉아, 병석에 있던 그녀를 극진히 돌보았던 그는 참으로 애정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헌터 대관장이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를 서서히 잃어 갈 때 겪은 슬픔과 고독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헌터 대관장은 개인과 인류를 향한 인정과 감사, 은혜, 자비를 이해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지녀야 할 성자의 기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40여년 전에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감독으로 성임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의 축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대 와드의 회원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영예스러운 감독으로 알려질 것이며, 장래에 이들 회원들이 그대가 하도록 부름

받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 그대가 주는 축복과 인도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눈물로 그대에게로 나아올 것입니다.”(*엘리노어 노움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94년, 101쪽). 돌이켜볼 때, 이 축복은 성취되었습니다.

1950년 2월, 하워드 더블류 헌터 감독은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와 해롤드 비리 장로에 의해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스테이크의 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헌터 스테이크장은 탁월하게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선교 사업 등 신권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을 수행하며 날로 확장되어 가는 교회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로스앤젤레스 성전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헌터 대관장님이 보여준 지도력과 강한 도덕적 가치관은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 조직과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회에서 그분이 남긴 강한 영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59년 10월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헌터 형제를 사도 직분에 부르셨습니다. 그 대회에서 맥케이 대관장님은 헌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서는 주님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며, 내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지지될 것입니다.”(노울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144쪽)

예언자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인데, 이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요한계시록 19:1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9쪽 참조)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한 분의 설교, 저서, 가르침은 그분이 참으로 예언자이며,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헌터 대관장님이 교회 회원들과 세상에 전한 우리 주님과 구세주에 대한 많은 말씀 중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전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된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영화로운 불멸의 삶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울과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우리 경륜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그는... 오늘날 그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성도의 빛*, 1988년 7월 호, 20쪽)

제 온 마음과 온 육신으로, 저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및 교회 대관장으로, 또한 대관장단으로 그분의 곁에서 보좌하시는 고귀한 분들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을 지지하며, 이분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인 이분들 모두가 충실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영감 받은 종들이십니다. 바로 이분들께서 전세계적으로 더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향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엘 톨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의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도록 지켜 주심을 알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래슬리 자매님, 자매님께서 것처럼 명감에 찬 충실함으로 이끌어 온 제 손자녀들과 수십만 명의 교회의 다른 훌륭한 젊은이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30년 4월 6일은, 말일성도들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날입니다. 물론 경의 번역과 인쇄가 완료되고,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를 이 지상에 다시 조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기나며 오던 교회의 회원들이, 뉴욕 페이엠티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24세였던 요셉 스미스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종교 단체로 발족시키기 위한 뉴욕주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를 도울 다섯 명의 보조자를 지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엄숙히 기도한

후에 요셉 스미스는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를 새로 조직한 교회의 교사로서 그리고 영적인 고문으로 불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른 손을 들었으며, 교회 역원을 지지하는 형식이 정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교리와 성약 21편에 포함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 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1~2절)

오늘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우리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기 위해 오른 손을 들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예언자를 갖는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해야 할 모임이 끝날 때 잠시 교회의 대관장을 선견자와 예언자로 지지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선견자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영광과 권세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견자들이었습니다.

선견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된 것은 몰몬경 가운데 암몬이 리하이-니파이 땅을 찾았을 때입니다. 암몬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리하이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



성회 동안 태버나클 밖에 있는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음.

하고, 암몬에게 그들이 헤어진 후 그들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 림하이 왕은 그의 부하를 보내어 그들이 제이라 헤물라를 떠나왔을 때부터 그의 백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판들을 암몬에게 가져와 그가 그것들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암몬이 그 기록을 읽자마자, 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록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암몬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진실로 이 기록을 번역할 만한 자를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그이는 고대에 기록된 온갖 기록을 보고 또 번역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요.

“왕이 암몬에게 선견자는 예언자보다도 뛰어난 자라 하는지라.

“암몬이 이르기를 선견자는 계시자요, 예언자이며,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자 외에는 누구도 큰 은사를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을 수 있나이다.

“그러나 선견자는 과거사와 장차 일을 알며, 선견자를 통하여 만사가 계시되고, 온갖 은밀한 일이 밝혀지고 감추어진 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며,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알려지고 앞으로 알려지리니, 선견자로 말미암지 않고서 알려질 길이 없는 고로.”(모사이야서 8:

13, 15~17)

예언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어로 예언자는 “영감받은 교사”를 의미합니다.(물론 *백과 사전*,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편, 4권, 뉴욕: 맥밀런 출판사, 1992년, 3:1164) 히브리어에서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존 에이 워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자는 교사입니다. 이것은 이 말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사는 진리의 본체, 즉 주님에 의해 인간에게 계시된 복음을 가르치시며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를 설명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는 인간의 행위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임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진리로부터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는 인간의 가족에 관한 주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투사가 되십니다. 그의 생애의 목적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사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가 주님의 영에 의해 권세로 가득 찰 때까지 주님과 밀접한 교제에 의해 행해집니다.(증거와 조정,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3년, 204~205쪽)

저의 부친은 말일성도 고등학교에 다니실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집에서 일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분은 스미스 대관장님에 대한 역사를 이렇

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알았던 대부분의 위대한 분들은 깊이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데,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의 평범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위대성이 더 커져 갔다. 그분이 손을 씻으실 때나 신발 끈을 푸실 때에도 나에게 예언자이었다.”

저의 부친은 어느 늦은 밤, 비하이브 하우스에 들어가실 때에 예언자께서 실질적인 교훈을 주셨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서 사무실을 지나, 개인 서재로 들어가서 내 침실로 향한 계단 맨 아래쪽에 위치한 문까지 갔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여러 번 밀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홀에 있는 양탄자로 가서 그곳에서 아침까지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반쯤 열린 다른 쪽 문에 머리를 쿡 부딪쳤고, 그 소리에 놀라 예언자는 잠에서 깨셨다. 그분은 불을 켜시고 누구인가 보시더니, 계단으로 내려 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 보셨다.

“나는 내 방 문이 잠겨 있었다고 설명해 드렸다. 그분께서는 그 문으로 가서 문을 밀지 않고 잡아 당기셨다. 그랬더니 그 문이 열렸다. 그분이 나의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화를 내셨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그분의 귀중한 수면 시간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마구간에서 일하는 아이인 내게 그와 같은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셨다. 나는 홀 다른 쪽 끝에 반쯤 열려 있는 문을 가리켰다.

“그분께서는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시며, 한밤중인데도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셨다. ‘이두울 때는 양팔을 앞으로 벌리고 더듬거리며 가서는 안된단다. 그렇게 하면 문에 부딪치게 되지. 팔을 앞으로 하되, 손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내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장애물을 발견하게 될 거야.’ 나는 그분께 감사드리고 내 방으로 왔다. 그분은 내가 뒤 계단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침실로 들어가셨다.”

예언자는 위대한 빛과 진리에 이르는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문을 열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언자는 세상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는 회원을 돕는 교회 앞에 모아진 두 손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예언자는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갈 때, 우리를 지켜 주시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 같이 글이나 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전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분석가들이 다른 분석가들을 분석하는 것을 보며, 수많은 다른 견해와 의견들로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자녀들과의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도록 지켜 주심을 알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서 3:7)

주님께서 자신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며, 그 해석은 오직 한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지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공부를 하며 지식을 얻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근본적인 교리를 선포하는 자는 오직 한 분만 인정하고



성회 동안 대버내를 밖에 있는 형제들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음.

계십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교리나 정책의 해석에 있어서 일치를 기하기 위해, 여러분은 경전이나 교회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정책상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대관장단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할 때, 반목이나 혼동이나 다른 의견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가 예언자를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이 잘못 인도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는 것에 관해서 염려하기 않아도 되며, 여러분은 어머니 팔에 안긴 아기처럼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한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상에서 속히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힘이 닿는 한 자신의 신앙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설교집, 9:289)

오늘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에 따르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계시자로 지명하셨습니다.

헌터 대관장님께서 브리감 영 대학교의 매리엇 센터에서 있었던 지역 회의를 마칠 무렵, 헌터 대관장님의 성품을 보여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는 헌터 대관장님이 다시 막 서기 시작하여 보행기를 사용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

아들 리도 그의 세 자녀와 함께 대회에 참석하고, 헌터 대관장님의 뒤를 따라 같은 서쪽 터널로 건물을 나오고 있었습니까. 제 아들과 손자들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었을 때, 제 손자 저스틴이 똑바로 가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스럽게 헌터 대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때, 제 아들 리가 저스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대관장님은 잠시 멈추더니, 미소진 얼굴로 돌아보시며, “나를 막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은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결의와 성취와 신앙과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구분에게 다가가 참되고 충실한 종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사로 부름받으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터 대관장님에게 이 위대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 그분을 보호하시고 준비시켰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주님의 선택된 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것의 중요성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길을 인도하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르게 하는
안내 불빛을 제공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성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하워드 더블류턴터 대관장님을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 및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는 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명예인 동시에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들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분이 택하신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권세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심은 간증은 번영의 시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남아 있도록 하여 주며, 역경의 시기에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간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간증을 받았을 때 우리의 책

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은 예언의 영입니다.(요한계시록 19:10 참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간증은 성신을 통하여 오며, 이러한 간증은 우리의 영혼에 오래 지속되는 강한 영향을 남겨 줍니다.

개인이 지닌 간증들이 바로 교회의 토대이며 힘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길을 인도하는 확고한 결심으로 이르게 하는 안내 불빛을 제공하여 줍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침반이 항상 정북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올바르게 지시하여 줍니다. 이것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은 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우리 내부에서 타는 불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성이나 논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느낌으로서 어떤 것을 알게 된 때입니다."(해롤드 비 리, "여러분 내부의 고귀함에 충실하라", *올해의 말씀, 1973년 브리감 영 대학교 제10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연설,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인쇄소, 1973년, 101쪽*)

우리의 간증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복음의 원리의 핵심에 대한 이해의 형태로 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간증은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날날이 끌 수 있는"(교리와 성약 27:17) 신앙의 병패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바로 간증이며 간증이 신앙입니다. 강한 간증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만,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부

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서 없습나다. 이는 개인적인 간증은 성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사람들이 지식 곧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전한 마음 속에 있는 지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누구인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왔으며, 우리가 충실하다면 어디로 영원히 가는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세계에서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영화로운 영원한 미래로 정진하고 싶다면, 우리들 각자가 그러한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애의 과거나 현재에서 항상 나에게 가장 강한 힘이 되어 준 것은 이 사업이 인간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살아 계신 정당한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직접 말씀과 권세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내 안에 숨쉬는 간증이었습니다."(엔사인, 1994년 7월호, 4쪽)

하나님의 여러 예언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우리는 간증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증이 매우 개인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열 네 분의 대관장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실재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과, 복음과 물론경의 진실성 및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같은 간증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시련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의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경전에서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강한 힘과 느낌으로 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요셉은 이 구절을 여러 번 계속해서 상고하였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겸손한 기도로 자신의 마음에서 바라 온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겸손히 간증하듯이, 요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써, 바로 그에게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어린 소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전세계의 어떤 교회와 종교에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진리를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 동안에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예언자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살과 뼈로 된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고대의 예언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그분들이 택하신 예언자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간증과 개인적인 계시는 참된 종교의 초석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순교는 교리와 성약과 물론경이 진실하다는 간증을 인봉하기 위하여, 또한 이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룩이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5:1 참조). 오늘날 우리는 순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의 간증과 생명을 죽음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보다는 매일매일 일상 생활에서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간증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 모두가 간증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동일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는 간증을 얻게 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년 동안의 면밀한 연구 끝에 물론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고대에 존재하였던 참된 종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시 그 종교가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발



견하는 데 단지 3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그 진리를 찾기까지 6년 동안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분은 찾던 진리를 두 명의 물론 선교사의 가르침과 간증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교회의 제5대 대관장이셨습니다. 1831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던 때를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빛이 나의 이해력 속에서 밝아 왔다.”(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편, *물론 백과 사전*, 뉴욕: 맥밀리언, 1992년, 3: 1367)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의 제9대 대관장님이셨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산기슭에서 소떼를 돌보고 있던 그는 기도를 통해 간증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말에서 내려 고삐를 말 머리에 던져 놓고는 커다란 야생 딸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진리를 나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온 신앙을 다하여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는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그는 천천히 말에 오르면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영적인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만일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나는 기도하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야 한다.”(뉴이라, 1972년 1월호, 56쪽)

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은 수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맥케이 장로는 강력한 영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은 전에 전혀 겪어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의심 많은 소년기에 산기슭과 목장에서 열심히 은밀하게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은 또한 진지한 기도는 언제, 어디선가에서 응답된다는 확신을 내게 심어 주었다.”(프랜시스 엠 기븐즈, *데이비드 오 맥케이*,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50쪽)

예언자들은 모두 그들이 복음의 참됨과 그와 같은 계시의 영적인 힘에 관해 알게 된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 간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곤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간증을 받는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간증을 얻는데 중요한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히 기도만으로 간증을 구해서는 안되며, 간증이 즉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증은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사진 현상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주는 강력한 인상은 마치 민감한 필름 상의

플래시 불빛 같이 옵니다.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화학 약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어떤 진리와 지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에서 어떤 영적인 조건들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간증 또한,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간수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함께 퇴색될 것입니다.

간증은 때때로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오기도 합니다. 간증은 순종하기로 노력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옵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복돋아 주며, 그들을 강화시킬 때 옵니다. 간증은 기도와 경전 공부, 그리고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 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애에서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 우리가 더 시급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저는 예언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간증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와 단계를 그려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진지한 소망을 갖고 겸손한 기도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십시오. 엘마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27)

경전을 탐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앞서간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오래 전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와 닿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에 대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진리를 상고하십시오.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것들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모든 진리는 결과적으로 서로 어우러져 뜨겁고 확실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사람에게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귀기울이십시오. 교사나 가족의 일원, 친구 또는 친지가 이러한 사람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나 소개를 통해 우리와 만나는 선교사가 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며, 영적인 일들을 배우겠다는 소망과 함께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간증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우리는 구세주의 가르침과 예언자의 모범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범이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십시오. 엘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내가 천사 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금식 간증회에서 간증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간증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증을 나눌 때, 간증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을 기꺼이 견디어 내십시오. 간증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경멸의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폄박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자녀가 참된 확신의 용기를 가져 왔으며 조소와 박탈과 심지어는 참된 간증을 위해 죽을 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기꺼이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비평가들이나 비방자들의 손에 들려진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신앙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충실함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간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지식의 부족에서 생기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은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연구,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을 몰아내는 간증을 강화시켜 주는 기도가 그 해결책입니다.

수년 전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청소년들의 간증에 대해 젊은이들에

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속에 순수한 의문이 생겨 이들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청년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도덕적이며, 영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면, 그러한 의문들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투쟁으로 인해 고민에서 빠져나와 더욱 확고하고, 강하며, 커다란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문과 번민을 통해 단순하고 맹신적인 신앙에서 나와 간증으로 발전하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0년 10월, 108쪽)

간증의 열매를 충실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의 힘에 의해 드리워진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보다 큰 행복과 충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간증은 이혼이라는 역병의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더욱 큰 자유를 즐기며, 좀처럼 알코올, 담배, 약물, 학대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자기 방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의 문제를 대처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간증을 위해 시험받고, 유혹과 시련을 받을 것이며, 그런 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참되고 충실하게 남아 있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받은 간증에 지속적으로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희미해져서 결국은 꺼져 버리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간증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증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증거한 간증들에 덧붙여, 내 자신의 간증을 가능한 한 가장 강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세대에 아버지의 말씀울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과 신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성신의 은사와 권세, 신권의 영원한 본질,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 물몬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우리 가정의 요새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최근에 칠십인 정원회에서 해임됨.

우리의 요새는 자녀들에게 보여 주는 모범을 통하여 굳건해지는 데, 그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은 삶의 길입니다.



점 차 위기가 증가하는 이 세상에서 형제간의 다툼, 부패, 비밀 조직, 불순결 등은 물론경에 묘사된 사악함을 떠오르게 하고, 사탄은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어린이들에게서 순수함을 빼앗아 감으로써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탄은 청소년을 속이기 위해, 대중매체나 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교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사탄은 텔레비전, 비디오, 신문, 책들을 통하여 파괴적이고 해로운 상품과 도덕관의 유혹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일성도와 모든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침입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가려내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양도 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어떠한 부당한 침입자도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자녀들이 가르침받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복음은 자유의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대로 가족들을 양육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2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서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세에는, 큰 요새를 성이나 도시 둘레에 세워 적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물론경에도, 니파이인들이 적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요새로 만들어 끊임없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주위에 깊은 골을 파거나 수미터의 높은 벽을 세워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향 아래 가족 평의회를 통하여, 요새가 될 우리의 활동과 오락, 책, 우정, 규칙 및 습관 등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새들은 경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가족으로서 매일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쌓고, 그것들이 우리의 대화에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다 함께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요새는 자녀들에게 보여 주는 모범을 통하여 굳건해지고, 그 복음의 원리와 가르침은 삶의 방법이며, 그것은 이 지상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게 도와주고,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을 적당치 못한 옷차림과 세상의 부정적인 행위에 단지 싫다고 말함으로써 그것들과 타협하는 것을 피하도록 가르쳐야만 합

니다.

요새를 구축하는 것에는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정과 동의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밤에서 서로 조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옛날에는, 적군이 이용할 만한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새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몰래 접근하는 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파수대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도시가 요새화 되었으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새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가정에 침입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 우리의 가족 요새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용하려 하는 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새에 있는 파수대의 한 가지는 각 가족의 일원들을 아버지가 정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점검은 우리의 요새의 온전함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점검을 통하여, 우리는 자녀들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점과 관심사를 배우며, 어떤 위험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도우며, 시련의 기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대화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들을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받았습니





대회가 시작되기 전의 대관장단 모습. 왼쪽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 제2보좌.

다. 이것은 위임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책임입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39절과 40절에는,

“저 사악한 저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되는 사랑스런 접견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절이나 변화를 가져오며, 심지어는 기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가족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손자와 한 접견입니다. 수년 전, 제가 제 딸 중의 한 명과 접견을 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는 손자인 케미쉬를 접견 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케미쉬는 세 살이 조금 넘었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케미쉬는 기운이 넘쳐 흘러 1분도 앉전히 있지 못하고, 항상 달리고, 뛰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조

금 더 나이가 들어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생각으로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몇 달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낌이 다시 왔고, 이번에는 느낌이 너무 강해, 저는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케미쉬에게로 가서 “내일, 너와 접견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접견을 하면서 저는 케미쉬에게, 접견 도중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서로 눈을 쳐다보아야 하며,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케미쉬는 거의 심분 정도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애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언제 두발 자전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조금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그는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 관하여 배운 얘기들을 말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로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가 예수님

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며, 제게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세살 먹은 어린이의 간증보다 더 진실하고 순수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접견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접견에서 그분은 저를 부르셔서 저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것을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잠시 떠나게 하시는 사랑스런 아버지와의 부드러운 접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접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스런 아버지가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분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며, 구속주를 통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그분의 교회와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정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요새임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총관리 역원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은 칠십 세가 되면 명예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명예 총관리 역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명예 총관리 역원의 신분은 해당 회원이 살아있기만 하면 부여받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어쩐지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도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 제 마음이 상했다거나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거나 지금까지 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이처럼 편안한 기분을 느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대부분 부름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던 총관리 역원들과, 제가 알게 되었고 함께 봉사했던, 세계 도처에 있는 수많은 곳곳한 성도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자 할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12; 이터서 3:14 참조)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 동란 당시 미국 해군에 복무를 했던 시절인 1952년에, 일본 동경에서 침례를 받은 개종자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거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에서 몰몬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때 이 지상에 살아 계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아주 옛날에 하신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어째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면서 동시에 성신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 어째서 침례받으셨는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으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의문들이었습니다.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해답을 얻게 된 것은 1951년 7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테드 레이번 장로와 로널드 플라이게이 장로가 저의 집대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저의 아내가 선교사들을 집에 들어오게 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몰몬경 한 권을 받았습니. 그 당시에 저는 하와이에 있으면서 한국 파견을 위한 1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내로부터 몰몬경 한 권을 받고 읽기 시작했습니

다. 니파이의 얘기가 실려 있는 니파이 이서를 채 읽기도 전에 이미 니파이는 한 사람을 더 개심시켰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고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구 발렌시아 파크 와드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견 준비 때문에 소망대로 교회를 다닐 수 없었지만 그렇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라고 바라던 그 때가 온 것은 항공모함 필리핀 시즈호에서였습니다. 이 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훌륭한 책 열네 권을 읽었습니다. 이들 책에는 교회의 표준 경전 외에 요셉 스미스 2세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이르는, 교회의 대관장들의 기록을 비롯하여 팔리 피 프랫과 올슨 프랫 및 기타 몇 사람의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잔뜩 굶주렸다가 처음으로 먹고 마실 것을 대한 사람처럼 이들 책을 대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자, 항공모함에 승선한 발일성도 그룹은 제가 침례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경 선교부장 댁에 가서 침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침례에 필요한 1년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구도자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끈기있게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시간 만에 결친 접견 끝에 드디어 침례와 확인을 위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 시즈호의 말일성도 그룹의 지도자인 맥도날드 비 존슨에게서 침례를 받고 프레드 게이로드 피터슨에게서 확인을 받은 다음 1952년 2월 26일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집사로 성임된 다음 배가 일본에 기항할 때마다 신권 승진을 하여 1952년 7월 26일에 장로로 성임되고 8월에 샌디에이고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같은 해 3월 1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단합되었고 그토록 고대하였던 가족 인봉을 1953년 5월에 애리조나주 메사 성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16년이 지난 다음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968년 4월이었습니다. 존 모건 이후 86년 만에, 개종자로서는 처음으로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후 26년 동안 이 직책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복음이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누구도 참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죄짓기를 그치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에게 아직 죄가 남아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의 죄가 면죄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죄짓기를 그치는 이유는 에이즈에 걸리거나 폐암으로 죽을까 봐서 또는 기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비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물 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고 나와서 신권을 지닌 형제들의 안수에 의해 성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74)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니파이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니파이에게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이서 31:11, 15)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뜻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줄곧 잘못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여생 동안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상태로 본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곁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74 참조)

둘째: 부단히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64:9-10 참조) 셋째: 우리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견뎌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회생을 합친 참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위해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다할지라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학대받고, 억압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모사이아서 4:26)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도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0~21)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더욱 기쁘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를 징계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히브리서 12:6; 교리와 성약 95:1 참조)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통해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아서 2:17)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너희가 이웃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은 이러한 개념을 아들 모로나이의 기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며,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이다.”(모로나이서 7:46~48)

이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나아가서 성전 사업에서 행해지는 모범에서 볼 수 있듯이 회생을 수반한 이러한 사랑만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민족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을 단 10명 만이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소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공에 이르는 값진 원리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공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참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소년 시절부터 의로움과 정직과 충실함과 일하는 법에 대한 값진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 지상의 부모님에게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부득이 야간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낮에 10시간씩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버스나 기차에서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고, 수업 도중에도 자주 졸았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집에 도착하면, 언제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반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원했던 것이 있었다면 오직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와 위안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성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목표로 삼고 저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성공의 참 뜻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으로 개종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저는 참된 성공의 훌륭한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 및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존 중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성전에 데리고 가려면 회원이 된 후 만 1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성전은 아마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려면 배를 타고 4일, 그리고 버스를 타고 4일 해서 약 1주일일이 걸립니다. 이 남자는 가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의 성전 여행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갈 날이 다가오자 이 사람은 가구와 전기톱을 비롯한 작업 도구와 자신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오토바이 등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한 다음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상파울루까지 가는 데 8일이 걸렸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4일간의 영광스런 나날을 보낸 다음 집에 돌아가기 위해 8일간을 더 여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여행을 위해 겪은 어려움과 고생은 주님의 집에서 경험한 커다란 행복과 축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가족 모두가 기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성공의 모범이

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충실하고 기뻐한 나머지 아마존의 쩌는 듯한 더위와 굉장한 습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이 젊은이들은 참으로 브라질 북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쾌활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 충실하고 헌신적인 회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70의 나이가 되도록 가족에게 물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애는 실패한 것이라고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족이 몇 분이십니까?"라고 묻자 "네 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충실한 회원입니까?" "네 명 모두 다 회원입니다." "몇 명이 형제님께 인봉이 되었습니까?" "네 명 모두 다 인봉받았습니다." "몇 명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까?" "네 명 모두 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영에 감동되어 그가 생애에서 이룬 성공은 지금까지 들 어본 가장 훌륭한 성공담 중 하나였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경전에서 성공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한 것을 읽으면 놀라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리하이의 만아들과 둘째 아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니파이와 샘은 주님에게 매우 충실하여 참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공을 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범이



있었기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주님의 영에 합당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진리와 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몰았던 청년에 대해 종종 생각해 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좋은 편을 택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합당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어느 누구도 제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합당한 회원으로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분에 대해 배우며 그분을 올바르게 따르고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저의 진짜 영웅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침례받은 지 일 주일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총관리 직원을 만났는데 그분은 칠십인 정원회의 한분이신 로이든 지 데릭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라고 주신 목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영적인 일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관해 주신 권고를 저는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예언자와 사도와 정원회의 총관리 직원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완전한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압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그분의 권고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간증은 새로워집니다. 저의 생애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방주를 지으라”

더블류 돈 래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주님의 대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침착하고 조용히 일을 진행시켜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고린도전서 14:10)라고 사도 바울이 2천년 전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모순되는 여러 말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의 체질이 얼마나 허약하고 변하기 쉬운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실 것입니다.

반목과 불화의 소리는 예로부터 언제나 들려 왔으며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과 영화와 잡지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폭력과 자유라는 달콤한 소리로 포장된 부도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34)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악은 파도처럼 날로 커져 가고 있고 죄악의 물결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나 가정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 하나 편히 지낼 곳이 없습니다.

광고를 보면 한 나라의 이념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광고를 봅니다만 긍지를 느낄 만큼 내세울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후자는 말하기를 관람 대상자가 아니라 영화의 훌륭한 정도에 따라 영화의 등급이 매겨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경 니파이에서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 우리는 악마가 손수 만든 작품들을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는 곳에 당도할 것입니다.”(리차드 에반스의 말씀 인용서, 244쪽,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즈 출판사, 1971년).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읽고 연구하며, 매일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하며,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성도의 빛, 1984년 8월, 지역 소식 4쪽)하라고 하신 우리의 예언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등, 자신과 가족을 강화하라고 우리 예언자들이 거듭 훈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도덕이 가지는 영향력은 특히 자녀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발전해 감에 따라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돕고 보호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그들의 시대와 세대의 영향력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인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자녀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확고한



솔트레이크 성전의 뾰족탑.

표준과 안전하고 건전한 원리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되는 한 잘 되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짓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창세기 6:14, 18)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창세기 7:5, 23)

파도처럼 높아만 가는 악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홍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터지기를 기다려서는 안되며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헨터 대관장을 비롯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과 고대의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예언자들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이 닥쳐서야 비로소 허세를 버리고 무슨 조치를 취하려 듭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한다면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침착하고 조용히

일을 진행시켜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겁을 집어 먹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그 까닭은 영적인 면에서나 세상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어떤 홍수가 닥쳐와도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미래에 대비한다면 우리의 방주는 신앙의 바다에서 좌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관건은 오늘 오전 우리가 지지한 예언자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 특히 그분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소망과 동정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필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존중과 자기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사라질 것이고 시련을 겪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아,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교리와 성약 50:41)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위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아들이, 평안할 지어다.”(교리와 성약 121:7)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딸들이, 나의 아이야, 평안할 지어다.”

그 대신 우리는 시인 조지 허버트처럼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합니다.

칠일 중 하루가 아닌 칠일 모두를
오로지 주님 찬미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영원한 세월도

주님을 찬미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찬미 II”, 조지 허버트 작품선, 에프디 허친슨 편,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 1941년, 146쪽)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참으로 속죄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프리카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아프리카에서 교회는 영감받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고
(찬송가, 제157장, 신앙으로 나아가)

저는 며칠 전에 나이지리아 베냉시에서 스테이크 회를 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1년 전에 설립되어 그 사이에 회원 수가 261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가족이었습니다. 광활한 베냉시에 자동차나 전화를 가진 회원 가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음 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 가족의 비율은 선진국의 기존 스테이크에 뒤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혼미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빈번하게 대중 교통이 두절되고 있지만 신설된 이 스테이크의 성찬식 참석률은 높습니다. 스테이크 회원 수의 약 50%가 일요일 오전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매우 먼 거리를 걸어와서 참석했습니다. 훈련이 잘된 합창단은 시온의 찬송가를 기쁨에 찬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말일성도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참여 수준이 이와 같았고 헌신적이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프리카는 밝은 미래의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스테이크는 197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다섯 개의 스테이크가 있으며,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은 1985년에 헌납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에 다섯 개의 스테이크가 추가로 조직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으며, 첫번째 스테이크는 1978년 신권에 관한 계시가 있는 다음 불과 10년만에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에 소재한 44개국 중 26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회는 영감받은 계획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80,000명의 회원과 12개의 선교부와 10개의 스테이크 및 425개의 와드/지부가 있습니다.

다. 1993년 현재 침례자 수는 9,000명이 넘었습니다. 침례 자체를 성공의 잣대로 삼는다면 어쩌면 침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모로나이사 6:4)고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교회는 질서정연하고 계획에 따른 방법으로 발전합니다. 힘의 중심점을 만드는 데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향후 교회의 팽창을 위한 초석이 될 지도자층을 두터이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현존 집회소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집회소 건물의 위치는 두 개 이상의 단위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선교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족과 지도자의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회원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고 복음의 원리를 빨리 배우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는 960명의 복음 선교사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사람이며, 그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출신의 은퇴 부부 선교사들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손자들을 떠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야말로 감사할 줄 알고 사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를 찾고 간증을 하고 침례를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전하는 일은 은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부부 선교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교사들은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문맹 퇴치 프로그램과 보건과 인도적인 봉사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이 부름의 뜻에 따라



나 이지리아의 라고스 제4지부의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집에 들어서자 "주 예수의 군병들"이라는 찬송가가 매우 감동적으로 들려 왔습니다. 18명의 장로와 2명의 자매와 한 쌍의 부부 선교사로 구성된 합창단이 지구 대회(Zone Conference)를 대비하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그득히 머금은 환하고 진지한 미소, 그리고 열정으로 생기가 발랄한 그들의 표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혼 선교사들은 부름을 받고 가나와 시에라리온과 나이지리아에 있는 집을 떠나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부부 선교사는 두 번째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회의 개회 찬송을 불렀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 주 예수 아들되시
증거하고 기이한 말씀 전하세
희망과 용기로 말씀을 널리 전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녀됨 전파하세

힘차게 나아가 회복된 복음 말하세

축복을 주어야 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팔에 안고 또 어깨에 메고서” 양육을 하게 될 때 내세에서 부와 영생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니파이일서 22:7) 제자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회생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선교 사업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부부 선교사에게는 인생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수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두 번, 세 번씩 선교 사업을 나가겠습니까?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부부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곧 은퇴를 하게 될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풍요로운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이끌어 오면,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여러분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리와 성약 18:15 참조)

교회의 초창기 시절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 나가게 됩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감히 어떠한 부정함 손도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을 깨울 때까지,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휩쓸 때까지, 모든 이의 귀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담대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울려 퍼질 것이며, 그때 위대한 여호와께서는 일이 이루어졌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그렇습니다. 제아무리 험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런 아내를 동반자로 맞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족의 신앙에 가득 찬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참된 교회이며 헌터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회복의 기적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조직인 이 교회야말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 6월 23일 제 인생과 봉사의 길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는 매일 제가 이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때로는 고통을 느꼈던 그 상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또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지 니파이가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니파이일서 25:26)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이 되는 것보다 더 숭고한 목적과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걱정도 바로 그

책임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제 마음에 강력히 와 닿는 경건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린도전서 9:14)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간증 뿐만 아니라 제 생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삶 자체가 이 사업의 신성함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이나 행위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 교회에 대한 사랑 및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에 대해 갖고 계시는 존경심에 누를 끼친다면 저는 그 일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계시는 형제님들에게 약속했듯이 이 신뢰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제 능력을 다해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바로 그분의 사업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삶과 주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이 마음속에 사무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나오는 한 구절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 없”(찬송가, 1985년, 86장)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의 순결한 삶과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저로 하여금 거듭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늘에서 주신 저의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들은 최근 몇 주 동안만 아니라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며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순수한 신앙과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보상을 위하여나 이기적인 동기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 작품에 나오는 아담이 이브에게 말했듯이 저도 아내에게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요.”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저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장차 자라서 되기를 간구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또 훌륭한 모범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저의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가르치고 봉사하고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목격했던 두 가지 기적에 관해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 아침 우리가 성회에서 지지했던 헌터 대관장님이 예언자로 부름받으신 일입니다. 그분이 예언자로 부름받으신 첫 주에 제게 주어진 예상치도 못했던 부름으로 인해, 저는 특별한 위치에서 주님의 손이 이 선택되신 지도자에게 얹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헌터 대관장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접견하시고 나서 심이사도 부름을 주시더니, 성전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대관장단과 심이사도들에게 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사도로서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저를 사도로 성임하고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별해 주셨으며, 이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대관장님은 두 세 시간 동안 계속된 저의 첫번째 성전 모임에서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헌터 대관장님은 이 모든 일들은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대관장님은 강건하고 일관되고 힘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하고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 부음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 일생에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찬사의 말씀에 헌터 대관장님의 곁에서 진실로 충실히 봉사하시는 히클리 부대관장님과 몬슨 부대관장님 및 심이사도 정원회를 이끄시는 보이드 케이패커 회장님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워드 윌리엄 헌터를 통해 그분의 뜻하시는 바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관장님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의 어깨에 예언자의 땅토를 걸쳐 주시므로써 지도자로 성임하셨습니다. 헌터 대관장님께서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준비되어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직분을 맡도록 지지 받으신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요셉 스미스를 포함한 이전의 모든 예언자와 앞으로 그 직책을 계승할 모든 예언자들처럼, 헌터 대관장님은 창세 이전 천국 회의에서 부름을 받고 예임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과 교회에서 이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통치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인간의 연령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820년 요셉이 열 네 살의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전례없는 일이나 1994년 86세의 나이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굽힘없는 대관장님을 비교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사람이 그 나날을 헤아릴 뿐”입니다.(엘마서 40:8 참조) 헌터 대관장님, 우리는 모두 6주일 후에 있을 대관장님의 또 한번의 생일을 밝혀 줄 कै이 위에 빛나는 촛불을 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회복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충실하면서도 자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입니다. 진실로 이 말의 정의와 아름다움은 여러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백여 개 이상의 국가와 수천 가지 서로 다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으로부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무가치한 유희와 “헛된 망상”(니파이일서 12:18 참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찬란한 도시 안에서 더욱더 성스러운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족과 이웃 및 심지어는 여러분은 꾀박하는 사람들과 사랑 하는 분들입니다.(마태복음 5:44 참조) 여러분은 미래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심일조를 바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을 선교 사업에 보내거나, 또는 자녀들이 훗날 18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희생할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시는 분들도 계시며,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축복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신의 건강과 행복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혼자 사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나 또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용히 용기를 갖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사업에 대한 열쇠와 책임을 지고 있는 왕국의 관리 직원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부름을 탐한 사람이나 자신이 그 부름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알 홀랜드의 이름이 이제 막 성임된 자로서 마지막으로 호명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은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홀랜드 형제가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우리에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곳 오마하와 온테리오와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총관리 직원들 중의 한 분이 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니요 한 하나님에게 속한 한 시민입니다. 우리가족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늘 당신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당신의 힘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니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조직인 이 교회야말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이루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하는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바로 그 기이한 일의 핵심이 되므로, 여러분이 바로 그 기이한 일을 증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부름을 받고 꼭 하루만에 교회의 임무 지명을 받고 남부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그 곳에 도착한 직후 저는 세 자매인 데비 아빌라와 타냐 아빌라 및 리자 아빌라를 만났습니다. 이 사랑스런 세 자매들은 각각 서른세 살과 서른 두 살 및 스물 세 살이었는데, 모두 일곱 살 때 근육성 영양 장애에 걸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자매님들은 폐렴으로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고 신경 마비 증세에 시달리며, 다리에선 부목을 대고 다녀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나중에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인공 호흡 장치를 달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 세 자매 중에서도 타냐 자매님은 무려 17년 동안 침대에 누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해가 뜨고 지는 모습과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촉감을 느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꽃을 만져 보거나 무지개 끝을 따라 가 보지 못했고 창공을 나는 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타냐보다 기간은 짧지만, 데비와 리사 역시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들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세 자매님들은 모두 청년 개인 달성상을 받았으며, 세미나리를 포함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통신 과정을 마쳤으며, 표준 경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들에게는 아직도 성취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 자매는 자신들이 성약의 딸들이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및 야곱과 라헬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성전에 가서 영원한 성약을 맺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소망까지 성취되었습니다. 데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취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본향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맙게도 저희를 돕기 위해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타냐는 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은 제가 완전하다고 느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성전 안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공 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어 있어야 했지만, 그 성스러운 느낌을 감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성전장단 및 성전 의식 봉사자들과 함께 이 자매들이 꿈을 실현하는 일을 도왔던 더글라스 클리스터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자매님들은 흰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거의 바닥까지 드리운 채 반듯이 누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제외하



고는 온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성전 엔도우먼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말씀과 매 순간 및 모든 상황을 소중하게 음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데비는 그 경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활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데비 아벨라는 자신의 엔도우먼트를 받은 지 1년 후에 다시 한 번 많은 준비와 도움 속에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세 손녀들을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생애를 바치신 사랑하는 할머니를 위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페란자 라멜라스 자매님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세 손녀들을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22년 동안 거의 매일 밤 세 자매들을 돌아 누이고, 손녀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고 편히 잠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에스페란자 자매님은 1989년 74세를 일기로 건강이 약해져서 세상을 떠

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권고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고 다음 세대의 청년 및 마음이 청결한 모든 자를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3:13, 17, 11 참조)

계속되는 회복의 기적. 성약. 성전들.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의 삶. 왕국의 사업은 거칠게 닳아빠지고 지친 손과 어떤 경우에는 지지 시도할 수 없으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지지를 보내는 손들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50년대는 영국이 무척 어려움을 맞고 있던 때였습니다. 청교도 혁명가들이 왕을 처형했으며, 의회를 포함한 정치 활동은 대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발진 티푸스가 영국 전역을 휩쓸었으며, 대화재에 이어 페스트가 발생해서 영국을 온

통 시체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살며 일하던 마을 근처에 있는 레이세스터셔란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벽에 걸린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성스러운 것이 파괴되고 더럽혀지던 1650년에 로버트 셸리 경은 우리가 칭송하는 이 교회를 건립했다. 그분은 최악의 시기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 이유는 가장 괴롭고 비참한 시기에 최상의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훌륭한 일을 했으며, 가장 큰 재난 속에서 최상의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 동안 비록 그 손이 점점 약해지고 때로는 다리의 힘도 약해질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을 칭송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또한 여러분처럼 참으로 많은 것을 기여하신 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저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니파이이서 31:20)가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빌립보서 3:12)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끌어 올리시어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다른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게 하셨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며 변함없는 신권의 소유자로서 존경합니다.(히브리서 7:24, 26) 그분은 우리의 영육의 닮이시며 약속을 주신 우리의 대제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현재와 또한 앞으로 영원히 저에게 주어질 새로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3:5)고 약속하신 것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희망의 밝은 빛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된 신학 이론으로는 소망이 신앙보다 더 광범한 뜻을 지닙니다. 신앙이 커지면 따라서 소망도 커집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저의 팔을 올렸던 것처럼, 오후에는 헌터 대관장님을 지지하기 위해 기쁘게 제 음성을 높입니다. 그분은 은유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에 지지한 두 분의 새로운 사도들의 간증을 들었던 것 같이, 저는 오후에 제 지지의 음성을 높입니다. 저는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으신 두 분의 총관리 역원과 새로 부름받은 특별한 자매 지도자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동안 세상에는 실존주의적 절망감이 크게 성장하며 팽창했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인류의 삶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종족간에 일어나는 것이건 민족간에 일어나는 것이건, 전쟁은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되었습니다.(폴 퍼셀, *큰 전쟁과 현대의 기억*, 런던: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 1975년, 74쪽) 냉소주의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량 학살과 기근과 역병, 피난민의 물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희망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인간들이 만들어 내 피할 수 없는 참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참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죄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절망은 죄악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모로나이서 10:22 참조)

죄에 관해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모든 인간을 절망을 빠뜨리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신앙이 상실되는 것을 비통해 하진 않으면서도 자비와 희망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 하는 현대인이 많습니다.

희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골동품에 불과한 것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용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 가족과 정부를 이미 심각하고 위태롭게 하고 있는 냉소주의로부터 이상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된 바대로 인간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4:12) 자기 자신을 정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조차 찬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상실된 것이 이기주의를 유발하며, 인간이 집요하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회개에 필요한 부끄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내부의 공허함을 담대함처럼 위장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교만함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헨리 소로우는 "인간은 무의식 속에 있는 절망을 게임이나 오락 등으로 감추고 있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왈든*, 뉴욕: 하퍼 앤드루우, 1965년, 7쪽) "고독한 군중"으로부터 허망한 웃음이 흘러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야 하는 태아들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 및 어린이가 어린이를 충으

로 쓰는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종교인들은 이러한 문제는 영적인 원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은 다른 기차들 탄 승객이 불안에 처해 기차 복도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서 31:20)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것들과 관련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모로나이는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모로나이어서 7:40~41; 또한 엘마서 27:28 참조)라고 가르쳤습니다. 온 인류의 궁극적인 부활을 가져다 주는 이 큰 소망으로 인해 다른 많은 작은 소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대로 ...그리스도의 강림 수 백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으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 역시 ...바라 기다렸"(야곱서4:4)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야곱서 4:13, 또한 모로나이어서 8:26 참조) 진리를 가르치는 보혜사에 의해 위대한 소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인간의 영육에 맞이"(히브리서 6:19)됩니다. 그러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엘마서 25:16, 이더서 12:9 참조) 반대로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은 불완전한 소망을 만들어 낼뿐입니다.(고린도전서 15:19 참조)

이 궁극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은 수세기 전에 세 명의 용감한 사람이 다음 세 마디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을 불에서 구해 주실 것임을 알았으며, 그렇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다니엘 3:18 참조)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를 그리스



대회가 끝난 다음 십이사도 정민회의 엘 톨 페리 장로가 한 소년을 만나고 있음.

도에게 인도하게 된다고 해서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희망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모로나이어서 7:47 참조) 이 세 가지는 각각 우리가 해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이끌어 줍니다.(모로나이어서 10:20~21, 이더서 12:34 참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어서 7:39, 43 참조)

신앙과 소망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늘 정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완전한 지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되다는 기대감을 키워 줍니다.(이더서 12:4, 또한 로마서 8:24, 히브리서 11:1, 엘마서 32:21 참조) 회복된 신학 이론으로는 소망이 신앙보다 더 광범위한 뜻을 지닙니다. 신앙이 커지면 따라서 소망도 커집니다.

불신앙과 절망과 무감각이 서로 공존하듯이, 신앙과 소망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반면, 절망은 잡초와도 같아서 아주 작은 관심만으로도 싹이 터서 크게 번창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닙니다.

영은 오직 희망의 "경적"을 통해 잠이 깨며 이 경적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사막 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밝은 웃음을 띤 선구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소망으로 인해 기대감에 차서 재빨리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8~12 참조) 소망으로 인해 한 예

언자는 인간의 손바닥보다 작게 보이는 먼 곳에 있는 구름 한 조각에서 구원의 빛 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열왕기상 18:41~45참조)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므로, 이 소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교리와 성약 58:27, 또한 엘마서 7:24 참조) 소망은 영을 약하게 하기보다 영을 강화시킵니다. 소망은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밑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결심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실질적인 기대감이며, 이 결심은 단지 살아남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견디겠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8 참조)

허약한 소망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밝은 소망"은 비전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의 광채는 눈에 띄이며, 그것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은 먹구름이 끼일 때도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니파이서 31:16, 20, 또한 히브리서 6:19, 이더서 12:4, 골로새서 1:23 참조) 때때로 외부의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중에서도 이 내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가졌다 해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생활상의 작은 소망이 있고 없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월급 인상이나 특별한 데이트, 선거의 승리, 더 큰 저택 등을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건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신선 모임에서 방송 작업을 하고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맨.

우리는 훌륭한 대업을 위해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다.(고리와 성약 58:27 참조)

소망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여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의존하여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 신앙에 의존하는 일이 실제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의 도움이 없는 경우 육신의 시력은 비정상적인 경우를 당하면 움츠러들게 되지만(고린도후서 5:7 참조), 소망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의해 상처를 입고 두려움으로 협박당하며, 소망이 절망의 날로 인해 유린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육으로 난 인간을 벗어나 버리기 위한 일대일의 전투에서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모사이아서 3:19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육으로 난 인간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윈터 쿼터스"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아직 멀기 때문에 매일 매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앞에는 아직도 힘든 경주가 기다리고 있지만, 소망은 지친 제자들에게 박차를 가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 마치 만화경처럼 거듭해서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모범과 그분의 목적을 주시합니다.(엘마서 5:15 참조)

우리는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과거의 일들을 귀감으로 돌아보고 그 경험으로부터 소망을 이끌어 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로마서 5:3-4)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찬송가 6장)

소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여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로마서 15:4, 야곱서 4:6, 또한 니파이서 31:20 참조) 또한 우리가 찬송하는 "거룩함도 더욱"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소망을 말해 줍니다.(찬송가 60장)

냉혹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도 사랑을 품고 오해와 위선이 만연한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어 세상의 악이 무르익는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지키며, 거칠고 딱딱한 세상에서 예의와 인내를 품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상심케 할 때 더욱 큰 희망을 품기 위해 소망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발에 있더라도 어제의 과오를 뒤돌아 보지 말고 소망의 쟁기를 갈아야 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9:10 참조)

소망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을 지닌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3:15 참조) 브리감 형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거나 선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식견과 느낌을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267쪽 참조) 절망은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참된 소망은 영적인 용기를 주며, 부모들이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피사의 사탑이 지금까지 영세적인 건축가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이 현

재의 가족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쓰러지기를 거부하는 부모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절망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푸는 부모는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장례식에서도 우리와 함께 조용히 머물러 줍니다. 우리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지만 절망 때문이 아니라 가슴 아픈 절별로 인해 생겨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곧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는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허전한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닥칠지라도, 그것은 지금은 사무치게 그리울지라도 충만하고 찬란한 재결합을 예측하는 보상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될 때, 자아를 버리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주여 내니이까"(마태복음 26:22) 하고 묻게 됩니다. 복종하는 소망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엘마서 22:18) 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홀로 짊어지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갖는 소망은 우리가 극단적인 낙천주의나 극단적인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 경고의 음성은 높여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도록 있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소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웃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소망 없이 처져 있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고린도전서 1:23 참조)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 집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곳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한 빛과 영광을 지니신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신앙과 희망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맞기 위해 팔을 벌리고서 계십니다.(몰몬서 6:17 참조) 예수님의 환영은 간단하게 어깨를 두드리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팔 안에 안기"(몰몬서 5:11)는 것을 뜻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곧 예수님의 팔이 그들을 감싸기를 바라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과 우리는 그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엘마서 28:12 참조)

이 사실에 대해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로운 선택을 함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본분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 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많은 젊은 형제님들이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분들은 나이가 차면 선교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곧 선교 사업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미 선교 사업을 마치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은 현재 여러분이 결정한 다른 선택으로 인하여, 이러한 합당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신권 모임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적용되지만, 특히 저는 젊은 형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접견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말을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매우 가치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또래들의 심한 압력과 세상의 나쁜 영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학교에서 다른 소년들이 신체의 생식 기관에 대해 얘기한 것들에 관해 올바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쁜지, 왜 나쁜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께서 제게 어떤 것이든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계 각지에서 만났던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질문했던 인비사항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경전이나 예언자들로부터 배웠던 것으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분명한 표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할 때, 성신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한 것들의 진실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토론이 어떻게 여러분께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듣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느낌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우리들에게 친구의 나쁜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 있는지 자랑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를 바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답변: 여러분은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사탄으로부터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함께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이 같이 할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에게 받아 들여지기를 원한다거나, 그룹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속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한 패에 속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잃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도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이미 강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를 위해서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여러분의 표준대로 생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표준에 대해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해 주되, 설교식은 피하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표준을 타협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도자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올바르지 않은 동료들의 압력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런 생각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떤 나쁜 생각들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에 의해 오기도 합니다. 여성의 육체가 나와 있는 음란한 사진에 대해 말하거나 보는 일은 강력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이 함당치 않은 비디오나 영화를 보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보아서 는 안됩니다. 무언가 좋은 생각을 함으

로써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은 한 번에 오직 하나씩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한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생각들을 이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을 읽거나 봄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쌓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조절하지 않으면, 사탄은 결국 여러분이 나쁜 생각대로 행동할 때까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질문: 왜 순결의 범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 행복에 관한 위대한 계획의 원리와 구세주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기초는 가족입니다. 한 새로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하며 법적으로 함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맺어질 때 시작됩니다. 완전한 시작은 성전에서 두 사람의 인봉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더불어 그들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하게 되도록 하며,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자녀들을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공급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어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양육의 영향 등으로 가정의 심장 같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 순종, 사랑, 봉사 그리고 지식 탐구 같은 원리들을 그들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영원한 결혼 성약 내에서,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분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해 신성한 출산의 능력으로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밀하고, 신성하며, 개인적인 경험의 목적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멸을 경험하도록 원하는 영들에게 육체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충성하고, 충실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맺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의 그러한 은밀한 행위는 주님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신성한 결혼 성약 내에서의 그러한 관계만이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결혼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재는 그 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정신을 양양하고, 깨우치며, 힘을 부여하는 성신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장애가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일으킵니다. 결국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야기하고 잔학 행위, 낙태, 성적 학대, 강력 범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은 동성 연애의 행위로 이끌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악마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성범죄는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을 모독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의 능력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일관되며 기꺼이 하는 순종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자질들은 여러분이 도전에 직면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는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힘을 받도록 자격을 줍니다.

질문: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계까지 인지는 결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결혼 계약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은밀한 행위, 즉 옷을 입었던 안 입었던, 다른 사람의 신성하며 은밀한 육체의 부분에 어떤 의도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신체 내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범법입니다. 사탄은 육체적 접촉이 낳는 강하고 자극적인 감정들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접촉이 있다고 믿게 유혹하며, 그래서 경계선 내에서만 한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거짓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자의 육체의 자극적이고 강한 영상이 담긴 영화나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해 유혹합니다. 사탄은 욕망을 자극시켜 곧 불의의 관계와 순결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

도록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습관은 깨뜨리기 어렵게 굳어집니다. 결과는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상처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결혼을 계획할 만큼 성숙되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도 편안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에 제한을 두십시오. 이러한 신성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순종할 것이라고 주님과 성약을 맺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유혹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표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예외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표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질문: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결혼 전에는 여자 친구든, 약혼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 접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답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계명이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남녀 둘이서만 데이트하지 말고 여럿이서 그룹으로 다니라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할 때,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 주고, 보호하며, 존경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희생하도록 동기를 줍니다. 사탄은 육욕적인, 즉 거짓된 사랑을 조장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함으로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은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 성범죄를 저지른 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무슨 죄를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답변: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성범죄들은 감독님의 참여 하에 진지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온 분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일은 더 나쁜 일입니다. 죄는 우리 몸속의 암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낫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감독님의 인도 아래 회개를 통해 깨끗하며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바쁘거나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이 곤경에 빠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는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나쁜 일임을 알고 범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고 오래 전부터 배워 왔습니다. 저는 회개가 훌륭한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저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저의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준비가 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범법의 여행을 시작하고 결코 다시는 돌아키려 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죄는 더욱 큰 형벌이 따르며, 극복하기에도 더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죄가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당장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대화해 오면서, 여러분께서 더 잘하겠다는 느낌을 가졌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성한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특별히 몰몬경과 같은 경전들을 공부하며, 부모님, 지도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지한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본분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모든 현명한 선택, 모든 책임감 있는 신권의 행사, 그리고 모든 봉사의 행위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키워 줍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경기장에서 훌륭한 선수의 멋진 묘기를 관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시합과 마지막 몇 초를 앞둔 결정적인 득점, 우승 골, 그리고 온 시선이 집중되는 자유투를 통하여 많은 시간의 연습과 헌신, 희생의 성취를 보면 항상 짜릿한 감동을 느낍니다. 저는 농구 선수가 자유투 선에 서서, 긴장 속에서도 연속 깨끗하게 샷을 성공시키는 것을 볼 때마다 경탄하곤 합니다. 작년에 유타 제츠(농구 팀 이름-역자 주)의 시즌 중간에 제프 호나섹 선수는 연속 35개의 자유투를 성공시켜 유타 제츠 역사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샷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유투 기록에 흥미가 있는 것은, 비공식이지만 저도 고등학교 시절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투의 기록을 세웠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교인 프레스턴 고등학교와 아이다호주의 말레드 고등학교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시합은 1954년에 말레드 고교의 오래된 실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시합 초에 저는 샷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파울 샷 두 개를 얻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유투선의 1/8인치 지점에 선 다음, 농구 영웅 밥 쿠키의 흉내를 내어, 공을 두 번 튀긴 다음, 손에서 돌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샷을 했습니다. 공이 손에서 뜨기까지 흉내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샷은 둘 다 실패했습니다.

몇 분 후, 또 파울을 당해 항상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샷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여섯, 일곱 번째 자유투를 실패했을 때는, 다행히 게임이 시작한지 6~7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자유투를 던졌을 때, 저는 시합 시작할 때의 규정 규격의 바스켓이 이상하게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유투 선에 설 때마다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선에 섰을 때, 저희 팀 선수의 걱정스런 얼굴과 상대 팀 선수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선,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저의 열 다섯 번째의 실패로, 저의 팔 다리는 얼어 버렸고, 바스켓은 소프트 공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열 여덟 번째 자유투에서 실패했을 때, 바스켓은 골프 구멍 만하게 보였고, 밥 쿠키라도 샷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샷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시합이 끝나는 종이 울렸고, 나는 연속해서 열 여덟 번째 자유투 실패라는 기록을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도 볼 수 없고, 쉽게 성취할 수도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시합장을 떠날 때, 저의 자신감은 매우 저하되어 있었으며, 제 앞에는 다음 시합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다섯 명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왼쪽부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밥 러셀 벨라드 장로.

에서 다시 파울 라인을 대해야 하는 두려운 과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계 목표는 파울 숯보다는 제 자신의 자신감과 더 많이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제프 호나섹이 기록을 세울 때, 매번 라인에 설 때마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것과 자신감이 커 감에 따라 이상하게도 바스킷도 점점 더 커져 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감은 큰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는, 주님께서 깊은 좌절 속에서 리버티 감옥에 있었던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주님에 대한 확신은 신권을 소유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훌륭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성임받은 이 위대한 신권 모임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으며, 그것은 이 지상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권을 존중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터치다운을 하는 것이나, 득점을 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시에 의해서든지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신권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파울 라인에서 막 숯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권이 유혹과 시험에 놓일 때도 언제나, 우리는 파울 라인에서 막 숯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에 앞선 숯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숯을 해야 할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은 우리의 이전의 성공 그리고 불행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재난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의 이전의 선택이 우리가 선에 섰을 때, 바스킷이 크거나 작게 보이도록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젊어서, 고의로 죄를 조금 저지르겠다고거나, 죄의 가장자리까지 가보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울든 그르든 간에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선한 행동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죄나 실패에 맞서 더욱 확고하게 설 수 있게 해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씹먹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큰 죄로 우리를 속박할 때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니파이는 사탄이 “무서운 사술로 없어 [매이] ... 빠져 나오지 못하게”(니파이이사서 28:22; 21 참조) 우리를 달래고

달콤한 말로 피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죄에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파울 숯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스킷은 점점 커질 수도 있으며, 아니면 사탄이 그것을 작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 안에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이 늦쇠관을 가져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을 때, 니파이는 그의 과거의 경험과 준비로 인하여 굉장히 큰 바스킷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이사서 3:7) 반면에 레이텐과 레뮤엘은 의로운 준비로부터 오는 자신감이나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숯을 성공시킬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 큰 거인을 향해 싸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울의 말에 낙담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기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사무엘상 17:34~35)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전에 파

울 솟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큰 바스킷을 보았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숲에 갔을 때나, 물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나, 단 여섯명으로 교회를 조직했을 때, 주님 안에서 그의 자신감은 강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행동에 행동을, 실행에 실행을 더하여 우리는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행위 하나 하나가 바스킷을 크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더욱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나이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가 합당하고 경건하게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할 때에 바스킷은 조금 더 커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감과 의로움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큰 시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경건 연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온 여러분들에게는, 바스킷이 클 것이며 자신감이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규격의 바스킷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 여덟 번의 계속적인 실패로 지금 솟을 하고 있는 바스킷이 아주 작게 줄어든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주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팔과 다리가 얼어붙은 것과 같고, 죄와 실패의 순환을 깨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에 관한 참된 이해는, 우리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바스킷이 규정 규격대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현명한 선택, 모든 책임감 있는 신권의 행사, 모든 봉사의 행위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키워 줍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매번 파울 라인에 설 때마다, 파울 솟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지며,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전합니다. 아멘. □

유일하게 참되고 유효한 기준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은 전파 장해로 신성한 주파수에 대해 혼란한 상태가 된다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이같이 매우 큰 신권 소유자들의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말일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 다시 배울 수 있었던 오늘 아침의 진지한 경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일 전, 저는 보잉747기의 기장으로 서 텍사스주 달라스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집까지 비행기를 조종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북대서양 위로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엔 무수한 별들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조종석에서 이 멋진 환경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의 머리 속에는 제 생애 동안 보았던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 전, 2차 대전의 공포가 가신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 여덟 살이었던 저는 독일 동쪽 작센 쾰카

우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은, 하얀 머리의 용기 있고 배려심 있는 한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저의 할머니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주게 되어서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답니다! 1952년 저희 가족들은 다시는 그 고향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로 갔고, 거기에서 저는 집사로 성임받았으며, 엄했지만 사랑이 많으신 지도자님들로부터 일과 봉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 서독 중부 지방에서는 30대의 나이로 최근에 미망인이 된 또 다른 훌륭한 부인이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어린 딸이 있었는데,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젊은 선교사들이 초인종을 울렸고 빛과 진리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 성실한 미국인 선교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의 장모님이 되셨고, 신앙과 힘 그리고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도 귀기울이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신 카르멘 리히 자매님께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기적 같은 통찰력 때문에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시온에 가기 위해 유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권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만약 우리가 시온을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세상 어디든지 시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템플 스캐어의 복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교회 회원들.

그 성도들은 신앙을 갖고 남았으며, 시온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스테이크들이 조직되었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콘크리트 장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정치 체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 영원한 반려자인 아내 해리엣은, 언젠가는 독일이 통일될 것이므로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 그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우리 가족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76년, 몬슨 부대관장님께서서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이상을 훨씬 넘어선 저의 조국에 대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기적을 요구하는 예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일어났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4년 전 바로 이번 주에 독일이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그 영토는 확대되었고, 그 시온 땅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에 두 개의 성전이 있고, 유럽에 다섯 개의 성전이 있으며, 앞으로도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동유럽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예전의 지리적 또는 정치적인 경계를 훨씬 넘어선 곳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재 봉사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건을 찾아봐야 되고, 지도상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유럽 성도들의 강한 간증에 대해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제게 평안과 보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범이 도전과 의문의 시대에 제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게 도와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북대서양 위로 그 큰 제트 비행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면서, 지리적인 좌표를 항공 조회 시스템 안으로 넣음으로써 운항 기준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정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모든 결정에 대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유효해야만 했습니다. 1979년, 뉴질랜드를 출발한 어느 비행기가 잘못된 좌표로 비행하다가 남극의 에테부스 산에 충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며 유효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고리와 성약 4:2)의 우리의 조직 안으로 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라디오 단파 주파수는 가끔 혼선이 되고 통신을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은 전파 방해로 신성한 주파수에 대해 혼란한 상태가 된다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경전에서나 살아 계신 예언자들로부터 받는 도덕적 표준을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가장 잘 행해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까지, 우리는 필요와 준비된 정도에 따라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들에게서 말씀한 연차 대회 메시지들은 주님의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구원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기쁨, 희망, 용기, 진실, 사랑 그리고 기적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형제를 지키는 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 의한 인도주의적인 봉사의 손길은 세계의
구석 구석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일간지나 주간지 혹은 월간지를 통해 뉴스를 접하실 것입니다. 이 뉴스들은 보스니아 내전,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 및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의 대홍수 사건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일련의 참화와 주택 상실, 농지 파괴, 기업 파멸 및 인간의 끔찍한 고통 및 사망이 거의 간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슬픔의 표현을 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 어찌할 바를 몰라 손만 마주 비틀다가 겨우 “언제나 이들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나?”하고 묻는 것밖엔 없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도 그와 비슷한 질문이 제기되었던 듯,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나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라”¹

오늘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대답은 세계의 교회 회원들과 교회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67년 3월,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봉사하던 초기에, 저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마뉴먼트파크 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는 교회 본부 복지 위원회 위원인 폴 시차일드 형제님이 저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셨으며, 제가 아론 신권 소년일 때 저의 스테이크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테이크 대회 방문자로 함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 순서가 되었을 때, 차일드 형제님은 교리와 성약을 들고 연단에서 내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신권 소유자 형제들 사이로 갔습니다. 그분은 18편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큼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²

차일드 형제님은 경전에서 눈을 떴 뒤 형제들에게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장이나 고등 평의원은 지명하지 않고, 대신 장로 정원회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 장로 정원회 회장은 약간 졸았던 듯, 그 질문의 요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 형제님은 “차일드 형제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차일드 형제님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 정원회 회장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한

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차일드 형제님, 인간의 가치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대답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차일드 형제님은 단상으로 돌아와 제게 허리를 굽히시더니, “심오한 대답입니다. 심오한 대답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지만, 저는 그 영감받은 응답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교회 복지 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이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같은 연세로서 몇 개월 전에 작고하신 윌터 스토버 형제님은 인간의 가치를 이해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때 다음과 같은 조사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대로 행동하는 분이었습니다. 동정심 가득한 도움을 주는 행동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늘로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가치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길을 밝혀 주는 빛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신 구세주의 음성이었습니다.”³

1842년 3월호 타임즈 앤 시즌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시 사항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든, 다른 교회에 속해 있든, 아니면 아무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든,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가 만나는 굶주린 이들을 먹여야 하고, 헐벗은 이들을 입혀야 하며, 파부를 부양해야 하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⁴

대관장단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1985년의 두 차례 특별 금식일 이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 의한 인도주의적인 봉사의 손길은 세계의 구석 구석에까지 미쳤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기부하고 면역 및 유아 부양 프로그램을 확립하며 기본적인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우물을 파고 지역 은행들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병원 및 고아원 시설을 운영하고 기본적인 자립심을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된 선교사들.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바침에 따라 수백만 명의 궁핍한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 다.

제공된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범위는 가히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도주의적 목적의 현금 현금 총 23,750,000달러
 - 원조 총 72,480,000달러 상당액
 - 혜택받은 국가.....109개국
 - 식량 원조.....3,615톤
 - 의료 장비 원조243톤
-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금 식 현금으로 운용되는 교회의 전통적인 복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시행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의 모범 은 영감 어리고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것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 후, 일련의 종족 분 쟁으로 인해 아프리카 르완다의 인구는 대 폭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금년 봄 (1994년), 공개적인 전쟁 행위가 재개되 어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난민들이 인접 국가인 자이레, 우간다, 탄자니아, 브룬디 등의 국경 내에 있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난민촌에서 복적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단체들의 노력에 힘을 합해 난민 구호를 위하여 1백 20 만 달러 어치의 물자 및 현금을 기부했 습니다. 약속한 지원 물자 대부분이 이 미 네 곳의 구호 기관~카톨릭 구호 봉

사 단체, 세계 적십자 연맹, 미국 원조 물자 발송 협회 및 유엔 난민 고등 판 무관실을 통해 인도되거나 선적되었습니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것을 돕기 위한 노 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 정부의 붕괴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민족별로 분열되었습니다. 뒤이은 내전 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백 만 명이 심각한 역경과 고통을 당했습니 다.

교회는 일곱 개의 다른 인도주의 기 관과 협력하는 가운데, 1991년 이후, 85 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 의복, 담요, 위 생 약품 상자 및 의료 장비를 지원했습 니다.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의 회원들 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은 제외한 것입 니다.

1993년 5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다니젤라 쿠직은 성도들이 보내 준 식량 에 감사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교회 본부에 보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들께,
“저희 나라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 주 신 여러분의 모든 선행에 감사드리고 싶 습니다. 끔찍한 내란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온전히 놔두지 않는 범죄 행위입 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난민들, 수천의 어린이 시신들이 여기 저기에 널려 있습 니다. 깊은 사랑을 보여 주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을 제 온 마음으로 존경합니 다.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내에도 전통적인 복지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994 년의 그 끔찍한 조지아주 남부의 홍수 피해자들이 그들입니다. 3만 5천여 가구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피신해야 했 으며, 5천여 명이 우리의 예배당 중 두 곳에서 임시 피난 생활을 하였고, 바퀴 가 열여덟 개인 트럭 아홉대 분의 식량 과 생필품이 교회 회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긴급 복지 물자를 수송하는 우리 교 회의 선봉대는 지역 회장단의 활동이 있 은 뒤 다섯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 을 갖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홍수가 난 첫째 주말에는 5명의 회원 들이 자원하여 1,569채의 피해 가옥을 청소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다음 주말에 는 5천 5백 명 이상이 와서 도왔습니다. 모두 피해 지역밖에 있는 교회 단위 조 직으로부터 온 회원들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서 스테이크에서는 신권회 소속 자원 봉사자들이 홍수로 거 의 침수된 집 한 채를 청소하기 위해 주말 내내 일했습니다. 은퇴하여 생활하 고 있는 비회원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집 주인은 그가 받은 도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 다. 작업이 모두 끝난 뒤, 그 형제들은 데이비스씨에게 그 집을 축복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함 께 모였으며, 감독이 그 집과 가족을 위 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데이비스씨 의 뺨에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내 렸으며, 그 곳에는 매우 강한 영이 임했 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각자 그를 껴 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너무나 많 은 수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의 반응과 특별히 그러한 상황에서의 신권회의 봉사는 사람의 마음 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 리는 항상 이 일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대하살 이후, 초기 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1940년대의 달러화로 총 2백 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과 의약품과 의복 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유럽의 회 원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이 물자를 수송 하는 데 133대의 유개 화차가 필요했습 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을 구조했으며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었 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기도와 깊

은 감사의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⁵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보낼 따뜻한 의복을 모으기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해롤드 비리 장로와 매리온 지롭니 장로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을 솔트레이크시티의 웰페어 스퀘어(복지광장)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들은 의복 수송과 물자를 해외로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교회 회원들의 관대한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부된 많은 의류와 신발류를 작업자들이 포장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스미스 대관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분이 입고 있던 새 외투를 벗더니 “이것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관장님, 아닙니다. 그건 보내면 안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외투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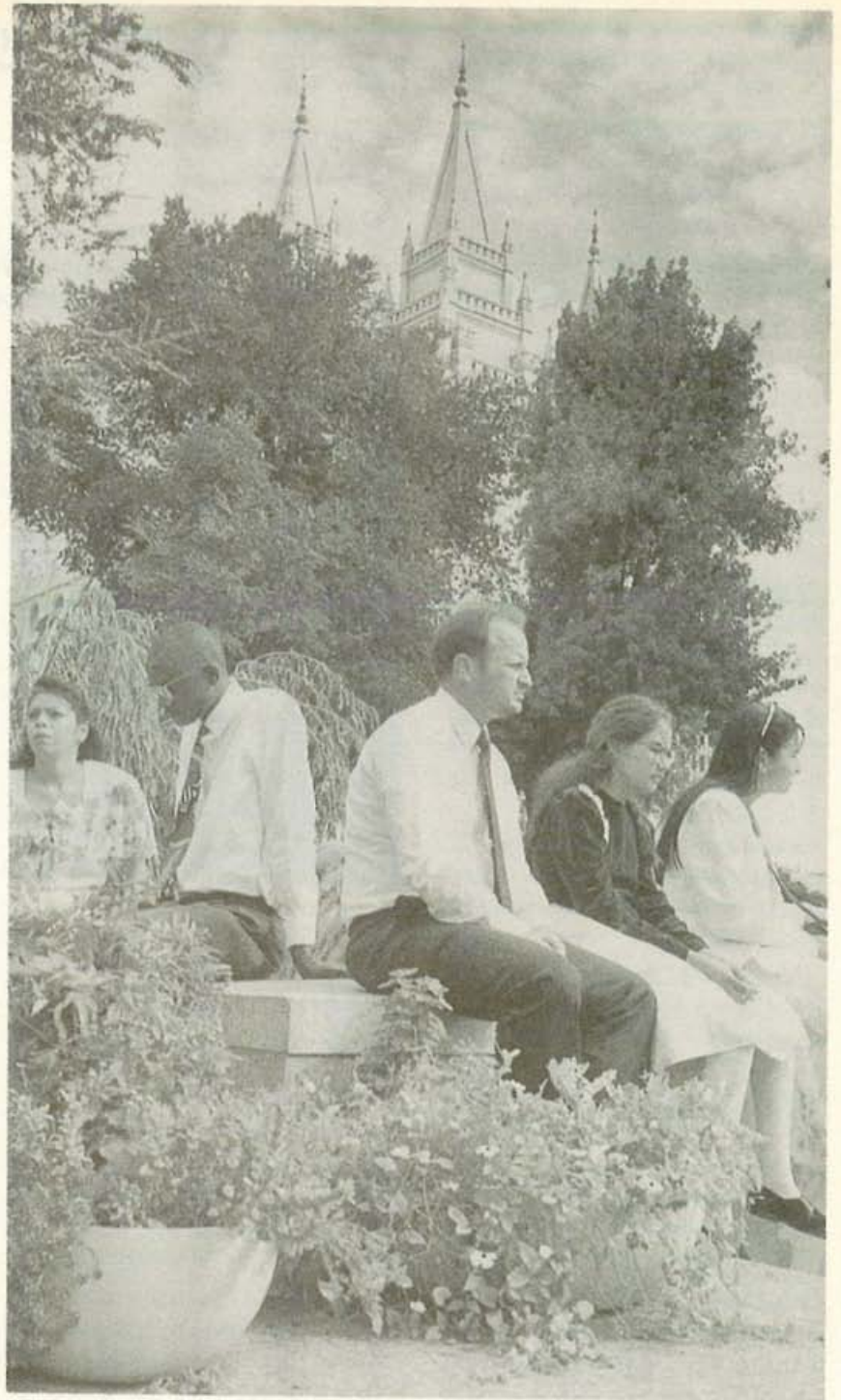
그러나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 외투를 돌려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은 사도 바울의 훈계가 분명히 실행된 날이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⁶

2주 전, 저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과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님과 함께 네덜란드의 한 지역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들과 모임을 하는 동안 저는 1947년 11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감자의 기적을 회상했습니다.

1947년 11월 첫째 주, 열 대의 대형 트럭이 네덜란드 땅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들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트럭에는 네덜란드 교회의 회원들이 독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75톤의 감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보다 수 개월 전인 1947년 봄, 네덜란드 선교부 내에 있는 회원들은 미국의 회원들로부터 필요한 복지 물자들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에는 직접 그들의 복지 사업을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은 그 제안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신권회에서 시작하여, 머지 않아 모든 정원회가 사업에 적합한 땅을 찾았습니다. 추천된 농작물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를 파종한 뒤, 교회의 여러 지부의 성도들은 노래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훌륭하게 수확할 수 있



겠다는 예견에 관한 소식이 들려 왔으며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점쳐졌습니다.

감자가 자라는 동안 동독 선교부장인 윌터 스토버 형제님이 네덜란드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에 사는 교회 회원들의 굶주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의 성도들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성도들에

게는 네덜란드 성도들에게만큼 지원 물자가 빨리 도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성도들의 상태에 관해 들은 네덜란드 선교부장인 코넬리우스 제피 부장은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안 뒤 동정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을 해낸 뒤 곧 실행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의 감자를 줍시다.” 틀림없이 그는 많은 걱정을 했을

공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충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것입니다. 독일군과 네덜란드군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국민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감자 한 자루를 받았던 한 네덜란드 미망인은 많은 감자가 독일에 있는 회원들에게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와 "제 감자도 같이 보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허기에 찬 미망인은 자신이 받은 감자 자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936년에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각자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는 가장 좋은 성품을 기르고,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존재 이유인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하는데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철없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러한 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니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저를 불드시고"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신권을 소유한 우리들 각자를 굳건하게 하셔서 각자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직분에 대해 배우고 주님의 사명을 띠고 일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 창세기 4:8~9
- 교리와 성약 18:10, 15
- 마태복음 25:40
- 타임즈 앤 시즌스, 1842년 3월 15일자, 732쪽
- 고린도전서 13:8
- 디모데전서 4:12
- 마가복음 12:43~44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인용,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6쪽
- 시편 41:1~3



형 제 여러분, 저는 오늘 대회에서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지하고 사랑하는 참된 예언자의 지도 아래 이 말일에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즐리 감독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농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야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 오래지 않은 어느 밤에 피비에스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때 미국에서 유명했던 스포츠와 관련된 인물, 경기 및 사건 등에 관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야구가 별로 인기 없는 종목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원리를 강조하고자 야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1912년, 월드 시리즈에서 있었습니다. 그해의 월드 시리즈는 한 경기를 날씨가 어두워서 중간에 중단해야 했기 때문에 여덟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야구장에는 전등 시설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의 초반부에는 보스턴 레드 삭스 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리즈는 보스턴이 4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점수는 1대 1, 동점이 되었습니다. 레드 삭스팀이 공격을 하고 뉴욕 자이언츠팀이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팀의 타자 한 명이 높이 솟구치는 플라이 볼을 쳤습니다. 두 명의 뉴욕 자이언츠 선수가 그 공을 잡기 위해 뛰었습니다. 센터를 보고 있던 프레드 스노드그래스라는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자신이 공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곧장 공에 글러브를 갖다 댔습니다. 공은 그의 글러브에서 빠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거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관중들은 도저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스노드그래스가 공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수백 개의 플라이 볼을 잡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공을 빠뜨렸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팀이 졌습니다. 보스턴 레드 삭스 팀이 그 시리즈에서 이겼습니다.

스노드그래스는 다음 해 시즌에도 다시 나왔으며, 이후 9년 동안 훌륭하게 계속해서 훌륭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86세까지 살았으며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번의 실수가 있던 뒤 62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마다 "아 맞아요, 선생이 바로 공을 떨어뜨렸던 분이죠."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1929년에 로즈볼 미식 축구 경기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시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상대편 선수가 떨어뜨린 공을 주워 들고 상대편의

골대를 향해 그 긴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팀 선수가 터치다운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에게 태클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긴장하여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편 골대를 향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로 그의 팀은 승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84세까지 살았으나, 그 사건이 있는 후, 그는 길을 잘못 달린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학기말 시험에는 너무나 긴장하여 낙제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평생 운전을 너무나 잘하던 운전자가 순간의 부주의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일을 아주 잘하던 신뢰할 만한 직원이 사장의 돈을 횡령하는 유혹에 굴복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 불은 표식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삶을 살다가도, 단 한 번의 도덕적인 범법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냈다가 오랫동안 사랑해 왔던 관계가 갑자기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공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쩔면 자만심까지 가지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며 반만 노력해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은 그의 손을 지나 땅에 떨어졌으며, 그는 시험에 지고 말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놓친 공을 날렵하게 주워들었지만 반대편으로 뛰어 상대방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자제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기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특히 여가 시간을 오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에는 훌륭한 운동 코치들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훌륭한 코치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활동했던 코치 가운데 유



진 엘 로버츠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보에서 성장했는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아무 목적도 없이 여기 저기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기 흉한 술집들과 부도덕해 보이는 유흥 시설들이 프로보시를 추하게 만들었던 오래전, 저는 어느 밤에 제 친구들을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있던 중에 (프로보) 예배당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친구들 몇 명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모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예쁜 여학생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서너 명의 친구들을 만났으며, 우리는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소녀들이 앉아 있는 발코니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상에서 들리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단상에는 모두 고리타분한 노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달관한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우리가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연단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상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의 그 사람을 살펴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

시오.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친구를 찾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눈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참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단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는 마른 체격, 검은 머리카락에 매서운 눈을 가진 열성적인 사람이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지만,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사는] 계속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수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새는 어느 동물이나 새들 못지 않게 일상적인 일을 열심히, 또 효율적으로 행합니다. 이를테면 독수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 자신과 자신의 새끼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일이 끝나면 독수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을 갖습니다. 독수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독수리는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여 날개를 편 채 하늘 높은 곳의 맑은 공기에서 목욕을 합니다. 독수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대기와 높은 청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돼지를 한번 봅시다. 이 동물은 툭툭거리면서도 독수리처럼 자신의 새끼를 잘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일상 작업 시간이 끝나고 여유 시간을 갖게 되면 돼지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진흙 구덩이를 찾아 그 속에서 뒹굴고 몸을 더러운 오물로 마구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가 시간에 독수리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습니다.

로버츠는 말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들은 뒤, 저는 질려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듣기는 것이 부끄러워 계면쩍은 모습으로 친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친구들 모두 연사와 꿈꾸는 듯한 표정을 담고 있는 연사의 두 눈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날밤 우리는 오히려 조용히 예배당에서 빠져 나와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내 제 자신이 돼지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 속에는 희미하나마 돼지 무리에서 빠져나와 독수리처럼 비상하겠다는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 마음에는 돼지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운 곳에서 똥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의 진흙 구덩이를 메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계속 생각한 결과, 저는 젊은이들을 위해 건전한 오락 활동을 개발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고 쉽게 여가 시간을 독수리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 제 삶에 더 많은 영향을 준 말씀을 한 분은 바로 조지 에이치 브림홀 스테이크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레이먼드 브림홀 홀브룩과 이스더 해밀턴 홀브룩, *키큰 소나무*, 1988년, 111~113쪽)

한 훌륭한 교사가 한 짧은 이야기 하나가 한 방랑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를 유능하고 재능있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대부분이 오물 구덩이 속에서 똥굴 것인지, 아니면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치기만 하면 성인용 비디오나 부도덕한 심야

프로를 보려고 나머지 밤을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보내는, 목표도 낮고 야망도 없는 성인들이나 소년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브림홀 스테이크 부장님이 오물 구덩이를 찾아 그 속에서 똥구는 돼지를 묘사한 것보다 더 잘 묘사한 그림이 생각납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싶습니까? 사탄이 득점하도록 돕고 싶습니까? 우리를 휩쓸고 있는 음란물의 조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조류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조류는 우리들, 바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건전한 복음의 목적은 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 높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능성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킹폴렛 설교에서 선언했으며(*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2~362쪽 참조),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이 강조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지금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장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4년, 1쪽 참조)

우리의 적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개념이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주고자 합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시며 항상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상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처럼 위대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옆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영원의 일부입니다. 물론경에서 엠올레이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앨마서 34:32)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는 영원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개와 용서의 위대한 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을 떨어뜨릴 때, 즉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히려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권을 위해, 우리가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에베소서 6:10~12, 14, 16)

우리들은 모두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길에 들지 않고도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은 더욱 더 강해집니다. 적은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목소리로 매혹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헤쳐는 안 됩니다. 올바른 길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며 위대한 유산과 기이하고 영원한 잠재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단의 선서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큰 목표가 됩니다. “나는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훨씬 나아질 것이며,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매우 사소하고도 전혀 대수롭지 않은 우리의 일상 행동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형 비행기가 항로에서 1도만 이탈해도, 항로 수정을 똑바로 하지 않는 한, 연료가 바닥이 나서 추락할 때까지 원을 그리며 그저 돌기만 한다는 것을 우흐트도르프 형제님(조종사 출신의 현 칠십인 정원회 회원:역자주)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사소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결심을 하고 배도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가 그들 중의 한 사람이며 마틴 헤리

스가 그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데이비드 휘트머도 그 한 사람입니다.

십이사도 정원의의 초대 회장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 형제님은 조금의 크림 때문에 생긴 언쟁에서 자신의 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그쯤 끝내려하지 않고 교회의 최고 평의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잃었으며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공을 떨어뜨렸으며 이후 다른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그가 했던 행동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혹은 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압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고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강화시켜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하며 승리를 원한다면 경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프레드 스토드그래스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월드 시리즈를 내주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로이 리겔스를 잊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골대를 향해 질주했으며, 그의 실수를 보고 야유하는 관중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기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흙 구덩이에서 멀어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충실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끊임없이 훌륭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실하고 충실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업은 빛을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평안은 경직함과 충실함과 기도를 통해 옵니다. 주께서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불사 불멸의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휘청거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립된 사람들로 여깁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력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이 연차 대회에서 신권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신권은 지상에서 형제됨을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실함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지지를 받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고문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아론 신권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밤 저는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에게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들은 모두 머지않아 결혼하여서 아버지가 될 연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가 아내와 자녀들과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신권 소유자는 결혼을 성스러운 특권과 임무로 간주합니다. 남

도, 여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짝이 없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모세서 3:18 참조)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9:15~17 참조) 새롭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통해서만 그들은 영원한 축복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5~19 참조) 신권의 책임과 관련지어서 볼 때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남자는 여자를 막론하고 불필요하게 결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와 그분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거룩하고 엄숙한 책임입니다.

과거의 예언자들께서는 이 생에서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말일성도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떠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측은 뒤에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 만일 한 젊은 남녀가 결혼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다면, 다른 남녀들이 이러한 기회를 받아 향상시켜서 얻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로렌조 스노우의 가르침,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4년, 138쪽) 저는 스노우 대관장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그의 아내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결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정조를 의심하지 않는 확실성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대회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가 한 회원을 만나고 있음.

아무 여자와의 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2:22~26 참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무 여자와의 결합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배우자의 삶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 관계나 사람이나 사물 등이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된다.”(용서가 낡는 기적, 266쪽)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금하시며 그분의 교회도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의 간음은 그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는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야곱서 2:35 참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음화나 유혹이나 건전치 못한 상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의 용화와 신뢰가 파괴됩니다. 자신

의 생각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과 그의 마음에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모성애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인간의 영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132:63)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신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가장 성스럽고 높은 봉사입니다.”(제임스 알클라크 편, 대관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5~1975년, 6:178) 동반자 없이는 신권의 예정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사에 대해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서 가진 유일하고 거룩한 역할과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영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와 손자녀들을 이 지상에 빛과 진리로 데려오라는 신성한 계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모세서 2:28; 교리와 성약 93:40 참조) 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아내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시키는 일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정규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내에게 존경을 표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사람들로 여깁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력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두고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따라서 세상의 흥미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인생의] 다른 어떤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제이 이 맥컬로의 글을 인용함, “가정, 문명의 구세주”, 대회 보고, 1935년 4월, 116쪽) 또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할 주님의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 울타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해롤드 비리, 거룩한 곳에 서라,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판사, 1974년, 255쪽) 형제 여러분, 가족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훌륭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에게만 맡기거나 사회, 학교, 심지어 교회에까지라도 맡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가정과 가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함께 완전히 알고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반드시 교회와 가정에는 관리 역원이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1 참조)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모세서 4:22 참조)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내조자(내조자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동반자 관계

에 있어서 동등하고 반드시 필요한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그 문제를 알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행해야 합니다. 남자가 독자적으로 아내의 조인과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을 다스리는 것은 의롭지 못한 통치 행위입니다.

압제적이거나 함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몸이 되며 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모세서 2:28; 3:24 참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5~31 참조)

온화함과 존경—결코 이기적이 아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인도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 배우자는 서로의 필요 사항과 소망에 대해 사려깊고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압제적이고 무례하고 절제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심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는 사랑과 친절과 상호 화해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의 아내를 최상의 존경으로 대해 주고 사랑과 친절로 말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결혼 생활은 부드러운 꽃과 같은 것이며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계시에서 주어진 신권 통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교리와 성약 93:40; 121:34~36, 41~45 참조)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서로를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영을 지녔을 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대화 보고, 1950년 10월, 8쪽)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아내나 자녀를 학대하고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성적인 학대는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파문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은 오로지 의로운 권능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십시오. 의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회적, 교육적, 영적인 활동과 책임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온유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은 신체 장애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 책임의 짐을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라도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그들을 부양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3:1; 디모데전서 5:8 참조)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남편이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아내에게 집밖에 나가 일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막히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

우리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아내는 집에 남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남성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교회에서의 입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혼이나 별거 중에 있는 남자들은 법에 의해 규정된 가족 부양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원리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성약과 의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



내와 함께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러분의 첫번째 임무는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질서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권과 성전 성약을 굳게 지키고 영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십시오.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기도를 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기타 가르치는 시간을 가정으로써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강조하십시오. 가정의 축복 사로서, 가족들을 위해 적절한 의식을 행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신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서의 여러분의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기도로써 숙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드린 것이 모두 참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 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험한 길을 걸을 때, 그들을 들어
올리고, 인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며,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모
임에서 맨 먼저 말씀할 책임
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저는
전세계에 있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말일성도들에게 말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저희에게 보
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정중한 환대에 감
사드립니다. 그러한 관대한 친절을 받는
것은 제겐 참으로 겸손하게 해주는 경험
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고자 하며, 여러분의 가족을
빛과 진리 가운데에서 양육하도록 노력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말일성도이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우정에 참여하는 기회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힝클리 자매와 저는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서 한 지구 대회에 참석했
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은 옐로우스톤
국립 공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구 대회에 갔다가, 월요일 돌아오는
길에 옐로우스톤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
다.

1988년, 그 곳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
다. 연일 방송 매체에서는 수백만 그루
의 나무를 소실시키면서 수천 에이커를
뒤덮은 그 산불의 심각성을 생생한 기사
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 불길은 결국 잡
혔고, 사람들은 뿔뿔한 공원 묘지에 서
있는 엄숙한 묘비처럼, 타버린 꼭대기와
그울려 버린 곤은 줄기의 수많은 라지포
울 소나무의 황폐한 장면에 문자 그대로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 한 달 전에 그 곳
에 갔을 때는 마음을 사도잡는 무엇인가
를 보았습니다. 죽은 소나무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타버린 나무들 사이에서
실로 수백 만의 묘목들이 토양을 뚫고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화염이 나무 꼭대기를 강타할 때, 분
명히 솔방울들이 터져서 씨들을 땅에 흘
뿌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곳에는 젊고,
아름다우며, 약속으로 가득찬 새로운 세
대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은 결국 소멸되어 가고, 새로운 나무들
은 크게 자라서 펍 아름답고 유용한 숲
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 공원을 차로 지나면서, 저는 자연
의 경이로움과 우리의 인생의 주기에 대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늙어
가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된 사람들 중
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원기와 힘은 쇠
잔해 가지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이들
은 또한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 지상에

서 살 준비의 때가 도래한 사람들입니
다. 그들은 그 공원에 있는 새로운 묘목
들처럼 한결같이 젊고, 부드럽고, 민감하
고, 아름다우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
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모든 어린이
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
는다는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찰스 엘
월 편집, 보석 상자, 뉴욕: 하퍼 앤드 로
우, 1965년, 49쪽)라고 말한 것처럼 말
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실로 많은 어린이
들이 슬픔, 배고픔, 두려움, 고통, 가난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린
이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갖는 몰인정의 희생물
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몸이 부어 오
른 채로, 죽음을 응시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아 왔습니다. 더 최근에는
르완다에서 만연하는 콜레라와 계속
되는 심한 기아의 희생물이 된 어린이들
을 보아 왔습니다. 수없는 어린이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새롭고 더 훌륭한
세대의 미래의 희망이었는데 날카로운
낮 앞의 연한 초목처럼, 질병, 영양 실
조, 총알, 태만에 의해 잘려져 버린 것
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처참한 동족 상
잔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야기시킬
정도로 사악할까요? 이런 어린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고소되어 전능하신 하
나님 앞에 서야 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는 것
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재난
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물
질적 원조, 심지어는 몸소 그 곳에서 봉
사하며 아낌없이 동정의 마음으로 도운,
전세계 종교 단체의 친절하고 관대한 분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극심
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도움
이 없었다면 필시 죽게 되었을 어린이들
에게 따뜻함과 보호를 가져다 주는 담요
와 옷, 음식, 의약품 등을 보내는 데에,
어제 저녁 몬슨 부대관장께서 지적하셨
듯이 우리 교회가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곳에 그들이 그처
럼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실 때 눈물
을 흘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대한 계획에서 그들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셨을 때 확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8:15~17)

고통 당하는 어린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고 그들의 삶 속의 절망으로부터 들어 올리려고 손길을 뻗치는 우리들의 책임은 얼마나 크며,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과 선남 선녀들의 책임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러한 고난들이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재난이 지난 수세기를 거쳐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전쟁은 전혀 죄 없는 수백만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물 교환되고, 팔려져 오고, 간악한 주인의 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매일 같이 춥고 어두운 길은 땅속에서 장시간에 걸쳐 석탄을 캐 오고,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해 오고, 싸구려 상품처럼 착취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역사를 읽고, 모든 고난을 듣고, 모든 착취를 인식한 후에는, 우리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게 하고, 비극적인 짧은 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제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기 위해 지구의 절반을 여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도덕적 범죄와 태만과 학대의 사악한 결과로 인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련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간결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할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근자의 한 가지 큰 문제는 아이들이 아이를 갖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많은 청소년들과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 간에 아이를 낳는 것과 출생 후 그 아이에 대한 책임 사이에 아무런 관

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혼외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어겨 왔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이 책임이 생애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현 사회의 관습이 성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해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려고 하는 시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견디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가졌다가 돌볼 책임을 뺏겨 버린 모든 남자들 위에 언젠가는 책임감이 얹혀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육신과 영의 일부인 이 어린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홀로 자신의 아이를 길러야 하는 젊은 여인에게 떠맡겨진 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도 또한 사회의 짐이 됩니다.

1985년부터 1990년 동안 미국에서 청소년 출산에 관련하여 지출한 공공 비용은 총 1,200억불 이상이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의 십대 청소년 중 4명당 3명 꼴인 73퍼센트가 4년 이내에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91년에는 부양 자녀를 둔 가족에게 보조해 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출이... 행정비 26억불을 포함해서 총 200억불에 달했습니다.(출발점: 우리의 나이 어린 어린이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줌, 뉴욕: 카네기 협회, 1994년 4월, 21쪽)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는 아이들이 직면한 장애들은 아주 힘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단순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해답은 복음 원리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훈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젊은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복음 원리와 자기 훈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심과 애통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

다. 행해질 수 있는 이 모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고 제 생각 대로만 가다가 결국 자신의 애들보다 겨우 몇 살 더 많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에 충격받고 당황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를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가져올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도피입니다.

결혼이란 훨씬 영예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함께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가능하지 못할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젊은 어머니에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입양은 그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명하고 경험있는 전문 상담인들과 신앙심이 깊은 감독님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독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사악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고, 정당화 되어질 수도 없으며, 옹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체 학대와 관련하여 저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라는 원리를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화 때문에 손을 대는 일이 결코 없었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자녀들 스스로가 잘 알도록 해주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들을 만든다는 것이 납득됩니다. 저는 그러한 처벌이 좋은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해악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존경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모범이 가장 필요합니다.

최근 저는 한 때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조지 에이치 브림홀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이는 그가 뉴싯대, 즉 뉴시를 통해 그의 아들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엄청나고 사악한 성적 학대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품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폐렴한 일이며 가장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모든 사람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적 학대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장 심각한 종류의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보다 강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행위를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뛰어나오며,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롱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께서 우시니,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니파이삼서 17:21~22)라고 기록이 물론경에 있습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해 주는 이 간단한 말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장면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 행복한 부모가 되는 기쁨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책임들 중 이처럼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도전 중에서 자녀를 사랑과, 인연과, 신임 가운데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오는 좋은 결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보상이 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한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몫으로 성임하여 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의 성공보다 더 위대합니다. 전자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위대성이요, 후자는 순간적인 것입니다.”(부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256쪽)

행복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보다 더 우리를 하늘에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더욱 설득적이기를 바라며, 저의 청원은 어린이들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수가 고독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밝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친절과 격려와 애정이 필요합니다. 집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 구원의 환경이 될 사랑이 가득 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온 편지 한 통을 읽어 드리며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그리는 그런 가정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부대관장님이 아시도록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서 저는 여기에 앉아서 창 밖으로 아름다운 산을 바라 보고 있습니다. 뒷뜰 사과 나무에는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여름 내 먹이를 주고 보살펴온 두 마리의 비둘기가 구구 거리며 먹이를 먹고 있으며, 날씨도 마침내 서늘해졌습니다.

“저의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가 26년이 되었으며, 사랑스런 다섯 아이들과, 두 사위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

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처럼 우리의 결혼과 가족을 연결해 줍니다. 저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의 저의 금식은 ‘감사’의 금식입니다.

“저의 남편은 스테이크 부장단에 있으며, ...저는 복음 교리반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일해 왔으며, 그것을 늘 즐겨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려 왔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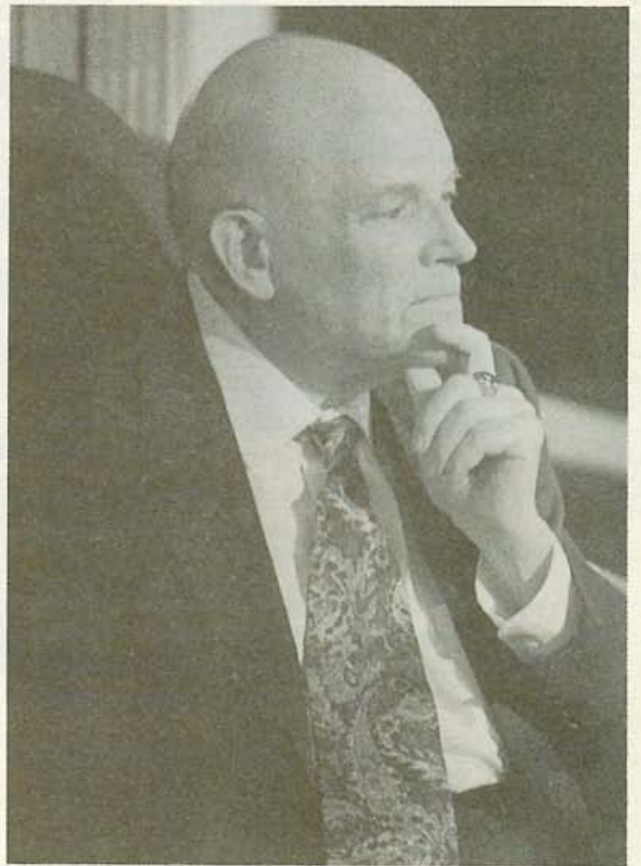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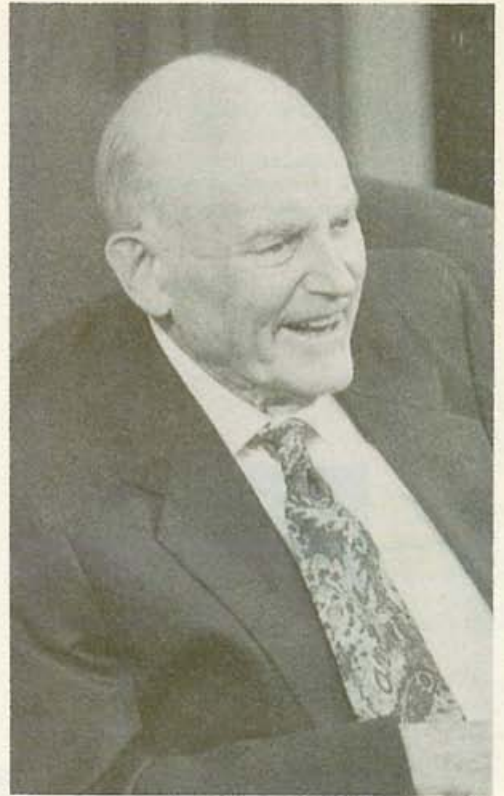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부대관장께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사랑과 기쁨,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좋기에 사실이 될 수 없습니까? 이 편지를 쓴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상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집의 크기와 정원의 크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안에 있는 영이며,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훌륭한 남편과, 진실한 만족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지닌 아내와, 건전한 결혼 생활에서 태어나 신앙과 안전과 평화가 가득한 환경 안에서 양육된 자녀들의 사랑의 확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바라 볼 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뜰에 사과 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에서 먹일 새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존경, 자기 훈련, 또한 기도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숲은 불에 타고 죽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놀랄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묘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성장하기로 운명 지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획의 일부로서 그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너무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험한 길을 걸을 때, 그들을 들어 올리고, 인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며, 사랑해 주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에 참석한 하워드 더블류 런터 대관장의 모습.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고든 비 할그렌 부대관장



앤드루 디블빈스 부대관장



토마스 매스 로스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브 케이 파커



톰 파커



덴리스 비 하우트



제임스 아 파우스트



빌 에이 매스웰



릭 매 넬슨



단 A 매스 로스



톰 라슨



조셉 비 와인스린



릭 D 지 스파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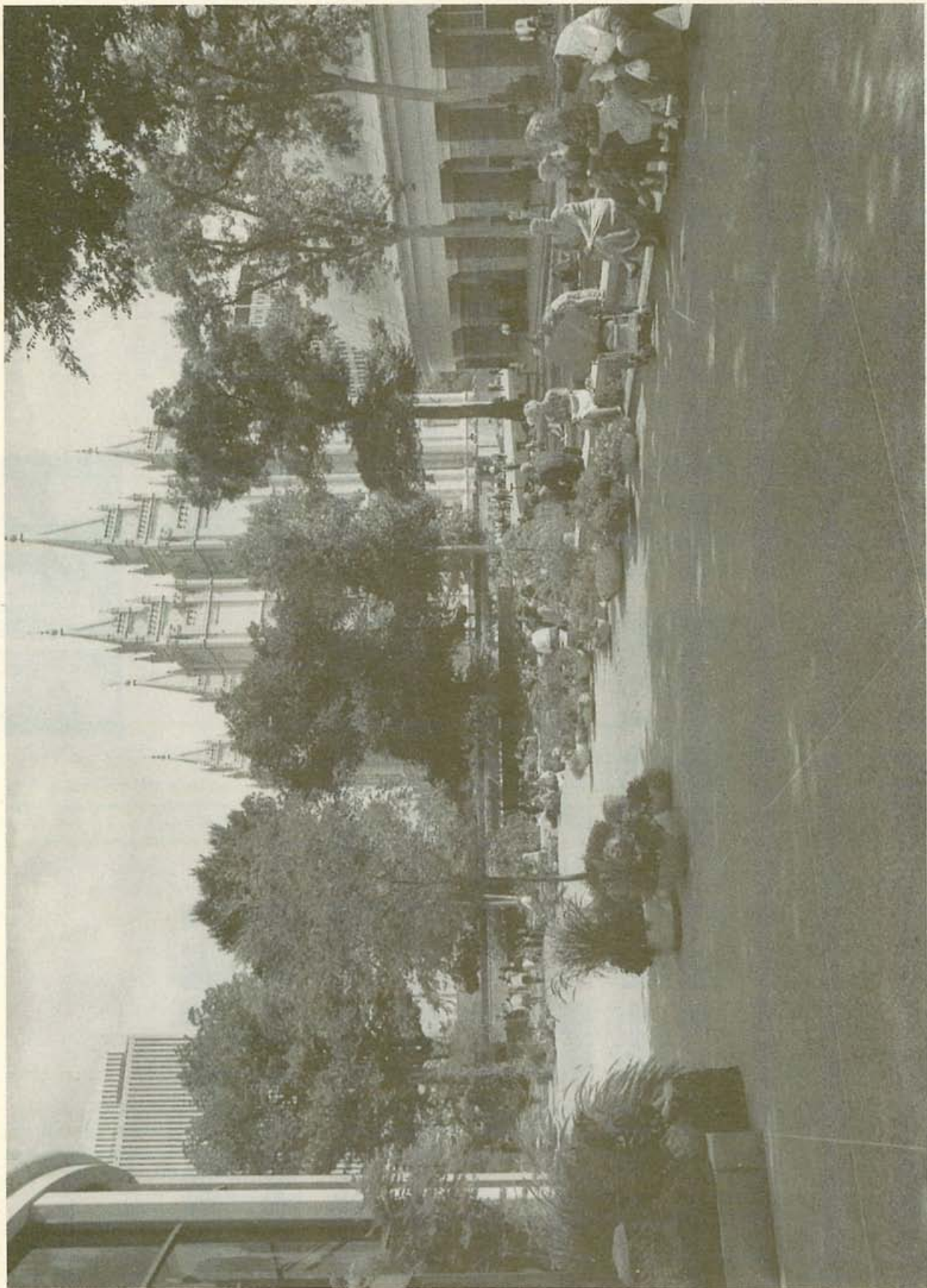
로버트 디 어윈즈



제프리 엠 홀렌드

철심인 회장단





템플 스퀘어의 복쪽, 왼쪽 두번째 교회 본부 건물이 보인다.

개인을 위한 계시 : 은사와 시험과 약속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보충될 것이고,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운구 행렬이 그의 고향 아이다호주의 장지로 향했을 때, 모든 연도에는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서 단복을 입은 소년단원들이 기를 들고 서 있었으며, 나이 드신 분들은 간편한 접이 의자나 심지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판의 농부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서 있었으며, 주일날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은 가족들은 그들의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분께 사랑을 나타냈으며, 그러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분출은 이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께 옮겨 갔습니다. 그의 신체적 한계가 예언자와 선전가로서의 그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고양시켜 줍니다. 그가 이미 정해 놓은 방침과 그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줄 지침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르리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고통하는 때”에 직면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

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가능한 한 명료하게, 개인을 위한 계시에 관하여 배운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중의 존재

여러분의 본질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필멸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와, 그 안에 있는 불멸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딸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키로 들을 수 있고, 만지고,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성으로만 배운다면,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이 배우든지 간에, 영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은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²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아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지성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배웁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³며,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시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해 *보다*, *듣다*, *느끼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전에 쓰여진 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

침례 후에 여러분은 확인 의식에 의

해,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성신이 온 인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반면, 성신의 은사는 그것을 “변치 않는 동반자”⁴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합니다. 그것은 “성신의 권세로 온갖 진리를 알”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⁶임을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천사의 방언[또는 똑같은 말]을 말[한다]”⁷고 까지 들어왔습니다.

기도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영감은 여러분이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며 아마 올 수도 없습니다.

경전의 어떠한 메시지도 심지어 계명이라고까지 하는 기도에 대한 권고보다 더 자주 되풀이 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계시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그것이 없이는 장막이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시작함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젊었을 때 불순종하였던 예언자 엘마와 같거나,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서 “이러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⁸년 앰울레크와 같을 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여러분 개인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장막의 여러분 쪽에 있습니다.⁹

연구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계시가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구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울



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¹²

이처럼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순전히 육체적 느낌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내면에서 빛나는 따뜻한 빛과 같은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성신으로 부터의 암시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암시는 개인에게 오는 것이고 순전히 개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¹³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

19 성신은 여러분이 듣기보다는 느끼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으로 묘사됩니다.¹⁴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에 관해 말할 때, 종종 영적인 속삭임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홀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닦게 될 것입니다.”¹⁵

19 계시는 우리가 듣기보다는 느끼는 말로 옵니다. 니파이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집 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 지라”¹⁶

경전은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견고하고 이해의 눈이 열리는 지라.”¹⁷ 또는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¹⁸ 또는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¹⁹ 또는 “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라”²⁰ 등의 계시에 대해 가르치는 성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예언자 이노스의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시어”²¹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노스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주님이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매우 평범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이나 문장으로 옵니다. 저는 이러한 계시의 매개물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친숙해져 있습니다.”²²

우리는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구하지 않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영적인 메시지가 평범하게 주어질 때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것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계시적 교통의 흐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²³

속삭임

이 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암시하며, 혹은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영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입니다.

신앙

계시의 흐름은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성만으로는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써 신앙을 행사합니다.²⁴

첫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하여야 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는 것으로 복음 원리를 시험하는 동안 영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차로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안을 가지고 구별하거나,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끊임없이 보충될 것이고,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증가되고, 부활과 회복의 구속주에 대한 간증이 마치 “영생을 얻는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샘”²⁵ 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데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여러분의 육체는 마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영과 육이 가장 가까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의 말씀²⁶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게시에 의해 금지된 흥차, 커피, 술, 담배와 같은 습관성 물질들은, 다른 습관성 의약품이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교통의 미묘한 느낌들을 방해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²⁷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강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음악

모든 종류의 건전한 음악이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게시에 의해 신성한 음악이 계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배우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라.”²⁸

세속적인 음악은 고전적이거나 대중적인 감각에는 영감을 줄지 모르나, 그것은 신성한 음악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영에 위해 가르침을 받도록 준비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성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²⁹도록 권고했습니다.

경건함

경건하게 연주되는 전주 음악은 영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것은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때가 시인들이 말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³⁰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주 음악을 결코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건함이 계시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라”³¹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경고합니다! 어떤 음악은 영성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습니다. 빠르기와 음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영을 쫓아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계시에 관해 또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오해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거짓 영이 많으니라.”³² 거짓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악마로부터의 속삭임,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악마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여러분을 타락으로 이끌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악마가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들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³³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하기를 “악령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³⁴

물론경의 모로나이서 7장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의 속삭임을 시험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약간의 시행 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러한 속삭임들에 유념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꺼림칙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을 아는 어떠한 일을 하도록 암시를 받는다면, 그일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님은 그분의 뜻을 꿈, 시현, 방문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음성이거나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드러냅니다.³⁵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³⁶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어떤 회원이든지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된”다고 가르쳤습니다.³⁷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족의 부모로서 또는 지도자나 교사로서 합당하게 부름받고 성별되어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적이 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품으면, 영은 물러설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할 때에만 영이 돌아옵니다. 저의 경험으로 영감의 경로는 항상 질서를 따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따르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보혜사

이제 여러분이 슬픔, 실망, 실패, 혹은 두려움 없이 지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시험에 필수적입니다.

슬픈 시련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왜 성신이 보혜사로 불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파이가 한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³⁸ 영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행사하시고, 또한 신앙을 행사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청소년기에 왔습니다. 그 초기 불신앙의 기간 동안에 저는 한 세미나리 교사의 간증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저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시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영의 권세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비할 바 없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동안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 1. 디모데후서 3:1
- 2. 욥 32:9
- 3. 디모데 후서 3:7
- 4. 욥 32:8
- 5. 교리와 성약 84:46
- 6. 교리와 성약 121:46
- 7. 모로나이서 10:5; 또한 니파이서 32:5
- 참조
- 8. 니파이서 32:3
- 9. 니파이서 31:13; 32:2
- 10. 엘마서 10:6
- 11. 요한계시록 3:20 참조
- 12. 교리와 성약 9:7-8
- 13. 니파이일서 14:28-30 참조: 니파이서 32:7; 엘마서 12:9-11
- 14. 교리와 성약 85:6
- 1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1쪽
- 16. 니파이일서 17:45
- 17. 교리와 성약 110:1
- 18. 교리와 성약 8:2
- 19. 교리와 성약 6:15
- 20. 교리와 성약 100:5
- 21. 이노스 1:10
- 22. 대회 보고, 1964년 4월, 124쪽
- 23. 스펜서 더블류 컵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킹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 1982년, 457쪽
- 24. 엘마서 32:27-28, 38 참조
- 25. 교리와 성약 62:23; 또한 요한복음 4:14
- 참조: 예레미야 2:13
- 26.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 27. 교리와 성약 89:19
- 28. 교리와 성약 25:12
- 29. 에베소서 5:18-19
- 30.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에는 자도, 2막 2장, 136-137행
- 31. 시편 46:10
- 32. 교리와 성약 50:2 또한 50:3 참조
- 33. 모로나이서 7:17
- 3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3쪽
- 35. 교리와 성약 43:25
- 36. 교리와 성약 1:38
- 3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쪽
- 38. 니파이일서 4:6
- 39. 요한복음 14:15-18

하늘에서 온 계시

엘 압든 포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는 교리들이 참된 것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계시의 말씀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서 풋볼 경기를 하다가 부상당한 제 아들과 이웃집 소년 때문에 솔트레이크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부상당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 소녀가 병원 안으로 실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옷을 잘 차려 입은, 열 일곱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마약을 과용한 나머지 거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기운이 빠져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녀의 인생이 이러한 슬픈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 실정을 모르는 인간의 경고라고 비웃었던 것일까? 우리들 중 누군가가 그녀를 가르칠 기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아이의 부모가 참된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병원에서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교리와 성약 89편 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원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

“계시로써 너희에게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라는 원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스미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움을 입고, 이 지상에 교리, 권세, 열쇠, 신권 및 의식을 회복시키는 인간의 도구로서 지명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인 계시가 주어져 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이요,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의 명상과 기도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터 대관장님께서 35년 동안이나 성스러운 계시를 받는 권능을 지니신 분들 중 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들이 지지했던 분은 주님의 성스러운 지시를 받는 원리나 과정이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결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엄숙하고 진지하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가 주

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모든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시험입니다.”

수년 전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이곳 태버내를 단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1972년 4월, 스미스 대관장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연차 회의의 신권 총회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해 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대관장이나, 대관장단이나, 한 목소리가 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결코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길로 실족케 하거나 주님의 마음과 뜻에 상반되는 세상적인 권유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영의 증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시하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확신과 화평의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관한 매우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셨습니다.

“총관리 역할 중 몇몇 분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주어졌고, 그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들은 교회 대관장의 모든 권세와 권능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는 권리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계속해서 “다른 총관리 역할들에게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특별히 부여된 권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모든 다른 직원들과 회원들을 가르치는 권세와 권능에 있어서 궁극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²

나머지 우리들은 그러한 특별한 권능과 권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칠십인은 칠십인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고유의 재능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성전장과 성전 봉사자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권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제이 베이트먼 관리 감독과 관리 감독단 제1보좌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든 감독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 이 점을 강조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와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선포하곤 합니다.

사람의 의도는 가장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전적으로 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수한 의도나 가슴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성은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서 지지받지 않는 교리를 선포할 권능을 교회 회원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회원인 동안,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견을 공공연하게 발표한다거나, 우리들 중 많이 배워 박식한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이론에 기초한 다른 결론에 까지 교리상의 견해를 확대할 권능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열쇠를 통하여 교리와 직접적인 복음 원리를 받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순수하게 보호할 책임이 주어지므로써,

사람들이 확실하고 일정한 형식 안에서 교리를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하게도, 그들의 교만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타락의 길로 그들을 빠뜨립니다.

“배도는 보통 의문과 의심과 비판과 함께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예언자들을 존경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는 돌을 던집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언자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현재의 프로그램과 그것들이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언자와 현재의 지도자들의 실행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진로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합니다! ...그 다음엔 그들은 복음과 교회는 신성한 반면, 지도자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수동적인 상태이지만, 그 다음은 능동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지독한 배도자가 되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말



대배내름의 북쪽 대외 참석자들이 대회를 마치고 템플 스커머 밖으로 나가고 있음.

하며 그것들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 이제 그는 박해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순교자 콤플렉스까지 갖게 되는데, 결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면 그는 사이비 종파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다른 배도자들과 사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는 그의 해석과 행동에 있어 그를 지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자신을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살아 계신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능가한다고 주장합니다.”⁵

거의 예외 없이, 킴블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배도의 길을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권고하고, 충고하며, 심지어는 훈계까지 할 신권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어떤 것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을

지도 모를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저는 이따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며 저를 돌보아 주셨던 형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영향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지 만드는 영의 달콤함과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오락이나, 명성이나, 부나, 비디오나, 텔레비전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생을 위해 거의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노력, 고뇌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교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주님의 영광 “왕국의 평화로운 것”에 무감각하게 될 정도까지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바쁘게 서두르면서 사는 것을 배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할까요?

한 가지 경우로 구세주께서 육신으로 직접 성역을 베푸셨을 때,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 다. 그들은 구세주께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말 씀하시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⁶

우리는 진지하게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리들이 참된 것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계시의 말씀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께서 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훌륭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보라,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리니, 저들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준 저의 말을 믿게 되리라. 보혜사는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 죄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타내셨느니라.”⁶

만약 우리가 이 총관리 역원들이 주신 권고와 지시를 성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간증의 결과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면서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를 부르시고 지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끄시고, 그분들은 우리가 실족하도록 인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문서나, 말씀이나, 편지나, 지시를 받게 되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예언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늘의 계시를 받을 예언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할 영혼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이 불같은 힘으로 주님께서 임명하신 종들에 의해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주는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큰 관심으로 인한 권세와 영감 아래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갈 종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전할 모든 인간의 능력 밖의 권세에 대한 앎으로부터 오는 평화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대회 보고, 1972년, 4월, 99쪽
2. 브렌트 엘 톱, 래리 이 달, 윌터 보웬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 1933년), 34~35쪽 인용.
3.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 1982년), 462쪽
4. 교리와 성약 36:2
5. 요한복음 7:16~117
6. 교리와 성약 21:9

회복된 진리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린 요셉이 이 성스러운 숲 속에서 가르침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늘이 닫혀 있지 않다는 이 중대하고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삼 주 전에 저는 올랜도 성전의 일반 공개에 종교계, 언론계, 정부, 교육계 및 사업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영접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이 귀빈들을 성전으로 안내하기 전에, 저는 그분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과 기본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성전의 신성한 목적과 영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회복되었는가를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며, 비회원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복음의 회복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성역은 그야말로 짧았습니다. 33년의 생애에서, 그분의 성역은 단지 3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 그분은 인류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축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역사상 유일하게 무한한 자비심과 중대한 봉사로서 그의 성역

을 마무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이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11~12)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안수로써 그들을 성임하신 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분의 교회를 다스릴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망,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12사도의 회장, 또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고난 등의 어려움을 견뎌 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은 교회를 계속 유지시키고 교리를 순수하게 지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을 두루 여행 했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서신으로 연락을 했으나, 이 서신은 매우 느리게 전달되었고, 교회와 그 가르침이 매우 새로운 것이어서 그릇된 가르침들이 확고하게 자리잡기 전에 그것들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약성서에는, 초기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교회를 보존하느라고 열심히 일했으나, 그들의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데살로니가후서 2:3) 그는 또한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데후서 4:3~4)

베드로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대회 참석자들이 모국어로 통역되고 있는 대회 말씀을 듣고 있음.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기 전에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사도행전 3:19~21)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타락 또는 배도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다시피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교회 회원들은 끔찍한 억압에 맞서 살아 남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들 덕택으로 기독교는 살아 남았고, 서기 2세기 말까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성도들이 기독교가 지탱하는 데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의 뜻깊은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안수로써 성임하신 사도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권능을 잃게 될 때, 인간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간결하고 진귀한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나와 있듯이, 서기 325년에 니케아에서 큰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부터 빠져 나와 바야흐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껏 교리의 근본적인 점에 있어서 기독교인 사이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기독교 사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견 일치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성과 같은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각양 각색이었으며, 논쟁은 심해졌습니다. 결정은 영감이나 계시로서가 아닌 다수결로 내려졌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단체는 떨어져 나가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로 이와 유사한 교리 회의가 서기 451, 787, 1545년에 열렸으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답고도 간결한 복음은 초기 로마 시대의 채찍이나 십자가형보다 더 파괴적인 적, 즉 영감받지 않은 자들의 왜곡된 철학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교리는 시현보다는 대중적인 의견에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빛을 잃었으므로 깊은 암흑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후, 1517년에 영은 독일의 사제였

던 마틴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너무 멀어져 있다는 데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노력은 개혁을 가져왔고, 그 운동은 존 칼빈, 헨리히 쾰링글리, 존 웨슬리, 존 스미스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개혁가들이 잃어버린 진리와 신권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영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초기의 미대륙의 초기 탐험가와 정복자 그리고 미합중국의 헌법의 초안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통치 원리를 조성하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1820년에 이르러, 세상은 베드로의 말이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만유를 회복”(사도행전 3:21)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뉴욕주의 시골 오지에서는 종교적인 동요가 온 지방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가족의 고향인 팔마이라에서도, 서로 다른 종파의 목사들이 어느 교파가 옳은지에 대해 심히 흥분하며 다투었습니다.

스미스 집안은 이러한 동요에 휩쓸려 각기 다른 종파로 “개종”했습니다. 어머니와 형 하이람, 동생 사무엘, 누이 소프로니아는 한 교회에 다니고(요셉 스미스서 2:7 참조), 아버지와 큰 형 알빈은 다른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열네 살이었던 요셉 스미스 이 세는 어느 교회에 가입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각 종파를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종파의 목사들의 설교를 경청하기도 하면서 진실을 가려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에베소서 4:5)라는 성구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종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그른 것인가,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여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0)

어린 요셉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야고보서에서 간결하고 직접

적인 혼계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요셉이 회고하기를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 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내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12)

아직은 어린 소년으로서의 단순한 신앙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 자극받은 요셉은 그의 집에서 가까운 숲 속으로 가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맑게 개인 아침에, 요셉은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고 혼자 있음을 확인한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자 마치 사탄의 힘이 그를 굴복시키려는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의 압도하는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셉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6~17)

저는 가장 항상 가장 영적인 표현으로 그 두 분이 하나님 아버지과, 그의 부활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요셉에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명을 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났



으며 이때 어린 요셉은 육체적으로는 쇠약했으나 영적으로는 회복된 진리에 대한 흥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재하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신권의 권능을 가진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성스러운 숲 속에서 가르침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늘이 닫혀 있지 않다는 이 중대하고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분은 고대의 인간들과 똑같이 현세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혼란과 낙담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확신을 주는 위안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개인적으로나 모두를 염려해 주시며, 직접적으로나 또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에 얼마나 화평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진실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시키기 위한 한 단계로서 어린 요셉에게 놀랄 만한 시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기적적인 또한 그 이후의 경험들을 통하여,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물론경을 고대 기록들로부터 번역하였고,
-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였으며,

-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는 인봉의 열쇠를 회복하였으며,
-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의 절정의 시대에 가르쳐졌던 것처럼 충만한 복음을 가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말일의 시대에 설립했으며,
- 성경 상의 예언을 성취하였고,
-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올랜도 성전을 돌아보는 동안, 저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내빈들에게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올랜도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복음이 회복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세주의 본래의 교회와 그것의 가르침을 잃어 버렸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일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는 진정 더 이상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증드린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말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 간증과, 전세계의 수백만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간증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참

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노력과 진실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경의 마지막 장에, 모로나이라는 고대 예언자가 거룩한 책을 언젠가 읽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의 약속은 진리를 진지하게 찾는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그는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 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라.”(모로나아서 10:4~5)

모로나이는 우리가 우리의 물음에 답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근본으로 곧바로 가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겸손하고 진실 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리와 그릇됨을 구분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구세주 자신이 그의 사도들에게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스럽게 숙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견주어 보십시오. 모든 진리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더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일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여러분이 받았던 느낌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대답에 귀를 기울인 다음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지상의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기쁨으로 축복하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고아와 과부들 - 하나님께서서 사랑하는 사람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의 구세주와 그분의 위대한 모범이 보여주신 권세와 다정함과 동정은 얼마나 훌륭한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또한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교회 회원들이 모인 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르간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 경건의 영이 그 모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어린이들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년쯤 되어 보이는 홀로 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문득, 이분들은 이차 대전 중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어떤 그룹들이 참석했는지 일어나게 하여 출석 점검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사회자가 ‘미망인들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깨어졌고, 그들의 삶은 변경되어졌으며, 그들의 미래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뒤에는 그들 각자의 슬픈 사연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대전 후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유럽을 방문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장로를 동반했던 프레드릭 더블류 바블은 신앙의 날개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둔 한 여인이 최근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젊고 잘생긴 그녀의 남편은 조국 프러시아의 동부에서 격렬했던 전투의 마지막 날에 전사했습니다. 그녀와 어린 자녀들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서부 독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길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했을 때, 기후는 온화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난민과 약탈을 일삼는 군인들에 대한 끊임없이 위협에 직면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눈과 얼음까지 동반한 추운 겨울까지 다쳐왔습니다. 그녀가 갖고 온 식량은 조금밖에 안되었지만, 그것마저 동이 났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회복한 복음에 대한 그녀의 강한 신앙뿐이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 한기를 느껴 잠이 깨었습니다. 세 살 짜리 딸아이의 작은 몸이 언 채로 가만히 누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얇은 무덤을 파고 자신의 사

랑스런 아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죽음의 그림자는 그녀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 죽었고, 이어서 다섯 살짜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여행의 끝이 가까워졌을 때, 끝내 젖먹이 아기가 그녀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과 집과 조국까지도 버렸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열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곤 당신을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황폐한 나의 영혼 가운데서도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분이 고통받고 돌아가셨으므로, 제가 저의 가족과 함께 다시 살 것이며, 그분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으므로, 제가 육신을 입은 저의 자녀들을 다시 볼 것이며, 그들을 기르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결합되어 다시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간증은 그녀가 목격자인 칼스루헤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실리는 사망 기사는 그렇게 참혹하고 극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초대받지 않은 원수가 적이 찾아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종종 우리들의 자녀나 손자들까지도 앗아갈 때 그 비통함은 누구에게나 비슷할 것입니다. 죽음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지만 몰래 모든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때때로 죽음은 오랜 고통 끝에 오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의 절정기에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심한 자들이 종종 다음과 같은 고대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왜 나에게? 왜 지금?" 다음의 찬송가 가사가 그 대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막고
분노나 악의로 마음 아플 때
어디서 내 영혼 찾을까
은밀히 답하고 이루어지니



철심인 장원화의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와 안셀 아브레아 장로가 다음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있을.

셋째마네 구세주 나의 친구
나의 간구에 평화 찾아 주니
늘 친절하신 분 끝없는 사랑

과부의 처지에 관한 것은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르밧의 과부에게 끌립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으며, 그녀가 갖고 있던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만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특히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각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의 위안의 말씀이 그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

니라.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의 과부는 나인의 과부와 유사합니다. 신약성서에는 슬픔에 잠긴 과부를 위해 연민으로 자비를 베푸신 주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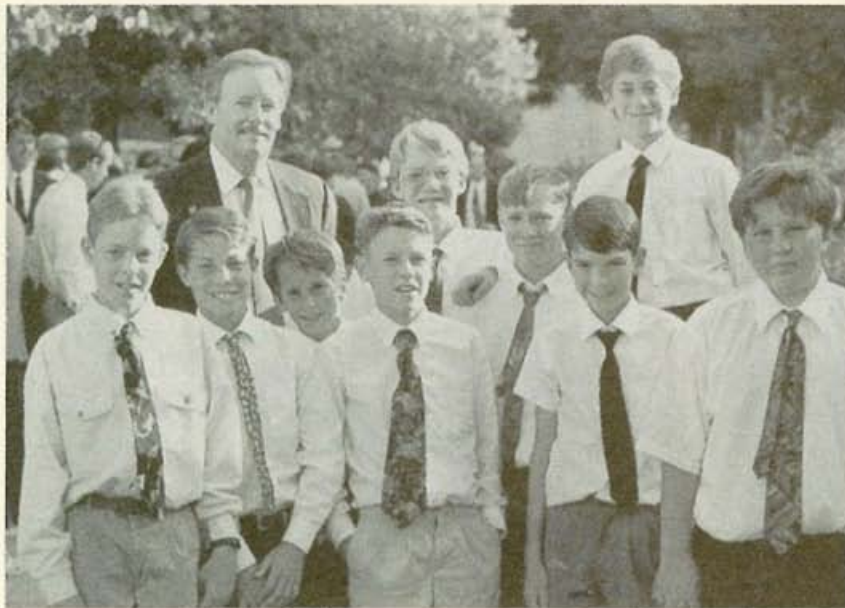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니, 멘 자들이 서는 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우리의 구세주와 그분의 위대한 모범이 보여 주신 권세와 다정함과 동정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귀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또한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어



디서나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를 볼 수 있는 눈과, 상한 심령과, 동정심으로 가득찬 영혼의 소리 없는 호소를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시력이나 청력으로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과부라는 말은 우리의 주님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길게 기도함으로써 의로운 척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⁶

니파이인들에게도 그러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러 심판할 때에, ...과부를 압제하는 자에게 속히 증거를 세우라!"⁷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창고는 교회의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리라."⁸

과부의 집은 일반적으로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것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대개 그 집은 계단 꼭대기나 골목 안에 숨어 있으며 단칸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분은 그와 같은 집에 여러분과 나를 보내십니다.

실제로 음식과 옷과 심지어는 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것들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혼을 먹이는 특별한 선물에 대한 희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자를 방문하십시오,
우는 자와 지친 자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친절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십시오!*⁹

장례식의 꽃이 시든 후에, 방문한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때를 기억해 봅시다. 종종 슬픔에 잠긴 이들은 혼자임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심대들의 소동과, 떠나간 동반자의 부드러움과 애성 어린 관심은 사라지고, 시계의 똑딱 소리는 더 크게 들리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사망의 벽은 마치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¹⁰

작고하신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님은 우리들이 명상하고 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훈계를 주셨습니다.

"젊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이 한 때 그들의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젊음을 도로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지원과, 적극적이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행복하고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도

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생은 세대를 거친 사랑의 봉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¹¹

오래 전에 심한 가뭄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찾아왔습니다. 웰퍼어 스퀘어 상점의 물건들의 질이 보통 때보다는 좋지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았습니. 생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과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감동으로서 와드의 많은 미망인들에 대해 걱정하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드렸던 기도는 저에게 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들이며, 그들의 필요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한 이 미망인들에게 그들이 의지할 물건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와드의 한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와드 내에 위치한 농작물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감독님, 제가 감독의 창고에 쌓아 둘 오렌지와, 자몽과, 바나나를 가득 실은 트럭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창고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모든 감독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것들은 모두 분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지 개척자이며, 창고 관리인인 제스 엠 드러리 감독은 전에 그런 일은 결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일을 한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멋지군요!"

그 관대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오늘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내렸던 결정은 그녀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과 영혼의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미망인들을 돌보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미망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사려 깊은 이웃들, 그리고 고귀한 여성들의 최고의 군대, 곧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리워 하는 분들에게 향한 여러분의 친절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고 방문한 상호부조회는,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돕고, 자선 목적의 수행을 목표로 합니다."¹²

미망인들의 찬장이 비워지지 않고, 집이 따뜻하지 않으며, 축복받지 않는 생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사려 깊고 사랑이 많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른 신권 청소년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하여 과부들을 모든 사교 활동에 참석하도록 주선하신 와드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미망인들의 필요 사항은 음식이나 집이 아니라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브라이언 리차드 부장은 부부 선교 사업을 하던 중 남편을 잃은 한 사랑스러운 미망인을 나의 사무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리차드 선교 부장은 그녀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녀가 교회 일반 선교사 기금으로 헌납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금은 남편이 생존시에 두 개의 생명 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은화하게 내게 말했을 때,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 남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장 액수가 많은 선교사의 기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수증은 그녀의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나, 그것은 하늘에 기록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녀와 리차드 부장을 교회 행정 빌딩 내의 비어 있는 대관장단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회의실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미망인을 교회 대관장이 앉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저는 대관장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큰 가족 의자에 겸손하게 앉아 양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오늘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리차드 부장과 제게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솔트레이크시티 이스트 7번 가를 따라 사무실로 갈 때마다 반드시 제 마음의 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한 사려 깊은 딸이, 이 복잡한 거리 건너편에 살았던 늙으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음식 접시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모친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범은 그녀의 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딸들은 매주 홀로 된 아버지의 집을 청소해 주고 있으며, 부친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그와 함께 웃음을 나누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 부친의 마음속에 늘 딸에 대한 감사가



남아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어느 성탄절 저녁에, 제 아내와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져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95세의 미망인 한 분을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우리는 넬 자매님을 식당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으나 그녀는 손을 빼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손을 뒤로 빼 버렸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녀의 시선이 고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직원은 미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 카드를 보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카드를 어루만지며 입맞춤도 합니다." 저는 그 카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내 프란시스가 지난 주에 넬 자매님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양로원을 들어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마스의 영을 느끼며 그 곳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생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감동케 한 그 카드의 비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하라"¹³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드러운 훈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까지 기다리거나 추수 감사절까지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분의 생각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과부, 부모를 잃은 아이, 마음이 외로운 자들은 어디서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받고, 지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¹⁴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이 안식 일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사로 주어지는 것이 간절하고 겸손한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예레미야 8:22
2. 환송가 1989, 62장
3. 열왕기상 17:12
4. 열왕기상 17:13-16
5. 누가복음 7:11-15
6. 누가복음 20:46-47 참조
7. 니파이삼서 24:5
8. 교리와 성약 83:6
9. *데저레트 주일학교 노래*(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선데이 스쿨 유니온, 1909), 197장
10. 마태복음 25:40
11. 리차드 엘 이반스, *백일 동안의 사색*(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 프레스, 1966), 222쪽
12. *교회 역사*, 4:567
13. 누가복음 10:37
14. 야고보서 1:27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현재 열쇠를 지니고 있는 분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르도록 강력히 권유합니다.



몇 달 전에 저와 아내 루스는 홀런드 장로 부부를 비롯한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매력적인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이드 장로의 이름이 새겨진 문을 찾아 다녔습니다. 열린 향신료 그릇에서 나는 길은 향내와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상인들의 소리는 마음을 들뜨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찾으러 세인트 세이버어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돌벽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복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돌벽의 일부는 십자군 전쟁 때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쪽 돌벽에 낡고 녹슨 열쇠 꾸러미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열쇠는 아주 컷습니다. 모든 열쇠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열쇠보다 컷습니다. 대부분의 열쇠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 열쇠를 이용해서 열었던 문들은 대부분 없어졌으며 있다 하더라도 너무 녹슬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금속으로 만든 그 열쇠들

과는 다른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열쇠는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왕국의 생명과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다수의 십이사도와 함께 하고 교회 기록을 따른다면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¹

또한 그는 “신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세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가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²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예언자 요셉에게 전하고 그를 사도와 구세주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하였으며 성역을 베푸는 열쇠를 갖도록 하셨습니다.³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와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의 열쇠 및 그토록 중요한 인봉의 열쇠는 1836년에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자에게 전해졌습니다.⁴

순교하기 전에 예언자 요셉은 예감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열쇠와 신권을 십이사도에게 수여하도록 명하셨다고 선언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은 모든 열쇠와 모든 의식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힘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만큼 빨리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이 남은 사람들을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⁵

윌포드 우드립은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과 축복사 하이람의 죽음을 알고 난 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브리감 영 회장을 만났을 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보스톤 거리의 보스 자매 집 맞은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브리감 영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였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울다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브리감 영 회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⁶

브리감 영이 나부로 돌아왔을 때, 요셉 스미스의 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이 브리감 영과 사도들의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브리감 영은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이 리그돈 장로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라신다면 그가 대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왕국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또 앞으로 영원히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언자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은 리그돈 장로를 택해서 십이사도 위에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십이사도가 그를 성임하여야 합니다.”⁷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브리감 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이어 다음 교회 대관상이 되었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도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서거에 따라 그렇게 대관장님이 되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교회 대관장의 계승자를 선택하는 데에는 신비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래 전에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선임 사도가 자동적으로 교회의 관리 역원으로 되며, 그는 대관장단이 없을 때, 교회의 관리 조직이 되는 십이사도 평의회를 지지를 받게 됩니다. 대관장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들과 교회 회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⁸

1994년 6월 5일에 왕국의 모든 열쇠를 총괄적으로 갖고 있던 십이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성전에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하워드 헌터 대관장님은 십이사도의 대변자가 될 고든 비



헝클러 부대관장과 함께, 십이사도에 의해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따라서 헨터 대관장님은 교회의 대관장과 합법적인 관리자가 되었으며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나눠주고 감리하고 집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들이 지녔던 열쇠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셨던 열쇠, 그리고 그들이 예언자 요셉에게 주었던 열쇠들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들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모든 영적인 문을 열 것입니다. 그것들은 현재 하워드 더블류 헨터 대관장님과 대관장단의 보좌들 및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봉사하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상에 존속될까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왕국의 열쇠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와 사도의 열쇠를 요셉 스미스에게 주셨을 때 또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들을 인자가 올 때까지 지상에 머물도록 요셉 스미스의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요셉 스미스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얹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열쇠를 죽을 때까지 지녔습니다. 그런 후 다음 차례로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들은 윌포드 우드럽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나는 말일성도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그것들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 열쇠들이 제 머리 위에 아주 짧은 시간밖에 머무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다른 사도의 머리 위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도의 머리 위에, 그런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인간을 그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단 하나이며 그분

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인 하워드 더블류 헨터 대관장님과 대관장단의 보좌 및 십이사도 정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다른 조직들은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왜 이 영적인 열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들 영적인 열쇠는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을 집행하고, 회개 및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특권과 권능”¹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성역에 관한 열쇠는 아론 신권의 권리입니다.¹¹ 더 높은 멜기세덱 신권은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¹²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행위는 유효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당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그 열쇠의 권능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모든 일을 지시하는 권능과 권세는 신권의 열쇠의 구성 요소입니다. 신권의 열쇠를 지닌 사람들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교회 업

무를 감리하고 지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권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필요할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온 원리는 계시의 원리입니다. 교회 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역을 관리할 열쇠를 부여받은 살아 있는 예언자가 있어 왔습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가 없는 교회와 하나님 왕국이 성장할 수 없고 변영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리용의 시민이었던 발데시우스는 1170년에 사도의 인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추종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는 주로 리용과 그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전도했으며 성경의 일부를 모국어인 불어로 번역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뉘퓌쵸를 지어 성경의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피에드몽 계곡에 살기 위해 알프스 산맥의 높은 산들을 넘어갔습니다.¹³

발데시안 또는 왈도 교도라고 알려지게 된 이 용감한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한 반대자들로 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통나무에 묶여 화형되고, 생매장 당하고, 돌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병균이 득실대는 지하 감옥에 넣어지고, 바위 산과 험준한 산과 얼음으로 덮인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를 지녔던 초기 사도들에 대한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독재자의 전군대도 꺾으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1655년에 그들의 대지주였던 사보이 공작은 그들에게 발데시안과 관계를 끊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학살은 마침내 주변 국가의 몇몇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이었습니다. 이 사악한 행동에 반감을 느낀 존 밀턴은 “피에몽의 대학살”이라는 소네트를 썼습니다.

오, 하나님, 복수하소서. 학살당한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뼈가 차디찬 알파인 산 위에 흩어져 있나이다.¹⁴

1850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평의회는 일원이었던 로렌조 스노우 장로는 피에드몽의 보드와를 방문하기 위해 라투어 부근의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와 그의 두 동반자는 불쑥 튀어나온 바위 위에 서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았으며,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성스러운 사도의 열쇠가 회복되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상에 진실로 살아 있는 사도와 예언자가 있음을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믿고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알파인 산속 계곡에 사는 왈도 교도들과 함께 한 경험으로 감동되어 스노우 대관장님은 감동적인 찬송 가사를 쓰셨습니다.

영광의 시은 세우신 하나님 찬양하세 시
은으로 말미암아 우릴 강하게 하시네¹⁵

존 다니엘 멜런이 1850년 10월 27일에 침례를 받고 첫 보드와인 회원이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카르돈 가족, 스틸스 가족, 보이스 가족, 폰스 가족, 멜런 가족, 가우딘 가족, 캐털레인 가족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1850년대 초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첫 번째 손수레 부대에 속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미 서부에서 잘 알려진 집안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중에는 라슨가, 모건가, 크로켓가, 마이너스가, 버지니스가, 태처가, 스티드스가, 파킨슨스가 등이 있습니다.¹⁷ 보드와 산 줄기에 속했던 사람들의 후손중 많은 이들이 새로 회복된 교회의 포도원을 돌보았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들처럼 사도들이 결코 녹슬지 않는 열쇠를 지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현재 열쇠를 지니고 있는 분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따르도록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서 우리 시대의 희망을 결정짓도록 해 줄 분들입니다. 저는 모든 회원들이 영적인 불순종을 부당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 복음 원리나 경전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예언의 목소리를 가진 분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약과 의식의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고처럼 교회의 경전과 교리는 “사사로이 풀 것”¹⁸이 아닙니다.

현세적이고 영적인 위대한 힘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적인 힘과

능력은 주님의 살아 있는 특사들이 가르치는 영원한 원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를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역사적인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일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는 저는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들 사이에 완전한 단합과 사랑과 상호 존중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헌터 대관장님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을 대관장단으로 완전하게 지지합니다. 대관장단에 대한 이 완전한 단합과 지지의 감정은 지난 화요일에 솔트레이크 성전 안에서 십이사도를 대표하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드려났습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이신 렉스 디 피네가 장로님과 관리 감독단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감독님과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관리 역원들 역시 패커 회장님과 같이 대관장단과 서로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치 단결 가운데서는 지옥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청녀 일지*, 1906년 12월호, 543쪽; 또한 *엔사인*, 1994년, 6월호, 15쪽 참조
2.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48쪽; 또한 마태복음 17:1~3 참조
3.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4. *교리와 성약* 110편
5.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I*, 브루스 알 백공기 편, 3권, 243쪽
6. “*왕국의 열쇠*”, 밀레니얼 스타, 1889년 9월 2일, 546쪽
7. *교회 경사*, 7:233
8. *구원의 교리*, 3:156
9. *밀레니얼 스타*, 1889년 9월 2일, 547쪽
10.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제5판, 130쪽
11. *교리와 성약* 13편: 107:20
12. *교리와 성약* 84:19
13. 기오지오 톤, *왈도 교도: 처음 800년간*, 카밀로 멜리노 번역 (토리노: 클라우디아나, 1980년) 3~4쪽 참조
14. 아키발드 에프 베네트, “*왈도 교도를 제방 문합*” *임프린트 이라*, 1948년 1월호, 12쪽
15. 같은 책, 같은 쪽
16. *찬송가*, 1989년, 35장. 켈리카 디 헤만스에 의해 쓰여진 원 제목은 “*박해의 시대의 산을 타는 왈도 교도의 찬송*”이었음, 에드워드 슬론에 의해 말일성도 찬송가에 개작됨
17. 아키발드 에프 베네트, “*알파인 계곡의 왈도 교도와 유타 및 말일성도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공헌*”, 학생 논문, 브리검 영 대학교, 1960년, 역사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9, 16쪽
18. 베드로후서 1:20

깊은 뿌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종교와 그 원리에 따라 살고,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인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을 이 경륜의 시대의 14대 대관장님으로 지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분은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지지하며 그분의 영감받은 지도력과 또한 훌륭한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아내는 하와이 제도의 몰도카이 섬에 갔다가 바람에 쓰러져 뿌리째 뽑힌 아주 큰 두 그루의 나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나무들은 뿌리가 무척 알았습니다. 저는 만약 그 나무들의 뿌리가 좀 더 깊었다면 그 세찬 바람과 폭풍우에도 건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거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아한 야자수는 보기에는 멋 있지만 뿌리가 약해서 강풍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대한 떡갈 나무는 자기 키보다 두 배 반이나 뿌리를 뻗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도 떡갈나무를

답아서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단순하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뒤엎히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불어오는 유혹과 거짓 교리와 역경과 사탄의 맹공격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기반을 확고하고 뿌리 깊게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표토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회원들은 그 부드러운 표토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이르도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적인 양분은 우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균형 잡힌 식생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성탄을 취하고 매일 경전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정규적으로 성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웁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축전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충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자주 재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복음의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전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후손으로서, 그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의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발전하여 최고의 가능성에 이르고 또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도록 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들과 영광 사이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다 지적인 분이므로, 율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발전할 수 있게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

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교사요,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장자며 육신으로는 독생자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²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의 일부로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또 만일 죄지는 자가 회개하면 공의의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죄의 고통을 풀이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범법에 대한 고통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문자 그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부활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주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순종하는지 증명해 보일 장소로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무수히 많은 다른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만사에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교회 이름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의 예언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³

그분은 또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철심인 정원희의 본 재이 페더스트론 장로(왼쪽)와 앨버트 홀스 이세 장로가 대회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음.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⁵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은 신화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대로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⁶입니다. 성신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정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는 계시자요 교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택과 결전을 내리는 모든 경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며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잘못 인도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또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위로자이십니다.

또 다른 실재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가 가진 두 가지 이름은 루시퍼와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선한 것의 적대자입니다. 그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며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⁷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⁸

그때로부터 사탄은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속셈으로 인간의 영원에 대한 전투에서 계속 악의 군대를 지휘해 왔습니다. 물론경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며, 간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비롯하니, 악마는 하나님의 적이라. 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며 죄로 인도하고 유혹하여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무엇보다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⁹

이 세상에 퍼져 있는 타락, 부정직, 싸움, 불화 및 다른 악행들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행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벌여 온 무자비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혼동시키며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그에게는 돈을 위해서는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의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핵심 원리는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릇된 생각 중 하나는 성적인 문란함이 정상적이고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사실상 성적인 문란함으로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서 질병의 만연, 낙태, 결혼 가정, 아빠 없는 가정, 어린 미혼모 등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에зра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이 세대를 파멸시키는 죄는 성적인 부도덕”¹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¹¹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정상적인 성행위, 즉 간통이나 동성애적 행위나 어린이 성 희롱 또는 그 밖의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왜곡시키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힘과 신체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복음 원리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33년에 이 계시를 받은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건강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믿었

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점차
 궤변화되고 영향력이 커져 가던 대중 매
 체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 지혜의 말씀을 자주
 강력하게 강조하도록 영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담배와 기타
 중독성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독약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선교 사업을 통해 다른 사
 람들에게 나아감으로써 구세주께서 명하
 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¹²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의 비유를 통해
 초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
 르쳤습니다. 주님은 “보라, 밭은 무르익
 어 추수할 때로다. 그러므로 추수하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힘을 다하여 낫질
 하여 날이 다 가기 전에 거두어 자기의
 영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구원을 쌓아 돌지이다.”¹³라고 말씀하
 셧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전세계 인구에 비해 아직
 도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
 는 모든 교파, 당파, 종파 가운데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므
 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
 는 자들이 많”¹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신앙개조에 나오는 우
 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
 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
 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
 다.

선교사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침례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 자신의 간증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선
 교 사업을 통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
 장 훌륭한 기반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합
 니다. 복음 속에 깊이 박힌 그들의 뿌리
 는 이 생과 영생에서 그들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¹⁶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책
 임을 완수하기 위해 부부 선교사를 포함
 한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로 합니
 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해 모
 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계시된
 것을 가르치고 준수해야 하며 소위 신비

스러운 것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
 니다. 저는 와드나 스테이크, 교회 대학,
 신학 연구원, 세미나리 등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는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
 는 부모들에게까지도 경전의 가르침과
 말일의 예언자의 말씀에 의거하여 가르
 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게 하신 “이제부터 ...모든 교훈의 풍조
 에 밀려 요동지 않게 하려 함이라”¹⁷는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
 밖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거짓 교리의 풍
 조는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지진
 이나 강풍이나 태풍이나 화산 폭발 또는
 다른 자연 재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
 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은 구원의 반
 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르
 침에 단단히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이 어
 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종교와 그
 원리에 따라 살고, 예언자요, 계시자인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항
 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
 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밖에 없
 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
 라.”¹⁸

주님은 이 땅을 그분의 교회를 회복
 할 장소로 남겨 두셨습니다. 주님의 뜻
 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이 땅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원리들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
 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이 땅
 의 핵심이 되는 기조를 공격하고 있습니
 다. 이 땅에 대한 주님의 율법은 물론경
 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는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준
 비하신 땅으로...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
 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
 을 쓸어 없앨 것이요.”¹⁹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입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의 참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간증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왕좌
 왕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신앙과 강한 의지와 그리고 옳고 그른
 것 및 선악의 차이를 알고 분명하게 구
 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
 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회원들
 각자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
 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개인적
 인 권세를 줍니다.

인생의 과정이 힘들어지고 슬픔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지라도 우리 구세
 주로부터 나오는 빛은 우리를 낙담시키
 지 않고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자기 수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으며 또 다스리게 될 것입
 니다.

제 말을 끝맺으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방
 식으로든지 교회의 입장의 타협하지 않
 으며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
 리스도의 신성함을 확고하게 간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로카이 섬에
 서 보았던 그 큰 두 그루의 나무를 잊
 지 맙시다. 그 나무들은 뿌리가 튼튼하
 지도, 깊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풍을 이
 겨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의 원리 속에서 평
 화와 안전과 기쁨 및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
 지가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
 을 압니다. 그분들은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
 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하워드 더
 블류 헌터 대관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
 셧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
 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4쪽
2. 모세서 4:2
3. 아브라함서 3:25
4. 마태복음 7:24~27
5. 교리와 성약 6:34
6. 교리와 성약 130:22
7. 모세서 4:1
8. 모세서 4:3~4
9. 모로나이서 7:12~13, 16~17
10. 에즈라 테프트 뎀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레프트사, 1988년, 277쪽
11. 교리와 성약 59:6
12. 마가복음 16:15
13. 교리와 성약 6:3
14. 교리와 성약 123:12
15. 신앙개조 11조
16. 교리와 성약 42:58
17. 에베소서 4:14
18. 교리와 성약 82:10
19. 이더서 2:7, 9 참조

어린이를 가르치라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
본부 초동협회 회장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구세주이시며 안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터 대관장님, 핑클리 부대관장님, 몬슨 부대관장님, 교회의 초동협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아 제가 느끼는 책임감과 기쁨, 감사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스틴 장로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으며 저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제가 영국의 런던 남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했던 큰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피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위는 온통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집 정원과 이웃, 영국 남부 전역에 걸쳐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가 버렸습니다. 쓰러진 나무의 거대한 뿌리가 손상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길이 쉬웠기"(엘마서 37:46) 때문에, 즉 영국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해 땅 속 깊이 뿌리를 박을 필요가 없었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들은 거센 비바람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또 깊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라는 거대한 삼나무들 역시 뿌리를 매우 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아무리 강하고 격렬한 비바람이라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삼나무의 뿌리들이 함께 뒤얽혀서 서로를 튼튼히 지켜 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닥칠 때 그것들은 실제로 서로를 떠받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러한 삼나무들과 같았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보살핌과 가르침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뿌리를 제것과 함께 얽히게 하고 말씀과 실생활의 본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써 저로 하여금 확고히 서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시고 잘못을 항상 고쳐 주지만은 않으셨던 것에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곧 89세가 되시며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제게 다음과 같은 경전의 충고대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교리와 성약 121:41, 43)

저의 삶에서 가장 단단히 얽혀 있는 뿌리는 승고한 의로움을 지닌 저의 동반자이자 남편인 에드의 뿌리입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히 대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헌터 대관장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보이며 저를 격려해 왔습니다.(앤서인, 1994년 7월호 4쪽)

제 뿌리의 일부분이자 삶에서 희망의

빛인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기쁘게 높이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행복한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17명의 손자들 중 13명은 초동협회나 그 이전의 연령입니다. 그 애들은 제게 초동협회와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귀중한 오른팔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르는 때에도 용서로써 저를 강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 외에도 제 삶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의 재닛 시 헤일즈 회장님, 지혜와 통찰력을 나눠주셨던 역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미셸린 그레슬리 자매님, 베티 조 켈슨 자매님, 루스 라이트 자매님과 본부 초동협회의 모든 역원들께, 교회의 모든 회원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지지하지 않는 수고와 희생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살 내지 열한 살 쯤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자란 하와이 와드의 초동협회 오르간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초동협회에서의 기억들 중 가장 생생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 때 매우 초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동협회 교사님들께서 제가 하는 실수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셨음을 더욱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지역 사회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안전한 장소에서 저는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았으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영국의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그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길 봐요." 제가 돌아보니 한 어린이가 도로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제게 "누가 저 아이들을 가르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것입니



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정말 응답해 주실까요?” 라고 묻는 어린이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다섯 살 된 케이트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라고 질문할 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이후로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해 왔습니다. “아버지시여,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옵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안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예인자이신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매번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용기 있게 그 답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보다 더 자주 기억해야 하며, 지

금보다 더 용감하게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엔사인, 1994년 9월호 5쪽)

어린이들이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을 시기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됨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있게 되겠지만, 성신의 잔잔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하시는 행복의 계획의 모든 진리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영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소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자녀가 여덟이나 되었으므로 가정의 밤이 부모에게 있어서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포기하지 마십시오!) 등 교실 안에서, 예배실에서, 이웃에서 가르침을 위한 다른 기회들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 각자가 굳건하고 의지할 만한 소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간증과 신앙, 사랑, 친절함과 인내의 뿌리를 모든 어린이들에게 내려 얹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뿌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서 견디기엔 아직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 모든 부모, 교사, 지도자, 젊은이들, 형제자매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저는 회장단의 지침과 앤 워스런 자매님, 수잔 워너 자매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잠언 11:14) 저희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며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가르치고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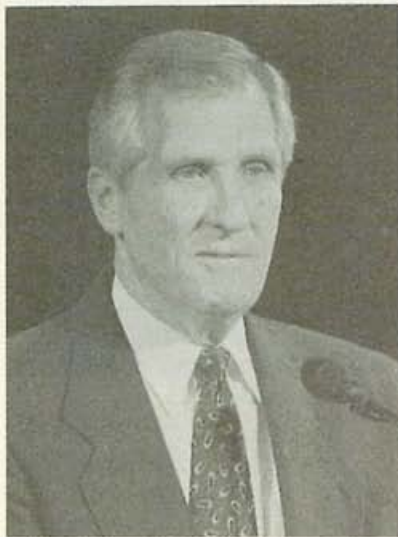
전세계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의 품에 안긴” 느낌을 갖기를 바랍니다.(니파이서 1:15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듣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거대한 삼나무들처럼 서로를, 특히 어린이들을 지탱하며 강하게 한다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라도 우리는 분명 서로를 단단히 받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간단한 일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정원회

현재 자매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간단하고 쉬운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곳에 참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에 귀기울인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 새로이 부름받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를 한동안 떠나실 분들에게 직별 인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이 행해 왔던 가치 있는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터 대관장님, 저도 모든 칠십인들처럼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과 그분의 예언자로서의 대관장님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67년에 그분의 사무실로 가서 새로운 부름에 성별받을 때였습니다. 저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잠시 토론한 후 그분이 "피네가 형제님, 우리는 이 부름에 봉사할 어떠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부름에 어떤

잘못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하고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분은 교회 본부 건물 앞을 지나가는 교회 회원 중 백 명을 세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같은 부름에 봉사할 수 있고, 또 가까이 봉사할 것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좋습니다, 피네가 형제님. 어쨌든 성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을 때, 저는 헌터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저를 가정 복음 교사로 성별하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맡은 부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재확인시켜 주는 자세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의 가정 복음 교사에 대한 헌터 대관장님의 말씀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단한 메시지에 관한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업은 주로 자그마한 친절 행동을 통하여 성취되는데 그런 행동들은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본보기가 됩니다. 간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은 항상 주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묘사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열왕기하 5:1)

왕의 지시를 받고 나아만은 자신의 무서운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예언자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

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차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선지자여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던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열왕기하 5:9~11, 13, 14)

우리도 때때로 나아만처럼 크고 중요한 일은 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까?

헌터 대관장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노변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이나 혹은 앞으로 다가올 해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도움이 되는 만큼" 1990~1991 브리검 영 대학교 노변의 말씀, 프로보: 비 와이 유, 1991년, 6쪽)

다른 모임에서 헌터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하려면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정구적이고, 일관성 있고, 작고, 때로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단계를 항상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참된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1986~1987년 브리검 영 대학교 노변의 말씀, 프로보: 비 와이 유, 1987년, 115쪽)

주님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도 작고 간단한 행동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원리를 인생의 작은 행위와 의무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서 언급한 몇 가지 일들이 작

고 사소한 것이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다. 인생이란 결국 작은 일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작은 심장 박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작은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위대한 태양은 이 우주에서 큰 힘을 지니고 있지만 작은 광선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작은 빛은 모두 함께 와서 온 세상을 햇빛으로 가득 채워 줍니다. 어두운 밤은 작은 별과 같은 희미한 불빛으로 아늑해 집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가정이나, 정원이나, 조직이나, 또 우리가 생활하고 봉사하는 어느 곳에서나 수행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행동으로 이루어 집니다.”(1914년 10월 대회 보고, 87~88 쪽)

우리의 가정에서 구세주의 간단한 메시지에 따르는 가르침과 생활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 자신은 발전하고, 우리 가족은 강화되며, 우리가 속한 사회에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헌터 대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전인 가정의 점진적인 붕괴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첫번째 방어선은 가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일찍이 개발된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가치관을 만들어 줍니다. 누군가가 "어린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이들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하임 지 지노트)

저는 십대 소년이었을 때, 주택의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 밑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가 그 자체로는 기초가 될 만큼 충분치 못한 매우 단순한 요소로 혼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래 알갱이와 자갈과 물과 시멘트 가루를 적절한 순서와 비율로 함께 섞으면 아주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독특한 물질이 만들어 집니다. 콘크리트를 배합한 후 몇 시간 동안은, 원하는 모형에 갖다 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굳기 전에는 조그만 새가 부드러운 표면을 뛰어 지나가지만 해도 자국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코끼리가 그 위를 걸어가도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 단단해 집니

다.

적절히 혼합된 몇 가지 간단한 요소들이 집을 지을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간단한 복음의 가르침들은 서로 결합하여 우리의 삶에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를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작은 것들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에 뿌린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는 그대로 두면 실제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만약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옮긴 몇 발자국을 방치하거나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파괴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들은 작은 것들을 대단치 않게 여길 때 생겨 납니다.

나아만의 경우처럼 우리는 예언자들로 부터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고, 영적인 고통을 치유하고, 생각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간단한 지침들을 받아 왔습니다. 부모들은 매주 하루 저녁을 할애하여 자녀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치도록 권고 받아 왔습니다.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교회 조직도 부모를 대신하여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확고한 기초를 쌓는 이 가장 신성하고 필수적인 일을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가정의 밤 교재: 사랑은 집을 가정으로 만듦, 1974년, 2 쪽)

잘 준비된 가정의 밤을 충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해외 왕국에서 영원히 가족과 함께 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대관장단, 가정의 밤, 1978년 2쪽)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은 이러한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구세주께서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일은 매일마다 가족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몸소 “너희가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 21)고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뜻을 행할 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가족 구성원은 모두 공동의 방향과 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일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진지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께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가 함께 물몬경을 충실히 읽고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 자녀들을 우리와 주님께 가까이 둘 수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6쪽 참조) 또 그분은 우리가 물몬경 안에서 “큰 권세와, 커다란 위안과, 커다란 보호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우리가 주님께 관한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 우리 가정과 마음속에는 화평스런 진리와 신앙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물론경을 읽는 것은 그런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물론경에서, 예언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으며, 물렸을 때는 낮게 하는 방법도 준비해 두셨으니 이는 바로 쳐다보는 것이라. 그 방법이 극히 간단하고 쉬워 도리어 죽은 자가 많았더라.”(니파이일서 17:41)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간단하고 쉬운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부모님들이 밖에서 하는 일을 한 가지만 포기하고 그 시간과 재능을 가족에게 내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90쪽)

미합중국의 제2대 대통령의 손자인 찰스 프란시스 아담스는 성공적인 법률가였고, 하원 의원이었으며, 영국 주재 미 대사였습니다. 말은 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하러 갔다—하루를 낭비했다!”

똑같은 날, 찰스의 아들, 브룩스 아담스는 그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갔다. 내 일생에 가장 훌륭한 날이었다.”(스코트 워커 인용, *테일리 가이드포스트*, 1994년)

헌터 대관장님은 “종종 간단하고 평범한 일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칩니다.”(참된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1986~1987년 브리감 영 대학교 노변의 말씀, 노변의 말씀, 115쪽)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이 요구하는 간단한 일을 함으로써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고, 또 구세주를 쫓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받도록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랜스 비 워크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전은 구원에 대한 열쇠이고... 감사의 장소이며, 교훈의 장소이자, 이해의 장소입니다.



저는 삼십 여년 전의 어느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와 아내인 패트리샤는 결혼한지 이 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오아후 북쪽 해안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병 장교인 소대장으로써 하와이의 스코필드 배럭스 소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희 여단은 베트남 참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자정 이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친절한 말일성도 친구가 밤 11시에 저를 비행장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와 패트는 저희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서로 손가락을 짚끼고 앉아서 숙명의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계 바늘을 바라보며 해안으로 밀려오는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메트로놈(박자 측정기)처럼 여겨졌으며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바다 소리와 고통스럽게 대조되었습니다. 작별

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에서 저의 신부를 가슴에 꼭 껴안고 마지막 키스를 한 뒤 출발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 하는 이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게 암흑과 같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오아후에 있는 사당수수와 파인애플 밭 사이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마음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스코필드를 지나갈 때 야간 훈련을 하던, 우리 눈에는 띄지 않는 보병 소대에서 조명탄을 쏘았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 주었으며, 암흑 속에서 영적인 불을 당겨 제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가장 슬픈 그 순간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패트와 제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서로에게 인봉 되었던 12월의 어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맺었던 영원한 성약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패트는 언제나 내 아내라는 생각이 마치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저를 비쳐 주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패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되살아난 희망적인 마음, 그리고 신앙과 이해에서 우리나라 화평의 힘으로 우리는 마지막 작별을 하기 전에 평온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막 자정이 되었지만 제겐 이미 해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는 해가 지듯이 육신으로서 메시아의 성역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 예루살렘의 붕괴와 자신의 재림 전에 일어날 대변혁을 예언하

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고대와 현대의 제자들에게 “그때에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서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요셉 스미스서 1:12, 또는 마태복음 24:15 참조)라는 놀라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말일의 계시들은 이것에 대해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 줍니다. 그 계시들은 불화와 대변혁과 역병 속의 우리 시대에 시온과 바빌론이라는 두 개의 왕국이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한 격렬한 전투에 참가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수차례에 걸쳐 계시는 마지막 날의 격동 속에서 피난처로 “거룩한 곳에 서 있”(교리와 성약 45:32; 또한 87:8; 101:16~23 참조)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장소” 중에서 핵심이 되고, 또 다른 모든 것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시온”과 “성전”이라는 단어는 같은 문장에 함께 쓰입니다. 1833년 8월에 성도들이 많은 박해에 맞서서 미조리주 잭슨군의 시온으로 불리는 장소에 집합할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그 곳에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교리와 성약 97:12 참조) 주님께 바칠 집을 한 채 짓도록 권고 받았습니 다. 성전은 감사의 장소이며, 교훈의 장소이고, “일체의 일”에 대한 이해의 장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쇠입니다.(교리와 성약 97:12~14 참조) 만일 그 안에 들어오는 이가 깨끗하고 합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이 따릅니다.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애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7:16, 21) 마음이 청결한자인 시온을 위해 성전은 거룩한 곳 즉, 기쁨의 장소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베트남 전쟁 때, 아내에게 두 번이나 더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내와 저는 다섯 살 난 아들이 장막 저편으로 건너갈 때, 함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딸을 이 세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축복사이자 성전 인봉자인 한 친한 친구의



현명한 안목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랜스, 내가 받는 즐거움은 단지 성전에 있는 것 이상이라네. 성전이 내 안에 거한다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떠날 때에도 그 평화는 나와 함께 한다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로운 영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과 개인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한다면 성전은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늘 거룩한 곳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다음과 같이 시온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3)

우리 스테이크가 샌디에고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던 날, 저는 딸과 아들들 데리고 해의 왕국실로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인 패트가 합창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가 함께 한 것처럼

그들은 이사가 영감으로 기록했고, 또한 말일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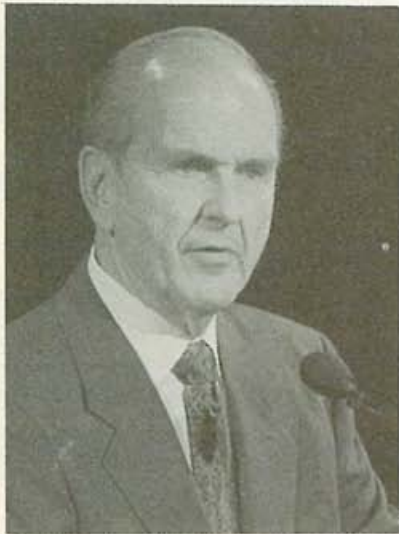
높은 산 언덕 위 깃발은 날린다
은 땅위에 덮이니 만백성 보네
꿀벌의 땅 평화의 곳
시온의 언덕 위에 서 있네!
(찬송가, 1989년 2장)

패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과거의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집에 들어갔던 아름다운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제 가까이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해의 왕국의 느낌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가 거룩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래 전의 그 어두운 밤에 느꼈던 것과 같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엘리아의 영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에서 같이 봉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가족 활동입니다. 그것은 이 독특한 사업의 참됨을 확인하게 해주며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사랑하던 총관리 역원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님, 스테럴링 더블류 실 장로님 및 클링턴 엘커틀러 장로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장막 저편의 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전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김블 대관장님은 “이러한 선교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지상에서 의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다음 달이 유태주의 계보 협회 100주년이라는 사실이 결부되어 “엘리아의 영”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금상첨화로서 이 백주년 기념일은 한때 그 협회를 관리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집에 가도록 권고하시는 하워드 더블류 헌

터 대관장님의 생일과 거의 일치합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

모든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풀셨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 선교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이 영들을 위한 침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요구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그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말일의 계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질문은 수수께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말일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모로나이 천사⁷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을 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아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요셉은 모로나이의 가르침을 그와 비슷하게 엘리아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말라기의 예언에 견주었습니다.¹⁰ 우리는 말라기가 약속했던 이후로 엘리아가 최소한 두 번이나 돌아왔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그 산에서 엘리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¹¹ 그리고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와 올리버 카우드리

에게 나타나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의식을 너희 손에 맡기노라.”¹²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신권의 권능을 받아 관리하며 잃어버린 간절하고 진귀한 진리를 회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¹³ 그러한 교리 중 하나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지식으로서 약속된 “만유의 회복”¹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몇 년 전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살 동안 침례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영원히 그런 기회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까? 죽은 자를 위해 수행되는 대리 침례에 어떤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의 가장 훌륭한 모범은 아마 주님 자신일 것입니다. 그분은 대리적인 속죄로서 그의 생명을 바치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지상에서 의식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헌터 장로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인봉되도록 죽은 자를 위해 침례뿐만 아니라 엔다우먼트와 인봉까지 수행됩니다. 가족 단위의 인봉은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고 통합하는 것은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있었던 기록한 계획이었습니다.”¹⁵

이러한 헌터 대관장님의 전형적인 말씀은 우리 자신의 가족을 위한 성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 우리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¹⁶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행하는 이 고귀한 봉사야말로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친절 중 가장 숭고한 행위의 하나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성전 사업

아담의 시대부터 절정의 시기까지 성전 의식은 산 잔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구세주의 속

죄와 영의 세계의 성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¹⁷

커틀랜드 성전이 설계될 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헌납식이 있는 지 일주일 후,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성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¹⁸ 그런 다음, 주님의 인도 하에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특정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었습니다.¹⁹

5년 후,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는 저들 곧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을 침례반이 이 세상에는 없음이라.”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하여 있어”²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주님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너희가 이 일[죽은 자를 위한 침례]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죽은 자와 더불어 교회로서 용납되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²¹라고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나부 성전은 화재로 파괴되었지만, 그것의 성스러운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계보 기록

전 세계의 회원들은 성전에서 사용될 가족 기록을 충실히 준비합니다. 성전에서 의식이 수행될 때, 더 상세한 기록이 요구되는데, 이는 주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때에는 한 사람의 기록계를 두어 저로 하여금 너희가 받는 침례의 목격자가 되게 하며...

“너희가 기록하는 바는 모두 하늘에서도 기록되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²²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교리는 예언자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²⁴ 그도 이전의 예언자들과 똑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죽은 자에 관한 바로 이 문제를 심사 숙고하[면서]... 저가 선언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였느니라.”²⁵

그런 다음 요셉은, “너희가 땅에서 기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기록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죽은 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²⁶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야와 신권 권능의 열쇠

1844년에 요셉 스미스는 “엘리야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후, 즉시 자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받을 때, 죽은 자를 구속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권능이며, 여호와와 왕국의 열쇠입니다.”²⁷

우리들 중에는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²⁸라는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책임은 이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²⁹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세부 지침은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189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우드럽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일성도들이 그들의 족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하여 조상들에게 인봉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인봉시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뒤로 연결시켜 가십시오.... 이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³⁰

유타 계보 협회 창립 100주년

1894년 4월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해 11월 13일에 유타 계보 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조직의 목적은 “계보 사업을 위한 도서관을 세우고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올바른 가족 기록을 작성하고 가계도를 만들며 성전 의식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³¹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가족 기록 연구와 성전 의식을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

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있으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 회원들과 특히 계보라는 용어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회원들에게 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 역사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분주히 많은 일을 해내는 2,150개의 가족 역사 센터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 있는 계보 센터에는 수십만 명의 방문자가 오는데, 그 중 최소한 2/3는 컴퓨터 화일 안에서 자신의 조상에 관해 무엇인가를 얻어 갑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서관과 가정에서 개인 조상 화일이라는 교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삼십만 부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계보 연구자들이 우리의 계보 사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성전 준비라는 프로그램은 개인용 컴퓨터로 성전 의식용 이름을 편리하게 즉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넬슨 자매와 더불어 우리 가족은 조상들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온 성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새벽에 자주 갑니다. 보통으로 한 시간 안에 예비 의식이 끝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곧장 학교로, 어머니들은 짐으로, 아버지들은 직장으로, 제 시간 안에 갑니다.—엔도우먼트나 인봉 의식을 할 때에는 시간이 가능한 성인들이 저녁 일찍 모여서 의식을 가집니다. 그런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받은 의식에 대해 기록하고 아내가 만든 음식을 즐깁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에 올 수 없는 한 러시아 개종자의 조상들을 위해서도 성전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러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이 헌신적인 개종자는 그의 족보를 저희 아들에게 맡기며 조상들의 성전 의식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자들이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에서 러시아식 이름을 읽을 때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참여자들이 기쁨을 느끼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같이 봉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가족 활동입니다. 그것은 이 독



특한 사업의 참됨을 확인하게 해주며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개인적인 선택권, 책임, 개인적인 자유

그러한 성전 사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대리 의식의 원리는 장막 양쪽에 다 존재합니다. 장막 저편 영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³² 모두가 이 의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의식을 받아들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전은 이 대리 의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과³³ 회개와³⁴ 순종이³⁵ 필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장막 이전의 세상에는 시간적인 제한과 성전 참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조상을* 알아내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엘리야의 영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조상과 연결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³⁶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이 수행된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감정이 상해 있는 분들도 계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권의 열쇠를 회복해 주셨고, 또 그분을 분명히 그분의 어떤 자녀도 마음이 상하기를 바라지 않으심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반대로 그분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려 하십니다. 이 교리와 의식은 사랑으로

충만하며 모든 관계 중 가장 훌륭한 관계, 즉 영원한 가족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염려들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대관장단은 가능한 한 사생활 권을 보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1972년에 대관장단은 "적게 조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제출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지난 95년 안에 태어난 사람의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의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³⁷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우선권과 사생활 권을 상기시켜 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교회 지도자들은 아낌없이 선한 마음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계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교회의 가족 역사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들은 계속 확장되는 계보 기록에 가치 있는 기록들을 추가해 주도록 권유받습니다.

봉사의 기회

최근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우리 모두 성전에 참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성전에 배를 통해 얻는 개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둘러 성전에 갑시다."³⁸

헌터 대관장님의 권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손쉽게 기록을 구할 수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제출하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음을, 또 가능한 곳에서는 정규적으로 성전에 갈 수 있음을 상

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지 얼마나 많이 해야 할 지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능력과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 및 영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 우리들 각자는 중요한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가족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기억들이 즐거운 가족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임을 덧붙입니다. 이 세상의 하루하루가 조금은 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동반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장막 양쪽의 가족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생 동안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³⁹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운 방법과 때에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⁴⁰

인간은 이런 성스러운 사업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이며 엘리야의 영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의롭게 주께 재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성전[에]... 주께서 모두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바치자."⁴¹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받을 것이며 시온 산의 구세주도 축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교리와 성약 138:57
2. 엔사인, 1977년 1월, 3쪽
3. 열왕기하 2:15
4. 요한복음 3:5; 또한 마가복음 16:16; 교리와 성약 5:16; 모세서 6:59 참조.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침례 받으셨다.(마태복음 3:15; 니파이서서 31:5~6참조)
5. 베드로전서 4:6; 교리와 성약 138:10~37
6. 고린도전서 15:29;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8쪽 참조
7. 특히 1823년부터 1827년까지
8. 후에 요셉은 "풀이카타라는 말은 묶는다 또는 인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2쪽)
9. 교리와 성약 2:1~3
10. 말라기 4:5~6 참조
11. 마태복음 17:3 참조. 이스라엘 집합 및 열지파의 집합에 관한 열쇠는 모세에게 있었으며, 인봉의 권세에 관한 열쇠는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열쇠를 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었다. 인봉의 권세에 대한 참조 성구는 마태복음 16장18~19절과 교리와 성약 138편

- 45~48절에도 나와 있다.
 12. 교리와 성약 110:16
 13. 니파이서 13:26; 28~29; 32, 34~35, 40

14. 사도행전 3:21
 15. 엔사인, 1971년 12월호, p71~72
 16. 오바다 1:21
 17. 교리와 성약 138:18~37 참조
 18. 교리와 성약 110:1~4, 7 참조
 19. 교리와 성약 110:7~16; 또한 교리와 성약 2:1~3 및 주11의 주석 참조
 20. 교리와 성약 124:29~30
 21. 교리와 성약 124:32;

22. 1841년 11월 8일, 침례 반이 "'브리감 영에 의해 헌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후에 브리감 영, 히비 시 킴블, 존 테일러에 의해 40명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때,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경륜의 시대의 교회 역사, 솔 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9년, 252쪽)
 "성전 기록에 의하면, 5,615명의 회원들이 서부로 가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또한 거룩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같은 책, pp. 303~4)

23. 교리와 성약 127:6~7
 24. 교리와 성약 128:1
 25. 교리와 성약 128:6
 26. 교리와 성약 128:8
 2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2~333쪽
 28. 교리와 성약 128:15; 또한 18절 참조
 29. 교리와 성약 1:30; 21:2; 124:118
 30. 대관장단의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 제6권.(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 1965~75년), 3:256~57; 또 한 데저렛 세미 위클리 뉴스, 1894년 4월17일, 1쪽

31. 아키발드 에프 베네트, "유타주의 계보 협회", 임프먼트 이라, 1935년, 225쪽

32. 에트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그의 고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성명을 공포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고려해 볼 때, 우리들이 개인적인 합당성, 의식이 받아들여 질 것인지, 또는 그 계획된 의식에 의해 영향받은 다른 죽은 자들의 느낌이 어떨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은 필연적으로 장막 저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대관장단 서한, 1988년 12월 8일)

33. 엘머서 19:13 참조; 이터서 3:14; 모세서 5:9

34. 교리와 성약 138:58; 모세서 5:9
 35. 같은 책, 같은 절
 36.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성전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전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회개로써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을 위하여 성전 사업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조상이 진리를 받아들여이라는 희망을 갖고 성전 사업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로스 알 맥콩키 편,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54~55년, 2:170)

37. 기록 재출 지도서, 제4판.(솔트레이크시티: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계보 협회, 1973년), 16쪽

38. 엔사인, 1994년, 5쪽
 39.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로스 알 맥콩키(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 1954~1955년) 2:68; 브로스 알 맥콩키, 광명의 메시지,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판사, 1979~81년), 3:188

40. 니파이서 9:41; 엘마 41:3; 교리와 성약 137:9

41. 교리와 성약 128:24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우리는 역사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대로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는 교회 성장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훌륭한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넘치는 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총리 직원과 교회 본부의 보조 조직 직원들로부터 받았던 현명하고 영감에 찬 가르침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을 동안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겸손한 기원입니다.

저의 헌신적인 보좌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분들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풍부한 지혜와 경험과 이해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또 저는 34년여 동안을 함께 봉사했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칠십인과 관리 감독단 여러분께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보여 주시는 희생과 봉사에 대해 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조직의 본부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회 말씀에 대해 깊이 상고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과 총관리 직원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영감으로 전한 그분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주 그 말씀들을 참고합니다. 주님은 이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며 우리 행복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노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릅니다. 그분을 우리의 모범과 안내자로 삼읍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는 교회의 성장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에 따라 더욱 용기 있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죄 없는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예배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축복과 신성한 성전에서 주어지는 거룩함과 안전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전은 계시와 평화의 장소인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감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회생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배웁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 성약 및 성전 결혼을 통해 성전을 지상에서 우리의 최고 목표로 또 최상의 경험으로 만듭시다.



태버나클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외 참석자들을 위한 뎀플 스케어의 어셈블리 풀.

다.

성전 안에서 가진 영적인 느낌을 우리의 자녀와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모든 선교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시다.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도록 계획하고, 가르치고, 권고합시다. 결혼 장소 및 남편과 아내를 맺어 주는 권능의 중요성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히 상기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룩한 성전으로 통합니다. 이는 성전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성전에 가도록 또는 그 거룩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복천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 성전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평화가 더욱 직접적으로 임하기를 기원

합니다. 약속된 때인 복천년은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여호와와 빛에 행”(이사야 2: 4~5)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권유요, 명령이었던 한 가지 부름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 19)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권유하며,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따라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침례의 물로 데려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합니다.

이전의 예언자들은 유능하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능하고 현명한 부부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누가복음 10: 2)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게 부여된 신권의 권세와 권능으로서 또 제게 주어진 부름의 권세로써 여러분께 저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성전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고 가족이 주님을 따르게 가르치는 데 있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진실함을 한번 더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께 의지하여 그의 왕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인도와 지시를 받고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과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엘레인 엘 잭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함께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현대의 공공 광장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며 우리 신앙의 저장고를 채웁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항상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덟 분의 교회 대관장님의 지도력 아래서 지냈으며, 이들 예언자와 그 이전의 예언자들의 신성한 부름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오 맥 케이 대관장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저의 가족을 양육했습니다. 저는 지난 사년간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인도 하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4대 예언자이신 하위

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헌터 대관장님, 우리는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의 조용하고 고결한 표정과 친절함과 통찰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습니다. 사려 깊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대관장님의 강력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대관장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거룩한 신권의 열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50만 명 이상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가 대관장님을 교회의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로 지지함을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대관장님에 대해 거수 지지할 기회가 다음 주에 있을 연차 대회를 위해 유보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여성들을 대표하여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찬송가, 1989년, 6장)라고 말씀드립니다. 헌터 대관장님, 우리는 또한 대관장님의 보좌들과 심이사도와 칠십인과 관리 감독 및 그 보좌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자매들이 본부와 각 지역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 아래 기쁘게 조화를 이루어 일한다는 사실을 대관장님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께서 헌터 대관장님에게도 지도력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때,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일들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온에 대하여는 너희 마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런 질서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을 위한 주님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위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우리의 영향력은 여성들에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사십 년 전에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님은 개혁 시대의 여성 지도자들을 "상호부조회의 운명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을 가진"(질 밀베이 데어, 제넷 러셀 캐닌 및 모린 우젠바흐 비쳐, *성약의 여성: 상호부조회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92년, 337쪽)사람들로 묘사하면서 찬사를 표했습니다. 오늘날 상호부조회는 그들이 그토록 오래 전에 마음에 그렸던 것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우리는 빛과 희망, 영성과 자비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연령과 경험을 지닌 여성들로서 함께 단합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간증을 쌓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간소화시켰으며, 우리 할머니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화된 사회가 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 주의 깊게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평가해 볼 때 보게 되는지 그것은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의 단체는 일하고 영향을 미치고 가르치고 훈련함과 고양시켜 주는 능력을 안겨 줍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에 놀라운 풍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교회의 자매들은 매일 매일 그들이 맺은 성약에 대해 참되게 심지어는 용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자신의 경험과 시련과 승리와 간증에 대해 제게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꺼이 나눠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것은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교리와 성약 64:34)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들의 자세였습니다. 그것들이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자매님은 대회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으며, 자주 기도하고 그것의 의미를 상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믿었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던 중에 그것이 참되다는 영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식품 비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이곳의] 대부분의 자매들이 여분의 설탕이나 밀가루나 기름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축하도록 권고받았으며, 심지어는 한 번에 한 숟갈씩만이라도 비축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라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통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함께 모여 그 곳의 학교를 청소합니다. “자매들이 팡이와 가지 치기용 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코코넛 잎으로 만든 빗자루로 찌꺼기를 쓸어모으는 유쾌한 소리를 [듣는 것]... 은 멋진 광경입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은 그 자매들을 너그러운 봉사의 영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스테이크는 교회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스테이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록 멀리 떨어진 대륙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생명을 바치신 구세주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의 브로큰 애로우에서도 이와 비슷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살 때, 상호부조회의 한 상냥한 할머니 곁에 앉아 뜨개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저는 빵 만들기도 배웠고 헝과 인쇄심도 배웠습니다. 저는 제 걸음마가 이제 막 이년이 되어 감을 알았으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안아 주며, 끌어 주며, 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홍수로 그 지역이 황폐해진 후에 베풀어진 관대한 봉사에 대해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자매들은 구세주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짝 자매님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곳의 자매들은 움직이는 사랑의 단일체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세상 일을 제쳐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교리와 성약 25:10)할 수 있도록 영을 구하고 더 많이 배울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주는 분명한 외침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굳건하고 충실하게 서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일에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찾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힘과 방향과

목적의 의미입니다. 찾는 것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교리와 성약 4:2)이 요구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주님의 사업에서 훌륭하게 그들의 마음과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도 사용해야 합니다. 백여년 전에 에덜린 비 웰즈 상호부조회 회장은 “나는 여성들, 특히 생각하는 여성들을 믿습니다.”(“왜, 아! 왜” 여성의 대표자, 3권, 1874년, 10월 1일, 67쪽)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추리고, 가려내며, 취사 선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경험을 정리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며,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견해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런 연후에 옳은 일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을 뜻하신 것이 아닙니까?(교리와 성약 9:8)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미칠 것입니다.”(교회 정사, 3:295)라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은 제게 영감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36)는 아주 친숙하고 고상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성실하게 빛과 진리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이해와 헌신을 반영하는 투명함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투명함은 매일의 경험과 깊은 연구를 통해 배우고,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영감을 받음에 따라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여]... 한층 많은 지식[을]...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8~19)

배움—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때, 매일의 행동에 빛과 진리로 바뀌는—은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노스 다코타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가졌

습니다. 토요일 아침 모임을 마친 후, 우리는 그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자매님들과 함께 사우스 다코타에서 열리는 여성 노년 모임에 가기 위해 전세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는 그 버스를 네 시간만 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의 대부분이 걸렸으며, 저녁 때까지 타야 했습니다. 그 버스는 정류장에서 만나절을 보냈으며, 아주 지루하게 기다린 후에야 그 버스 기사는 모터를 고쳤습니다.

이것은 괴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세 시간이나 차를 더 타야 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그러나 대초원을 달리는 그 버스에서 저는 배움과 영적으로 충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 한 자매님은 버스 앞쪽의 통로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후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와서 가정에서의 신권 축복의 힘과 중한 병에 걸렸을 때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과 일 자리를 구할 때 영의 영향력을 받은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인도받은 것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 저는 복음의 빛과 진리가 그들의 일상적인 배움의 경험에 어떻게 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일부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우리는 언제 배움을 중단할까요?... 결코, 결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설교집, 3:203)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함께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현대의 공공 광장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우정으로 받아 주는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며 우리 신앙의 저장고를 채웁니다. 스페인의 한 자매는 이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각성되고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직의 교재를 통해 배울 때마다, 우리의 지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매들이 어떻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으며, 감독의 아내인 한

자매는 대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모두 그녀를 아주 사랑스러워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배움을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초점을 맞춘 이 여성들은 교회의 문맹 퇴치 운동에 있어 시작의 일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글을 깨우치는 것에 중점을 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영원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칠 것이며 다음에 올 세대의 삶에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앤사인, 1992년, 3월호, 6쪽)

글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적극적인 도전입니다. 읽을 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존재하며,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들에 대한 계시를 포함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빛과 진리는 애매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과 현명한 생각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찬송가, 1989년, 155장)

우리는 열심히 진리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만 선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간에 그것을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구별해 주며 중대한 책임만큼이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하며 영원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교리와 성약 88:63) 자매



여러분, 제가 단 두 마디의 권고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일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예수께 이를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리게 하라."(이더서 12:41)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놀라운 목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먹이도록 고무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사소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우선 순위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 종일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경전을 읽는 시간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 주는 배움이며, 그런 균형에 대한 이해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는 변한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구해야 한다고 성신이 증거해 주는 메시지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힘을 주어서 희망과 용기와 신앙을 갖고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세우신 상호부조회에서 자매애를 나눔으로써 이 교회의 여성들이 축복 받고 지지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배를 저어 감

지예교 앤 오까자끼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애에서의 책임 중 하나는 배움과 지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매애가 강화되는 것을 느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즉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만났습니다. 이 훌륭한 합창처럼, 저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그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휴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움의 힘과 또 그것과 자립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균형 잡힌 배움을 추구하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전에서 그러한 용어는 연구와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88년 118 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이와 같은 권유는 교리와 성약에서 두 번이나 더 반복됩니다.(교리와 성약 107: 7, 14 참조)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는 말은 세계 그 두 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상호부조회의 문맹 퇴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글을 읽고 쓰는 데는 연구와 신앙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 우리의 몸이 창조되었으며, 하늘 부모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지상의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의 것을 성스럽게 유지할 관리인이며, 부활한 후에는 완전해진 몸을 갖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보트의 한 쪽 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병이 화학적인 불균형이나 열 때문인지, 부러진 뼈를 어떻게 제대로 맞추는지 또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심장의 판막을 어떻게 수술로 교정할 지—상세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는 우리가 지식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한 쪽 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쪽 노만 이용하여 보트를 저어 나가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빙글빙글 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저으면 더욱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천천히 저으면 서서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기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신앙에 대치하려고 하는 것이나, 연구하지 않고 신앙만 행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할 때까지는 성신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일에 양쪽 노를 다 사용한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심이사도 평의회 의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심장 외과의로서의 이전 직업에 양쪽 노를 다 사용했습니다. 숙

련된 손길과 또 연구와 경험을 통해 그의 정신에 축적된 지식과 수술할 때, 성신을 통해 확증되곤 했던, 그의 마음에 쌓인 신앙을 통해 그는 교회의 대관장님들과 총관리 직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생기와 힘을 연장시키는 현대의 기적을 배풀었습니다. 만일 그가 신앙에만 의지했다면, 여전히 훌륭한 사람은 되었겠지만, 위대한 외과의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만일 연구에만 의지했다면, 훌륭한 외과의는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주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자기 능력의 최고점에 도달하도록 신앙의 은사와 연구의 은사 모두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립하게 되도록 연구하고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간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립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이라는 교회 복지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보건; 직업; 가정 비축; 자원 관리;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힘을 기를..."¹ 자립의 한 가지 면인 직업을 살펴보고 연구와 신앙으로 배우는 것이 어떻게 이 주제와 관련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가정에 있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성장기 동안 우리 자녀의 많은 필요 사항과 상처받기 쉬운 면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하며, 고무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어머니의 중요성은 참으로 중대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안정되고 사랑이 있으며, 항상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양친이 모두 있는 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여성이 다 어머니인 것만도 아니며, 또 모든 어머니가 다 집에 자녀가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어머니가 다 항상 집에서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만은 없습니다. 환경은 종종 선택을 강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과 기회는 어

려운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들과 가족들이 연구와 신앙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과 연구는 구하는 자매에게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남을 판단하지는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녀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혼자이든 아니든, 만일 결혼을 했다면 그녀와 남편이 함께 주님의 인도를 구했는지 안했는지, 또는 자녀의 재정적인 안전에 관해 대부분 혼자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고 있든 아니든, 같은 자매로서 받아들이고 지지해 줍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는 서로 서로를 신뢰합시다. 우리는 매일의 어려움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자매들의 집에 우리의 비난까지 얹지는 맙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짐과 맞설 때, 생각 없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힘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상호부조회가 협조적이고, 나누어 주는 조직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상호부조회라는 배를 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헌을 다 소중히 여깁시다. 그녀의 인생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녀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한 자매도 배척하지 맙시다. 그녀가 연구와 기도를 통해 내린 결정에 신뢰를 보여 주고, 또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성공하기 위해, 그것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합시다. 만일 변화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지지해 주고 배려해 주는 분위기에서 더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여성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과 경제적으로 돌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7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개설 당시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또한 직업을 갖기 위해 계획하도록 촉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모든 교육을 받고 가능한 직업 훈련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품위 있고 보람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재능과 은사를 확대시켜 줄 직업에 종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² 아무튼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 경제가 한 사람의 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많은 어머니가 혼자 버려져서 자녀를 부양하게 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혼자 지내게 됨에 따라 그의 권고는 더욱 타당해져 왔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연구의 노력을 사용해서 유급 일자리를 포함한 가치 있고 보람있는 활동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헌터 대관장님의 모범 역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그는 자신의 첫번째 직업이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을 바꾸었습니다.³ 이러한 모범은 우리가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바꿔 말하면 배를 저어 갈 때, 양쪽 노를 다 사용하십시오!

연구로서 배우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아주 높은 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하와이 제도의 "큰 섬"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두 분 다 학교에는 약 6년밖에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두 분에게는 고등학교도 불가능했고, 대학은 상상하지도 못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녀들은 꼭 교육시켰다고 가오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딸이 아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지만, 5년 동안 제가 그분들의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게 많은 기대를 거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 주셨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남동생들이 학업에 흥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그들에게도 똑같은 희생을 치르시었습니다. 부모님 중 어느 분도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 캠퍼스에 발을 디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접한 유일한 대학 졸업자는 우리 마을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게 도구를 주셨고, 저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도구는 제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들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



고, 사람들-특히 새로운 환경에서-을 살펴보고, 그들을 공손히 대하며, 어떻게 진분은 나눌지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그러한 기술들이 제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옳았습니다.

또 신뢰는 제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들은 제가 열다섯 살 때,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결정을 신뢰하고 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믿으며, 올바른 삶을 살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수십 번도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제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제가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연구하려 하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구세주에 대한 큰 신앙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연구로서 지식을 구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제게 있어 연구로써 배우는 것과 신앙으로써 배우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양쪽이 다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고, 제 정신을 밝혀 주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립하려고 노력할 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립하려고 노력할 때도,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록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베드로후서 3:18)고 권고했고, 베냐민 왕도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지으신 이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모사야서 4:12)도록 강력히 권유하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에서의 책

임 중 하나는 배움과 지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가 인생의 폭풍우에 의해 가라앉지 않도록 연구와 신앙이라는 두 개의 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러한 노를 사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연구와 신앙을 통해 배움과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배울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 자기 인생의 상황을 모두 조절할 만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만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맞은 도구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확신을 갖고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결정조차도 안겨 줄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을 따르십시오. 식견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도 원하면 신권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분명해지면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저는 평생 배우는 학습자로서 복음의 영광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이로움에 대해 매일 배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진보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배움을 기대할 때마다 저를 흥분시키는 것 중 하나입니다. 빙글빙글 돌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도록 연구와 신앙, 두 가지를 다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상호부조회에 대해 또 그것이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힘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를 고양시켜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배움의 문을 열어 주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주는 구세주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운 노력에 대한 신권 지도자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서로가 "연구와 신앙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과 배움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친절하고 행동과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생활에 성신을 끌어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성들은 서로 서로에게 또 가족과 더 넓은 지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은 상당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방법이나 길이 영으로 인도받고 사랑으로 행하려는 우리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우리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으로 사용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으로까지 사용하는 단어인 바로 그 사랑이 학습된다고 시사해 줍니다.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며, 쉽게 성내지 않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고린도전서 13:4-7 참조) 사랑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인간을 가르치리이다. 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권고에 귀기울이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지혜를 배울 것이

라]"(니과이이서 28:30)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참으로 지혜를 배우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을 우선에 둡니다.

우리가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식의 사랑에서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옮길 때, 그리고 다행히도 그 이상으로 우리들 서로 서로와 주님과 신성한 혈족 관계에 대해 얘기해 주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발전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단번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배우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향함에 따라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1서 4장 8-11절에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선양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자신과 서로 서로에게 "마땅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때때로 쉽게 빨리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용기 있고, 바르며, 비이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조직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키우고 실행하도록 개인적으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협조함으로써,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특별히 필요로 하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서로 지지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

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것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행동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생활에 성신을 끌어온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게도, 상호부조회는 우리에게 서로서로 구원의 원리와 의식을 가르칠 기회를 주는데, 그러한 것들은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2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여성들은 상호부조회의 토대에서 사랑을 그치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구세주의 위대한 중재의 기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3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도와 신도들에 의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의 사도와 신도들에게 주어진 종류의 지식은 영의 은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주목하십시오. 그 후 그 말씀은 사도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듣는 누구에게나 전해 주었으며, 나중에는 경전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재성 및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 즉 기록하기조차 한 말씀과 성령으로 전해진 지식의 사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호부조회가 글 읽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읽기를 가르쳐 주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배움을 장려해 온 것은 서로에게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데 있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한 통로이며 확실하고 일반적인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두 언어를 인지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놀라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서 그분과 대



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러한 재능을 사용해서 옳은 길을 배우고, 서로를 고양시켜 주며,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발전시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밤 이곳에 함께 모인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와 같이 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리된 지혜를 얻고 말씀들을 듣기 위해 애써서 함께 모여 좀더 잘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안받은 것을 계획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장은 그 의미가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말씀들을 숙고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영감받은 말씀이나 음악을 통해 마음속의 심오한 어떤 것에 대해 진실한 경험을 하거나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인식의 작은 폭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고양되고 흥분되며, 우리의 정신과 마음 역시 그렇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최소한 순간적으로나마 우리와 하나님과의 혈족 관계 및 우리들 서로의 혈족 관계를 증명해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한 교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모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걷는 길이 일상적이 되기 쉬우며 “제일 좋은 길”(고린도전서 12:31)을 보기 위해 영적으로 마음쓰는 것을 막는 편한 습관을 허용하기 일쑤라는 것을 알기도 더욱 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교신하는 수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모른다면, 저는 무관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인공 위성 방송

은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상호부조회 모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매체를 통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그와 같은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배후적으로 교신할 것입니다. 마음을 미덕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혼란시키고, 산만하게 하고, 속이는 것을 고르는 데는 기만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런고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속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은사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 또 그같이 행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교리와 성약 46:8-9)

상호부조회 한 역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의 말씀을 알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많은 딸들과 만나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각자가 크게 변화하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가진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 여성들 중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구별합니다.

금년 늦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신앙과 간증으로 저를 감동시킨 그런 여성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녀는 날씬하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녔는데 자신을 보트 피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온 후에 영어를 배웠으며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녔습니다. 화학 공학을 전공했고, 그녀는 결혼하였으며, 교회에 가입하였고, 네 명의 자녀를 두었습

니다. 그녀의 읽기 능력은 그녀에게 주어진 많은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물론경 읽기가 어떻게 경전의 진리뿐만 아니라 힘든 수학과 화학 공부까지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학교를 졸업한 얼마 후에,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수 민족이라는 신분상의 강점 때문에 연구소에 고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경험이 없어서 그 곳 직원들이 쉽게 아는 절차조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물론경을 읽는 동안 정신이 맑아져서 자신이 맡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효과적인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놀랍게 발전해서 이제 다른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곤경에 처하면, 설명과 도움을 얻기 위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실재성, 특히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한 그녀의 노력은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 모두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토요일이면 종종 자녀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와서는 함께 준비하여 무주택자 수용소에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녀는 아무 것도 갖지 못했을 때, 엄마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자녀들이 이해하기를 몹시 바랍니다. 또한 그녀는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마서 32장 23절을 통해, 저는 그녀의 간증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 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한 선하시며, 그분의 영적인 은사는 모두가 받을 수 있음을 간증 드립니다. 성신으로 서로에게 깨끗한 사랑을 베풀게 해주는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우리는 여러분이 지닌 강한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데 공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권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관심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임을 알며, 여러분 각자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본부 역원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 및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와 이웃에서 보여 주는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는 비이기적이고 자비로운 행동 중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며, 때로는 고맙게 여겨지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봉사와 희생과 자비와 또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세상이 순수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그토록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의에 대한 여러분의 굳건한 모범은 세상의 길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혼란과 소동과 악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 주며, 돌아갈 안전한 길이 전혀 없는 듯이 여겨질 때, 그 길을 알기에 충분한 지식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편도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엔 우리가 우선 순위 중 첫째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말씀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엘마가 기록했던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엘마서 7:11-12)

속죄를 통해 우리 구세주가 되셨던 바로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여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교회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단 두푼을 바친 가난한 과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셨으며,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

내셨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랍 여인의 딸을 낫게 해주셨고, 18년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살던 여인을 고쳐 주셨으며,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어머니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아이로의 딸을 그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나사로를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겼던 비탄에 잠긴 그 누이에게로 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그분의 마음은 모친께로 향했으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시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였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으며, 그분이 일어나셨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관심을 덜 보이신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16, 1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성신의 은사인 그 다른 보혜사를 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당시의 여성들을 위로의 손길과 들어 주는 귀와 믿어 주는 마음과 친절한 눈길과 격려의 말과 성실함—굴욕과 고뇌와 죽음의 순간에서조차—으로 보살피셨던 것처럼 교회 여성들이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물결을 저지하고 구세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형제들과 함께 또 형제들을 위해 설 수 있도록 그 특권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맞서 함께 신앙으로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니파이는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니파이서 31:20)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으며, 그분을 만날 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당시의 여성들을 돌보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필요 사항을 보살피기 위해



힘을 다해 일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지닌 강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데 공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이 일을 열심히 행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의 의식 및 성약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생과 내세에서의 진정한 가능성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결점과 슬픔과 병고를 대신 하여 받으신 고통은 그와 비슷하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이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조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 모토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전의 교회 여성 총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은 축복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매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크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성도

의 벗, 1980년 1월호, 150쪽)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실한 여성이 되고 비열함, 험담, 이기주의, 외설 및 그 밖에 다른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을 초월하도록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여러분이 지닌 신성한 생득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처럼 여러분의 말로서도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후 그에 대해 훌륭한 귀감이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라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압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그분의 예언자에게 나타내십니다. 또한 저는 여성으로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대한 참됨과 영원한 본질에 대해서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4년 10월 1~2일에 개최된 제164차 반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세주께서 제 자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는 교회의 성장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그 대답에 따라 더욱 용기 있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 하게 완전하고 죄 없는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¹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떤 지상의 아버지라도 아들,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처럼 위대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옆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²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손을 들어 올려 교회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모든 신권의 열쇠를 정당하게 지닌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시와 권고에 따를 것을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³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족 기도]를 드릴 때, 가족

구성원은 모두 공동의 방향과 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진지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⁴

호레이쇼 테네리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의 할아버지로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가 예수님 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며, 제게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세 살 먹은 어린이의 간증보다 더 진실하고 순수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⁵

더블류 돈 레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필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 할 것입니다.”⁶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

“전세계 초등협회의 어린이들에게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저의 사랑의 품에 안긴 느낌을 갖기를 바랍니다.(니파이서 1:15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듣는 훌륭한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⁷

미셸린 피 그래스리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을 역임함

“만일 우리가 경전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⁸



세 분의 칠십인 정원회 회원, 본부 초동협회 회장단 및 청녀 회장단 한 명이 새로 부름받음

10월 1일, 토요일에 개최된 제164차 반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진행된 성회 동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그 외의 모든 총관리 역원들 그리고 교회의 본부 보조 조직의 지도자들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세 분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명받았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한 회원이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으며, 일곱 분의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

이 정원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본부 초동협회 회장단이 부름받았으며, 본부 청녀 회장단 보좌 한 명이 새로 지명받았다.

그리고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와 앤드류 웨인 피터슨 장로와 세실 오스본 사무엘슨 이세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왔으며, 유럽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피터슨 장로와 사무엘슨 장로의 약력은 105쪽에 나와 있으며, 두 분 모두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이다.

1975년부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온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가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렉터 장로는 그보다 일찍이 1968년 이래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했다. 렉터 장로는 미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2년에 교회에 입교했다. 그는 26년간 해군 비행사로 복무한 후, 해군 대령으로 퇴역했다. 렉터 장로는 미주리주에서 출생하여 성장했으며, 조지아 대학교와 남가주 대학교를 다녔으며,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선교부

와 플로리다-앨라배마 선교부의 선교부장을 역임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총관리 역원들은 다음과 같다. 앨버트 찰스 이세 장로, 로이드 피 조오지 장로, 멜콤 에스 켈슨 장로, 리차드 피 린지 장로, 멀린 알 리버티 장로, 제럴드 이 멜킨 장로,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찰스 장로는 1988년 10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다.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그는 유타 중앙 지역, 유럽 지역, 남 유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은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앨버트 찰스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로이드 피 조오지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멜콤 에스 켈슨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리차드 피 린지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멀린 알 리버티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제럴드 이 멜킨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된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본부 초등학교 회장에서 해임된
미셸린 피 그래슬리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해임된
베티 조 엔 쟈슨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서 해임된
루스 비 라이트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 보좌로서 봉사했으며, 계속해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1988년 10월 이래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온 조오지 장로는 북미 동남 지역, 북미 중앙 지역, 태평양 지역, 유타 중앙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 봉사로서 봉사했으며, 유타주 오렘시에서 거주하게 된다.

1989년 4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은 쟈슨 장로는 북유타 지역의 지역 회장단 제1보좌와 제2보좌로서 봉사했으며, 남유타 지역에서는 지역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내과의로서 다시 개업할 것이다.

린지 장로는 1989년 4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린지 장로는 북유타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린지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남아 있을 것이다.

리버티 장로는 1989년 4월

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으며, 아시아 지역과 북미 서북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의 보좌와 회장으로 봉사했다. 리버티 장로는 현재 앨버타 카스톤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리버티 장로는 계속해서 앨버타 성전장으로 봉사했다.

1989년 10월 이래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온 맬친 장로는 북유타 지역, 남유타 지역, 북유럽 지역, 남미 서남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맬친 장로는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계속해서 토론토 성전장으로 봉사할 것이다.

테노리오 장로는 1989년 4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멕시코 시티 출신인 테노리오 장로는 멕시코 / 중미 지역, 멕시코 지역, 남미 남 지역에서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멕시코 시티에 거주할 것이다.

10월 만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 부름받았다. 칠십인 회장단의 찰스 디디에이

장로가 회장으로,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벨라드 워시번 장로와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각각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봉사할 것이다.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은 멀린 알 리버티 장로와 클린튼 엘 커틀리 장로(금년 4월에 별세함)와 로날드 이 포울 맨 장로와 대체된다.

또한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도 다시 조직되었다.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가 어린이들을 위한 보조 조직인 초등학교의 본부 회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앤 지 워스킨 자매가 제1보좌로, 수잔 릴리화이트 자매가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6년 반 동안 봉사해 온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이 해임되었다. 해임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미셸린 피 그래슬리 자매, 제1보좌, 베티 조 엔 쟈슨 자매, 제2보좌, 루스 비 라이트 자매.

그래슬리 자매는 미국 유년 스카우트 위원회와 초등학교의 어린이 메디칼 센터 이사회에서 봉사해 왔다. 그래슬리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회

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8년간 봉사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임원으로 5년간 봉사했다.

쟈슨 자매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 위원회의 위원이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쟈슨 자매는 교과 과정, 음악,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라이트 자매는 미국 유년 스카우트 위원회에서 봉사해 왔다. 라이트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누는 시간, 교사 훈련, 시청각 자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패트리샤 피네가 자매의 후임으로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가 새로 부름받았다. 피네가 자매는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해 왔다. 보니 댄시 파킨 자매가 본부 청년 회장인 재니트 시 헤일즈 자매의 제2보좌로 지지받았다. 새로 부름받은 자매들의 약력은 105쪽에 나와 있다. □

앤드루 더블류 피터슨 장로

철심인 정원회



앤드루 더블류 피터슨 장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치과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일을 기억할 때면 가슴 뭉뚱함을 느낀다. 그 당시, 낮에는 종일 치의학공부를 공부하고 저녁이면 종종 복음을 가르치곤 했다.

선교 사업의 일정이 매우 바쁘게 짜여져 있었지만, 피터슨 장로는 치과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저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학업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피터슨 장로가 받은 스테이크 선교부장의 부름은 그가 철심인 제일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아르헨티나의 북부와 볼리비아의 남부 선교부에서 봉사를 했고,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멕시코 메리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했으며,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솔트레이크 대학교 제3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를 역임한 뒤 이어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를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지구 대표로 봉사하였다. 피터슨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에서 해임된 다음 초

등협회 교사로 기쁘게 봉사하였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앤드루 피터슨은 1947년 6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3년 후에 그의 가족은 유타주로 이사를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유타주에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였는데, 처음에는 페이슨에서 개업을 했다가 후에 솔트레이크로 옮겼다. 앤드루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내고 1974년 치과 학교를 졸업한 다음 치과 병원을 개업하였다.

어렸을 때 이미 피터슨 장로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피터슨 장로의 할아버지께서는 솔트레이크 힐사이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을 지내던 시절에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면 이따금 피터슨을 총관리 역원에 소개하곤 했다. 피터슨 장로는 16세 때 뉴욕 주의 구모라 언덕의 축제에 참여하고 거룩한 숲의 간증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큰 영향을 받았다.

피터슨 장로는 1969년 6월 2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크리스틴 앤 스웬슨 자매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여덟 남매를 두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피터슨 부부는 지금까지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의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두 부부는 북미와 남미 대륙의 동반자 활동, 즉 북남미 대륙의 민족 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볼리비아 학교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피터슨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든 시간을 바쳐 봉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매우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

다. 이 사업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

철심인 정원회



칠 심인 제일 정원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고 이에 적응을 하고 있는 세실 오 사무엘슨 장로의 삶에 힘과 용기를 준 두 가지 주요한 영향력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간증이다.

인터마운틴 의료원의 병원과 의사 담당 부서를 관리하는 수석 부원장이었던 그는 자신의 책상을 치우다 말고 이렇게 말한다. "저는 평생 동안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 왔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저는 요센 스미스와 물문경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마치 소리나 그림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았습시다. 즉, 응답의 소리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사무엘슨 장로는 1964년 11월 2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던 사련 제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 아내는 저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솔직한 비평가입니다. 아내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름을 받든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적으로 저를 지지합니다."

1941년 8월 1일 솔트레이크 시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

무엘슨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과 유전학을 전공하다가 스코틀랜드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귀환 후 교육 심리학 석사 학위와 전문의 학위를 취득한 다음 북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쳤다. 그런 다음 17년간 류마티스 및 관련 질병 전문의로 일했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의과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이 대학교의 보건학 담당 부총장 및 약대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인터마운틴 의료원에서 현재의 수석 부원장직을 맡은 지는 4년이 되었다.

사무엘슨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고등 평의원 등으로 봉사했으며, 1977년부터 1982년까지는 유타 대학교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저의 가족은 모두 복음에 충실한 대학생들과 지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지구 대표로 봉사했으며, 칠심의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 솔트레이크 할러데이 남 스테이크의 할러데이 제18와드에서 대제사 그룹장을 맡고 있었다.

독서광인 사무엘슨 장로는 역사와 시사에 관한 글을 즐겨 읽는다. 그는 아내와 12세에서 26세까지의 다섯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의 취미는 포웰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운동 경기를 관전하는 것이다. 테니스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이며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긴다.

사무엘슨 장로는 자신의 직업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의술은 근본적으로 봉사의 임무이며, 봉사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행하는 좋은 일은 결국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새로 부름받은 자매들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나눔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부름받은 패트리샤 피 피네가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 부름받은 앤 위들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 부름받은 수잔 릴리화이트 워너



본부 청녀 회장단에 부름받은 보니 댄시 파킨

본부 청녀 회장단에 새로 부름을 받은 보좌와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새로 받은 부름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는 등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에 새로이 부름을 받은 직후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 조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기회입니다.”

지난 2년간 본부 청녀 회장단의 제2보좌를 지낸바 있는 피네가 자매는 13세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의 오르간 반주자로 봉사했던 일을 이렇게 회고한다.

“당시 저는 형편없는 반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틀림없이 저를 사랑하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참으로 중요한 사

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피네가 자매는 1937년 2월 3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생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기를 좋아하셨다고” 피네가 자매는 말한다. 그녀의 가족은 여러 차례 이사를 하였다. 그래서 패트리샤 피네가 자매는 유타주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살기도 하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와이에서 살던 시절이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네가 자매는 캘리포니아 주의 글렌데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브리감 영 대학교로 진학하였는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재의 남편인 에드를 만났다. “우리는 첫눈에 서로 반해 버렸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두 사람은 1956년 3월 28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얼마 후 피네가 자매는 자신이 가장 많이 바랐던 어머니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자녀와 남편이 있는 가족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열 일곱 명의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속한 어린이거나 세살 미만입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새로운 부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피네가 자매는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초등학교의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것을 지켜 보았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이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의 제1보좌로 부름을 받은 앤 끌린 위들린은 “다시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전한다.

“어린이들은 제 인생에서 항상 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초등 교육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녀가 받은 초등학교의 역원 부름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부름에 속한다.

1939년 4월 26일에 태어나 솔트레이크 시에서 성장한 앤 끌린 위들린 자매는 부근에

있는 유타 대학교에 다녔으며, 1961년 4월 25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현재의 남편인 데이브 위들린과 결혼하였다.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와 뉴 멕시코 주의 앨버커키에서 1년간을 살고 아이다호주의 아이다호 폴즈에서 3년간 살다가 두 부부는 솔트레이크로 이사왔으며, 그곳에서 여섯 자녀들을 키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3년간 솔트레이크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제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에 속했습니다. 저는 선교부장의 아내로서 저의 역량에 대해 불안했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면 이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은 부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녀 셋을 둔 위들린 자매는 어린이들이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다녔을 적에 교회당을 들어서면 경건함을 느끼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교사님들은 매우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야말로 교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즐겁고 따뜻한 곳이지요. 저는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을 받은 수잔 텔리화이트 워너 자매는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아나임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의 교사님들은 거의 모두가 개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이 변화된 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린 때부터 복음의 힘을 접하였기 때문에 수잔은 그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영을 계속 체험함에 따라 일층 강화되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수잔은 가족과 함께 연차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한다. "그당시에 저는 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1940년 1월 19일에 출생한 수잔은 캘리포니아주의 아나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초등 교육 및 심리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일년간 프로보 시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테리 워너와 결혼하였다. 두 부부는 4년간 코네티컷 주의 뉴 헤븐 시에서 살다가 프로보 시로 다시 이사왔다. 프로보 시에서 10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그 자녀들은 16명의 손자를 낳았다. 이들은 두 부부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희생을 마다 않고 봉사하는 훌륭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간증은 더욱 커집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보니 덴 시 파킨 자매는 해임된 패트리샤 피네거 자매의 뒤를 이어 본부 청녀 회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받게 됨에 따라 어떤 의미에서 수천 명의 딸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청녀와 인생과 삶을 운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날 청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한다.

파킨 자매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1940년 8월 4일에 태어나 유타 주의 헤리먼에서 성장한 파킨스 자매는 청녀 시절에 부모가 영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회상한다. 이외에도 그녀는 사랑이 많은 청녀 지도자 한 사람에게 대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 파킨스 자매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여성 청녀 지도자는 우리 모두를 알뜰히 보살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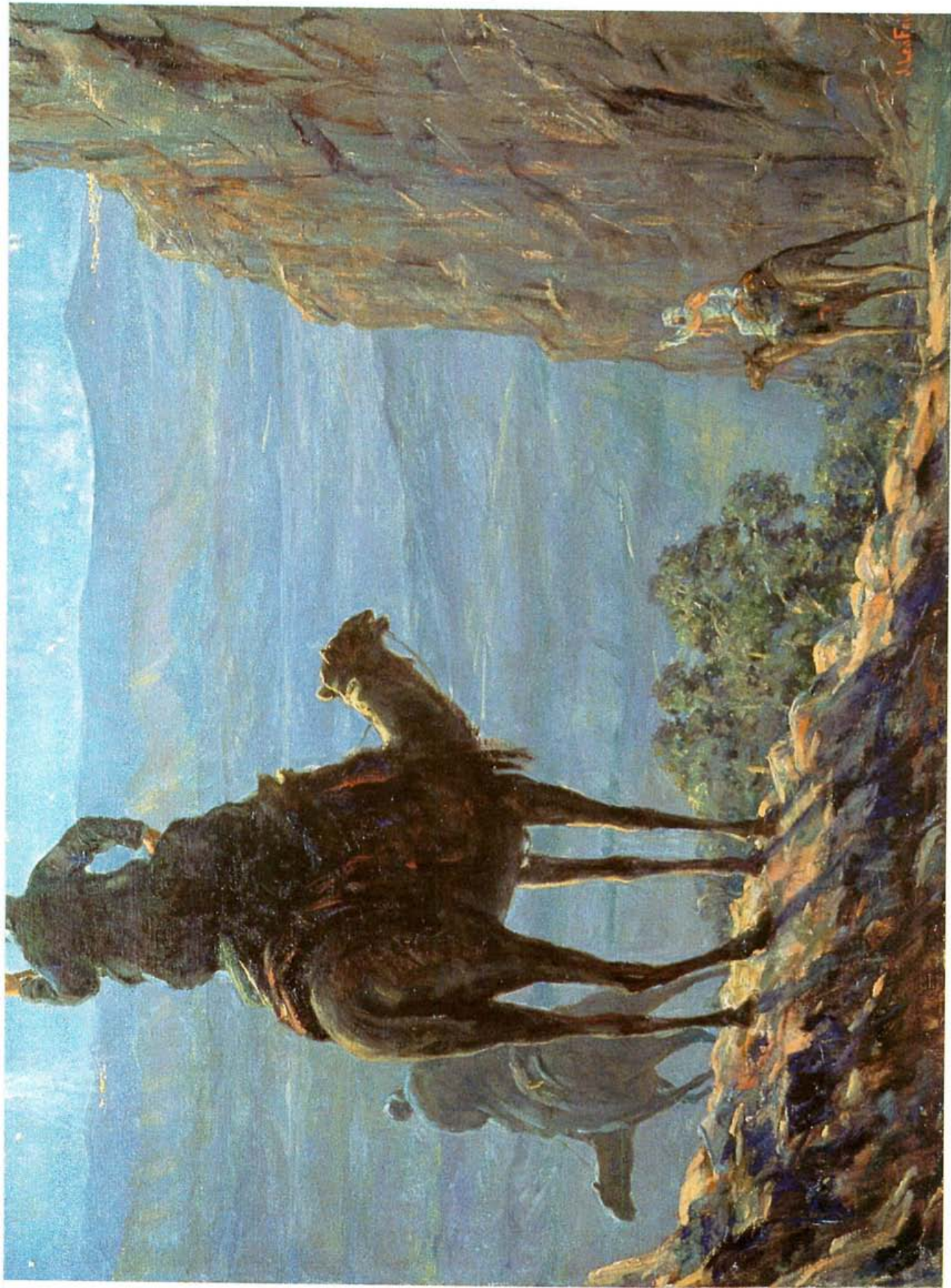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녀가 지닌 영적인 경험을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심성의껏 아껴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내용 중 몇 가지가 이따금 생각이 납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한다.

보니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초등 교육과 어린이의 초기 개발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에 1년간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유타 대학교의 대생인 제임스 파킨스와 1963

년 7월 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녀의 간증은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에 이사를 하였을 때 비약적으로 커졌다. 파킨 형제는 시애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바로 그때가 제가 복음의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한다. 지금 파킨 자매는 자신의 간증을 교회의 청년들과 계속해서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세상의 바닷물도 하늘의 지시를 따라야 했음, 제이 레오 페어뱅크스 그림.
"...동맹으로부터 바닷물이 ...이런러 말하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꿈에 ...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고" 절투성이 많은 해돋 왕에게 아가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마태복음 2:1~12 참조)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간증한) 예수를
찾고”(이더서 12:41 참조)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갖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요 기쁨입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사진 촬영:메릿; 198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인용함)